

# NEWS SUMMARY

2008.10.27

자산운용협회 홍보실

| KRX100<br>(주간)                                                                            | 코스피지수<br>(주간)                                                                             | 코스닥지수<br>(주간)                                                                            | 환율<br>(주간, 원/달러)                                                                           |
|-------------------------------------------------------------------------------------------|-------------------------------------------------------------------------------------------|------------------------------------------------------------------------------------------|--------------------------------------------------------------------------------------------|
|  -462.19 |  -241.92 |  -75.50 |  +90.00 |
| 2,010.08                                                                                  | 938.75                                                                                    | 276.68                                                                                   | 1,424.00                                                                                   |

## 유가증권시장 주간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증권선물거래소 제공 10.20~10.24일)

| 구분  | 은행     | 증권    | 보험    | 사모펀드   | 종금저축 | 연기금    | 자산운용   | 기관계    | 외국인     | 개인      | 기타    |
|-----|--------|-------|-------|--------|------|--------|--------|--------|---------|---------|-------|
| 매도  | 2,580  | 7,880 | 4,664 | 6,252  | 457  | 6,560  | 33,345 | 60,728 | 64,205  | 134,031 | 5,866 |
| 매수  | 1,430  | 7,251 | 6,771 | 5,031  | 456  | 14,934 | 30,196 | 66,068 | 53,265  | 139,708 | 6,748 |
| 순매수 | ▽1,150 | ▽628  | 2,107 | ▽1,220 | ▽1   | 8,363  | ▽3,149 | 5,340  | ▽10,949 | 4,672   | 882   |

## 주간 외국인-기관 매매동향 (기관)

| 순매수       |       | 순매도    |     |
|-----------|-------|--------|-----|
| 종목        | 금액    | 종목     | 금액  |
| K B 금융    | 1,508 | 미래에셋증권 | 703 |
| P O S C O | 980   | 하나금융지주 | 534 |
| 한국전력      | 902   | 우리금융   | 426 |
| 신한지주      | 849   | G S 건설 | 407 |
| 삼성전자      | 588   | 현대중공업  | 365 |
| 삼성화학      | 538   | 삼성중공업  | 319 |
| K T & G   | 519   | 기업은행   | 288 |
| S K 에너지   | 408   | 하이닉스   | 252 |
| L G 화학    | 403   | 동양제철화학 | 240 |
| 삼성물산      | 362   | 한화     | 227 |
| 삼성전기      | 254   | 현대건설   | 209 |
| CJ제일제당    | 236   | 동부화학   | 174 |
| K T       | 227   | 아모레퍼시픽 | 162 |
| 현대차       | 181   | 한진해운   | 135 |
| 삼성카드      | 180   | 금호산업   | 131 |

## 코스닥시장 주간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기간: 10.20~10.24일)

| 구분  | 은행  | 증권  | 보험  | 사모펀드 | 종금저축 | 연기금 | 자산운용 | 기관계   | 외국인   | 개인     | 기타  |
|-----|-----|-----|-----|------|------|-----|------|-------|-------|--------|-----|
| 매도  | 103 | 100 | 218 | 93   | 32   | 211 | 544  | 1,301 | 1,886 | 31,882 | 422 |
| 매수  | 100 | 144 | 203 | 59   | 17   | 298 | 862  | 1,883 | 1,562 | 31,732 | 628 |
| 순매수 | ▽4  | 45  | ▽15 | ▽34  | ▽16  | 87  | 317  | 382   | ▽334  | ▽251   | 206 |

# 금리 오늘 추가인하

## 0.25~0.5%p... 재정지출 확대·감세도 추진

李대통령, 오늘 '경제위기 극복' 국회연설

한국은행은 27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싼물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한은과 시중은행들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정책목표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관련기사 A5면

현재 연 5%인 기준금리를 평소 조정 폭대로 0.2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전격적으로 0.5%포인트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금융계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지난 9일 한은이 정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데 이어 20일도 안돼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이다.

한은이 정례 금통위가 아닌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 인하를 전격 논의하는 것은 지난 2001년 9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은은 9·11 테러의 여파로 국내외 경제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금리 인하와 함께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적자국채 발행)와 감세(減稅)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방위 싼물경기 부양책을 논의한 뒤 이번 주중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싼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계획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율 급등의 원인인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 위해 수출확대와 여행수지 개선, 에너지 절약,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을 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예산안 조기 처리를 요청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선 정부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외화 유동성(자금흐름)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다는 판단 아래, 싼물 경제 침체로의 파급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단계 대책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외환유동성 부족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상황점검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은 총재,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기훈 기자 khkim@chosun.com

배성규 기자 vegaa@chosun.com

# 금리인하 카드 만지작... 증시 '세 자릿수' 탈출할까

## 꼬인 수급, 미국 3분기 GDP 발표가 발목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20.5% 급락, 1000선이 무너졌다. 3년4개월 만에 다시 세 자릿수 시대로 돌아갔다. 주간 하락률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7년 둘째 주(-17.4%)를 넘어서는 사상 최악의 한 주였다.

당장 원-달러 환율, 유동성 지표 등 국내 지표도 문제지만 대외 변수가 증시를 끌어내렸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글로벌 증시 약세에 국내 증시도 맥을 못 뉘었다. 글로벌 증시의 안정이 선행돼야 국내 증시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아울러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다.

◆**금리 인하 가능성**=가장 눈여겨볼 것은 금리 인하다. 한국은행이 27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28~29일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FRB가 경기를 부양하고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금리를 0.5%포인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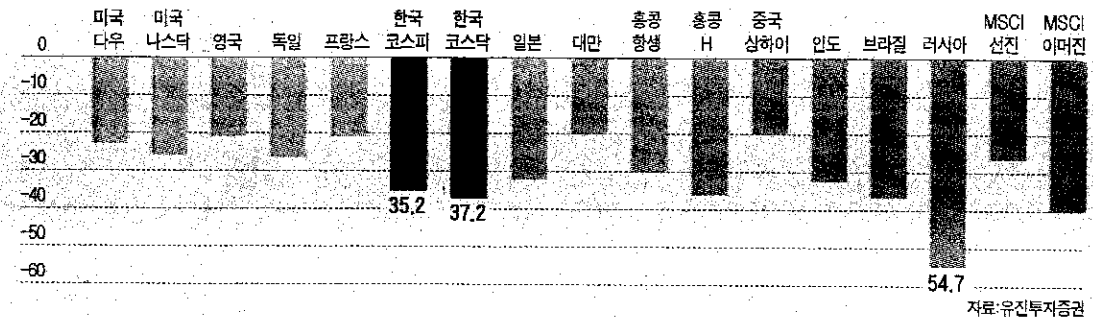
하할 것으로 전망한다. 블룸버그의 24일 현재 집계 결과에 따르면 심지어 0.7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는 전문가도 네 명 중 한 명꼴에 이른다. 한국 금통위도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

금리 인하는 증시에 호재다. 다만 이번에는 미국 금리 인하 다음날(30일)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GDP)이 발표된다는 게 변수다. 마켓워치의 집계에 따르면 마이너스 0.5%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했음을 확인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여 시장에 타격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주 영국의 3분기 GDP가 1992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유럽 및 미국 증시는 3~5% 하락했다. 잇따라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도 별로 기쁠

것은 못 된다. 27일 버라이즌을 시작으로 29일 P&G, 30일 엑손모빌, 31일 엔세브론의 실적이 발표된다.

◆**국내 수급 상황 지켜봐**=대외 변수와 더불어 지난주 유독 국내 증시가 부진했던 데는 꼬인 수급이 한몫했다. 시장에 팔자만 있었지 사

이달 들어 급락한 세계 증시 단위:%, 24일 현재



##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

자료: 유진투자증권

| 날짜  | 경제 지표                  | 수치            |       | 평가                                                              |
|-----|------------------------|---------------|-------|-----------------------------------------------------------------|
|     |                        | 예상            | 이전    |                                                                 |
| 27일 | 미국 9월 신규주택 판매          | 45만 채         | 46만 채 | 주택 채고 및 보수적인 모기지 대출 여건 감안할 때 주택매매 감소 지속될 전망                     |
| 28일 | 미국 10월 콘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 52            | 59.8  | 주택가격 하락, 고용 부진 등으로 소비심리 하락 반전 예상                                |
| 29일 | 미국 9월 내구재 주문           | -1.1%(전년 동월)  | -4.5% | 기저효과로 전월보다 소폭 개선되나 감소세 지속 전망                                    |
| 29일 | 미국 FOMC 회의, 기준금리 결정    | 1%            | 1.5%  |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전망. 경제 침체 우려 고조에 기인, 시장 안정 위 해선 추가적인 금리인하 조치 필요 |
| 30일 | 미국 3분기 GDP(추정치)        | -0.5%(전분기 연율) | 2.83% | 세금 환급 소멸에 따른 소비 부진, 해외 수요 약화 등으로 하락세 전환 전망. 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 높일 듯   |

자가 없었다. 외국인은 연일 물량을 쏟아냈다. 투신권은 환매 요구에 대비해 현금을 쌓아만 두고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게다가 주가 연계증권(ELS) 청산 물량이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유일하게 매수에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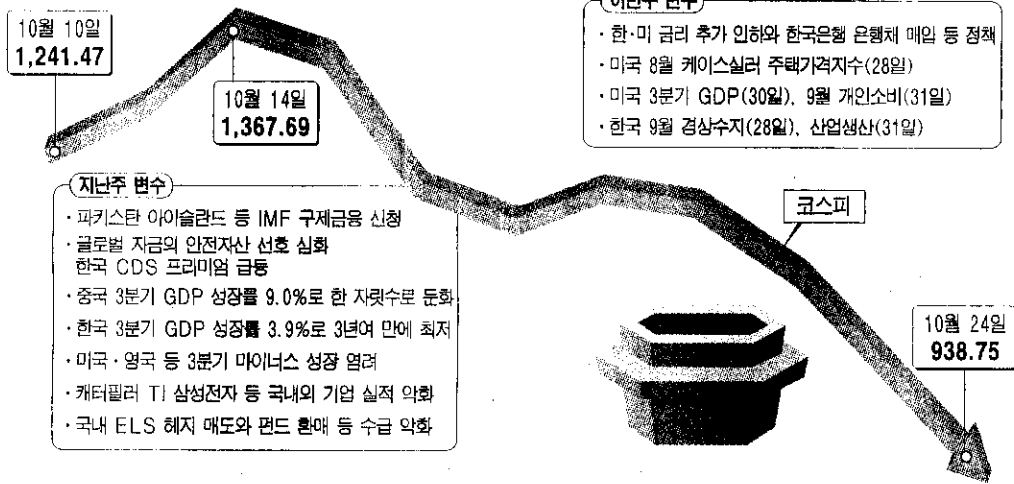
며 시장을 방어하던 개인들마저 24일 1000선이 무너지자 장 막판 매도로 돌아섰다.

그나마 아직까지 펀드에서 뚜렷한 자금 유출 움직임이 없는 것은 다행이다. 이달 들어 23일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간 돈(상장지

수펀드 제외)은 2300억원에 불과하다. 대우증권 이승우 연구원은 "우리 증시의 PBR이 1배를 밑돌고 있다는 점이 지지선 형성을 도울 것"이라며 "정부의 추가 대책도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 한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들



# 韓·美금리 인하 정도와 증시영향 주목

## 미국 주택지표·GDP성장률 등 변수 많아 한은 은행채매입·경상수지 발표도 관심

최근 주식시장은 한국 내부 요인과 글로벌 경제 상황이 뒤섞여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난주 국내외 기업 3분기 실적 발표로 실물경제 침체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국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금융위기 확산 공포가 세계 증시를 짓눌렀다.

코스피는 지난 24일 110포인트 이상 하락한 938.75로 마감하며 세 자릿수로 추락했다. 주간 수익률이 무려 -20.49%로 1987년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미국도 아시아와 유럽 증시 폭락 소식이 전해지면서 24일 개장 전 선물거래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져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으나 9월 기준주택 매매가 예상보다 증가하자 낙폭을 줄여 3.59% 하락 마감했다.

### ◆금융위기 확산과 실물경기 침체 악재 동시에 작용

코스피를 3년 전 수준으로 끌어내린 주범은 글로벌 공조 체제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단기 자금 흐름을 가늠하는 리보(런던 은행 간 금리)가 하락하며 안정을 찾은 듯했으나 신용스프레드는 줄지 않아 여전히 불안감이 상존해 있다.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난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선진국 증시 낙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한국을 포함한

신중국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급증하고 증시 낙폭도 컸다.

국내 기업 실적은 예상보다 나쁘진 않았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4분기 이후 실적에 대한 염려가 불안감을 키워 실적 시즌을 무색하게 했다. 이에 더해 국내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매도와 펀드 환매 부담은 수급 악화로 이어졌다.

### ◆이변주 정책에 쏠린 눈...추가 하락 여력 제한적

국단적 공포심리가 작동하는 시장에서 더 이상 펀드멘털로 주가를 전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1000선에서 이탈한 지수가 장기 고착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원은 "주가 순자산비율(PBR)이 1배 이하로 떨어져 밸류에이션이 바닥권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매도압력이 낮아지고 저가 매수세를 기대하게 한다"고 말했다.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해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이 강력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성진경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달러 유동성 부족이 국내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핵심 요인인 만큼 27일 긴급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의 은행채 매입 결정과 기준금리 인하 여부 양도성예금증서(CD)·은행채 금리 안정이 중요하다"며 "이번주 9월 경상수지 발표, 일본과 통화스왑 여부도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위기를 부른 주범인 미국 주택지표가 부실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단기 반등 여부에 대한 장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28일(현지시간) 발표될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를 주목하고 있다.

24일 미국 증시 낙폭을 줄인 계기가 됐던 9월 기준주택 매매는 예상보다 크게 상회하면서 전월 대비 5.5%인 5년여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이승우 연구원은 "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기회의에서 연방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시장에서는 0.5%p 추가인하 가능성을 92%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0.75%p 인하 가능성도 최근 높아지고 있다.

30일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공개되지만 이미 백악관 측이 3분기는 물론 4분기 경제성장도 기대할 게 없다고 밝힌 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안정되려면 적어도 정책 효과가 발현되고 미국 리더십이 재편되는 다음달까지 기다리라는 의견이 많다.

김학균 연구원은 "구제금융안이 미국 하원에서 부결된 것을 계기로 증시가 빠른 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다"며 "11월 미국 대선을 계기로 반등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가 단기간에 워낙 폭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안정되고 반등할 여력이 생기면 그동안 억압됐던 힘만큼 빠르게 반등할 힘도 갖는다"면서도 "본격적 반등은 내년 중순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나 기자

# 은행채 매입·지준율 인하... 고강도 카드 다 꺼낸다

한국은행이 7년 만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금융시장이 전장을 수 없이 무너져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가 폭락, 자금시장 경색,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27일 금융위에서는 정책금리 추가 인하를 비롯해 저금준율을 인하, 은행채 매입 등 원화유동성 지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리의 경우 0.5%포인트의 대폭적인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도 은행권의 유동성 비율 규정 완화, 전전성 감독기준 유예, 예금보험제도 상향 조정 등 고강도 방안을 꺼내들 태세다.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시스템 총체적 난국... 특단 대책 필요” 판단  
은행 원화유동성 감독 1개월 기준으로 완화 검토

◇금융위 전격 소집... 금리 인하, 은행채 매입 논의할 듯=27일 임시 금융위 소집은 전혀 뜻밖이었다. 25일만 해도 예견되지 않았으나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긴급회의가 열린 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전격 발의했다. 그만큼 한은을 포함한 정부의 상황 인식이 심각해졌고 대책 마련에 다급해졌다는 것이다. 임시 금융위 소집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처음이다. 당시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금융위가 긴급 소집돼 정책금리를 4.5%에서 4.0%로 0.5%포인트나 크게 내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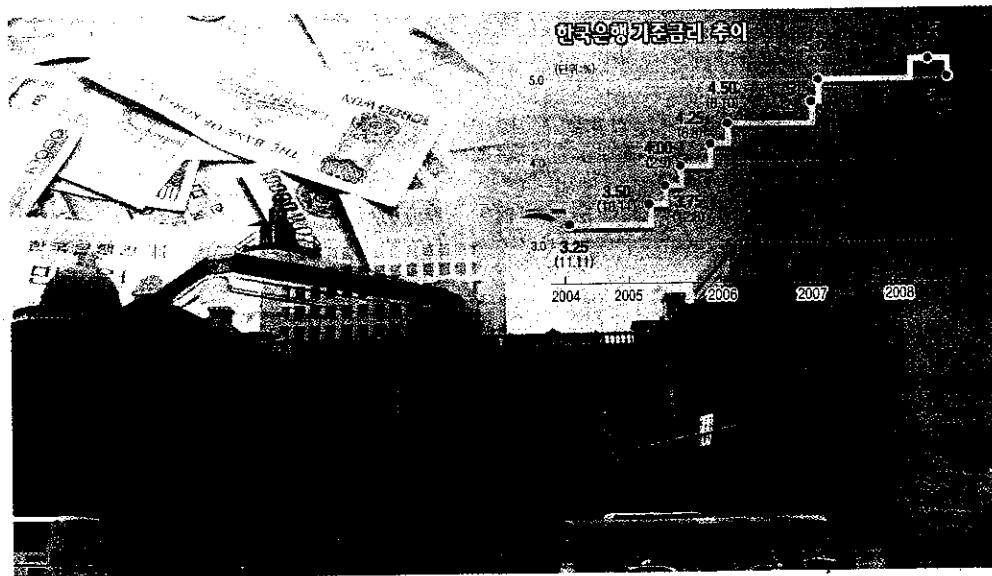
이를 감안하면 27일 금융위에서 전격적인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저금시장이 공포 열어붙은데다 경기하강마저 가팔라져 대폭적인 인하론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전종우 SC제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지고 원화유동성 경색이 심각하기 때문에 한은이 적어도 0.5%포인트의 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과감하고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 인하시 은행권의 자금준비를 인하시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저축성 예금,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및 양도성에 금융서(CD) 등 평균 3.8%인 지준율도 3%안팎으로 내릴 가능성이 관측된다.

특히 최근 자금시장 경색의 고리인 은행채 매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규정을 바꿔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은행채를 포함시켜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은행채를 사주는 것이다. 규모는 수조원대로 추정된다.

◇금융위, 은행 유동성 감독기준 완화 여정=한은과 별도로 금융감독당국도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일단 은행권의 유동성 비율 감독기준 완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은행은 현재 매달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 대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3개월 기준 100% 이상인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1개월 기준



100% 이상이나 3개월 기준 85%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금감원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3개월 기준을 1개월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 감독기준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감독기준이 엄격해 완화할 방향”이라며 “감독기준을 완화하면 자금시장의 경색이 다소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도입된 새로운 은행건전성 감독기준인 바젤Ⅱ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바젤Ⅱ의 도입으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산정할 때 위험자산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됨에 따라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위험가중치 부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고 밝혔다.

◇원화유동성 경색 완화가 당국 대책의 핵심=이 같은 정부의 비상조치는 한결같이 원화유동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대책으로 과연 자금시장 경색이 완화될 수 있느냐가 금융시장 행태의 관건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정부의 은행 외화자금 지불보증으로 외화유동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며 “문제는 원화유동성으로 이는 통화당국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RP를 통해 은행채를 매입할 경우 자금시장 경색은 일정 부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은행채를 대도하고 있다. 당연히 은행채 금리는 뛰고 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는 은행권의 발행비용은 상승한다.

이와 연동된 CD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고리를 한은이 끊어준다면 은행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의 조달비용과 가계의 금융부담이 함께 감소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유동성 확보 역시 손쉬워지면서 자금시장의 선순환도 기대해볼 수 있다.

금융당국의 유동성 비율 완화에 결국 원화유동성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 비율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낮추게 되면 만기 1개월이 넘는 2개월·3개월 CD 등이 유동성 부채가 아닌 유동성 자산으로 잡혀 유동성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은행권은 불필요하게 은행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 자금시장의 공급과잉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날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펀드 수수료 조기 인하

가격제한폭 축소도 검토

■ 증시 안정대책은

전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주식시장도 연일 폭락세를 이어가자 정부는 펀드 투자자 급 이탈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조기 인하하는 등 증시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우선 펀드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조기에 펀드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오는 11월 중에 인하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수수료 인하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추가 폭락이 거듭되고 주식형 펀드의 대량 환매 우려가 고조되자 실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펀드 투자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판매사와 운용사별 수수료료를 공개해 인하 압력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도 시장안정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0.3%가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세수 감소폭이 크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여왔지만 코스피지수 1,000이 붕괴된 비상상황을 맞아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펀드 대량환매(펀드런)와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해 현재 15%인 주식 가격제한폭을 축소하거나 한국은행이 펀드 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비상조치도 마련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매매시간을 단축하거나 주식거래 일시 정지, 임시 휴장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아울러 당국은 증시 불안에 유도하는 악성 루머를 근절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금융감독원·상장시장협회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하는 등의 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신경림기자 klsin@sed.co.kr

외환위기때 성공투자자·노후자금 마련 중인 50대 주부

## 1000 개져도 적립식펀드 계속 넣을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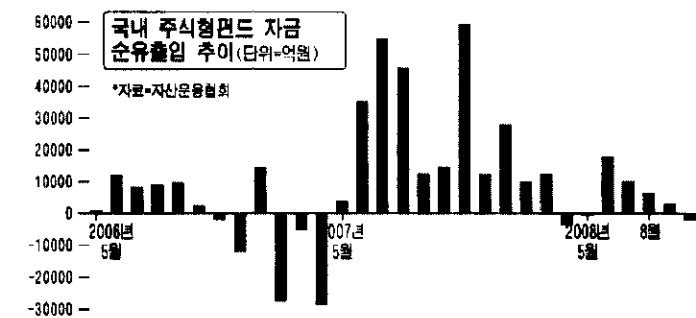
“코스피 1000이 무너졌는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기는 하죠.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지만 언젠가는 바닥이 오겠죠. 남편과 상의해 이런 때일수록 적립식 펀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죠.”

지난 24일 코스피 1000이 무너진 이후 만난 투자자의 말이다. 1000이 무너지면 펀드 자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애널리스트들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하락기를 이용해 적립식 투자를 계속하는 사람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공포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희망찬 목소리도 없진 않았다.

증권사 펀드 판매 창구를 통해 연락할 수 있었던 다수의 적립식 펀드 투자자들은 ‘주가와 상관없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잠실에 사는 신혼주부 K씨는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300만원을 11개월째 불입하고 있다. 국내 주식형과 중국 주식형 2개에 나눠서 투자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가입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형편없이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그는 “꾸준히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편인 J



씨가 결혼 전인 2000년부터 2008년 초까지 펀드에 투자하면서 결혼자금을 모으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IT버블 붕괴로 주가가 장기 하락을 겪었지만 7~8년을 버텼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는 성공할 수 있었다.

서울 대치동에 거주하는 P씨(51·주부)는 “2년간 적립식 투자를 해왔지만 원금이 까져 있는 상태”라며 “화가 나고 힘들기도 하지만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형 펀드에 돈이 생기면 계속 넣고 있다”고 전했다. P씨는 외환위기 때 얘기를 꺼냈다. 그때도 자금처럼 힘들었다고 한다. 그는 “1996년 초 펀드가 아니라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반 토막이 나면서 포기하고 버렸던 적이 있다”며 “그때 팔았던 주식은 기업은행이었

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주가는 1996~1998년 2년여 동안 -56.63%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10년이 지난 2006년에는 당시에 비해 56.92%의 수익률을 올렸다. P씨는 “외환위기 때 바닥에서 주식을 팔았다가 손해를 봤는데, 펀드를 왜 환매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예 펀드에 넣어둔 자금을 잊어버리고 투자의 세계에서 하산(下山)한 사람도 있었다.

선물 투자 전문가인 M씨는 최근 주가지수 옵션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심해져서 투자에서 손을 뗐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잘못 손을 댔다간 워낙 빠른 급류에 휩쓸려 버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주가 하락기엔 적립식 펀드가 좋지요.” M씨의 말이

다. M씨는 “가급적 뉴스를 보지 않는다”며 남은 시간에 그동안 잃어버린 체력을 다지기 위해 헬스클럽 정기권을 끊었다고 한다.

이런 투자자들이 승리할지 아니면 지금 펀드에서 자금을 환매하는 투자자들이 나중에 웃음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펀드에서 자금 이탈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코스피 1000선이 무너진 지난 24일과 23일 이들 동안 은행과 증권사 등의 펀드 판매 창구에서 6000억원가량 주식형 펀드 순환매 신청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 따르면 23일, 24일 펀드 판매사 창구로 접수된 국내의 주식형 펀드의 순환매 신청액(환매액-신규 가입액) 규모는 각각 3000억원으로 총 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순환매 신청액이 평소보다 늘었지만 펀드 대량환매(펀드런)를 염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최근 펀드 환매는 개인보다는 연말을 앞두고 수익률 관리를 위해 은행 등 기관들의 환매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신현규 기자

## 외국인 올해 주식 순매도 42조

### 헤지펀드 환매자금 마련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한 주식의 40조원을 넘어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10월(24일 기준)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40조6669억원, 1조9422억원 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연간 주식 순매도 규모는 총 42조6091억원으로 1992년 증시 개방 이후 최대치다. 그러나 증권선물거래소는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도 규모를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34조5044억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외국인이 절세 목적으로 상장지수펀드(ETF) 형태로 주식을 순매도하는 것까지 집계했기 때문에 ETF를 반영하지 않는 거래소 수치

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2005년부터 4년째 국내 증시에서 매수보다 매도 규모가 컸는데,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자 주식을 팔아 서둘러 현금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특히 헤지펀드들이 환매 자금을 마련하려고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앞다퉈 매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은 이달에만 24일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4조790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 상장채권 시장에서도 1조6000억여 원 순매도했다. 국제금융센터는 한국에서 유출된 외국인의 주식 자금은 450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국제금융연합회(IIF)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내년에 한국에서 250억달러 주식투자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나 기자

# 바닥 꺼진 코스피 1000붕괴

## 110P 떨어져 938.75 ... 일본 9.6% 폭락, 미국도 하락 출발

### 원화값 15원 ↓ 1424원

2008년 10월 24일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 또 하나 안타까운 기록이 새겨졌다. 상징적인 숫자인 코스피 1000이 결국 무너졌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57%(110.96포인트) 폭락한 938.75로 마감했다. 코스닥도 결국 300선이 무너지면서 전일 대비 10.45%(32.27포인트) 떨어진 276.68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1000을 하회한 것은 2005년 6월 29일(999.08)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하락률과 하락폭은 역대 3번째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불안한 장세는 장 초반부터 이어졌다. 선물가격 급락에 사흘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하한가로 추락한 종목이 401개에 달했으며, 총 843개 종목 주가가 떨어졌다. 주기가 오른 기업은 41곳에 불과했다.

이날 외국인 매도는 2782억원, 소규모 매물에도 불구하고 매수 주체가 없어 속절없이 무너졌다. 연일 강하게 저가 매수에 나선 개인도 불안감이 커지면서 79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공황 심리가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금이 소폭 매수하고 있지

만 투자심리 악화로 외국인의 매물 공세에 대책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46%나 급감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 데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금융 시장 불안은 여전했다.

일본 닛케이와 대만 자취연지수도 각각 9.6%, 3.19% 하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도 동반 급락했다.

한편 24일 미국 증시도 또다시 하락세로 출발했다. 25일 오전 1시 현재(한국시간) 뉴욕 다우존스지수는

전날보다 3.5% 하락했다. 이에 앞서 개장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증시는 한때 8~9% 급락했으나 장 막판 낙폭을 줄여 3~5%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날 달러 대비 원화값도 폭락세를 이어갔다. 원화값은 1424.00원으로 전날보다 15.20원 급락했다. 1405원으로 출발한 원화값은 1390원까지 반짝 반등했지만 주가가 급락하면서 오전 10시 40분에는 1465원까지 폭락했다. 이날 외국인들이 278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해 원화값 하락을 부추겼다. ▶관련기사 A2·3면

이한나·임성현 기자

# 증시 '검은 금요일' 유동성 리스크·외국인 투매 겹쳐 우수수

한국 증시가 1000선도 지키지 못하고 뚝 떨어졌다. 24일 코스피는 전일보다 110.96포인트(10.57%) 급락한 938.75에 마감했다. 2005년 5월 18일(930.36) 이후 최저치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다른 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한 직접적 원인은 이달에만 4조3000억원이 넘는 외국인 매도세 때문이다. 이날 급락도 외국인의 2782억원 규모의 크지 않은 매물에 코스피가 자유낙하한 것이다.

시장에 공포가 확산되면서 주식의 본질가치보다는 심리가 장을 주도한 것이다. 잠룡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우선순진국으로 지정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 것도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됐으나 이는 외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 ◆내부 리스크 공포가 투자심리 팽팽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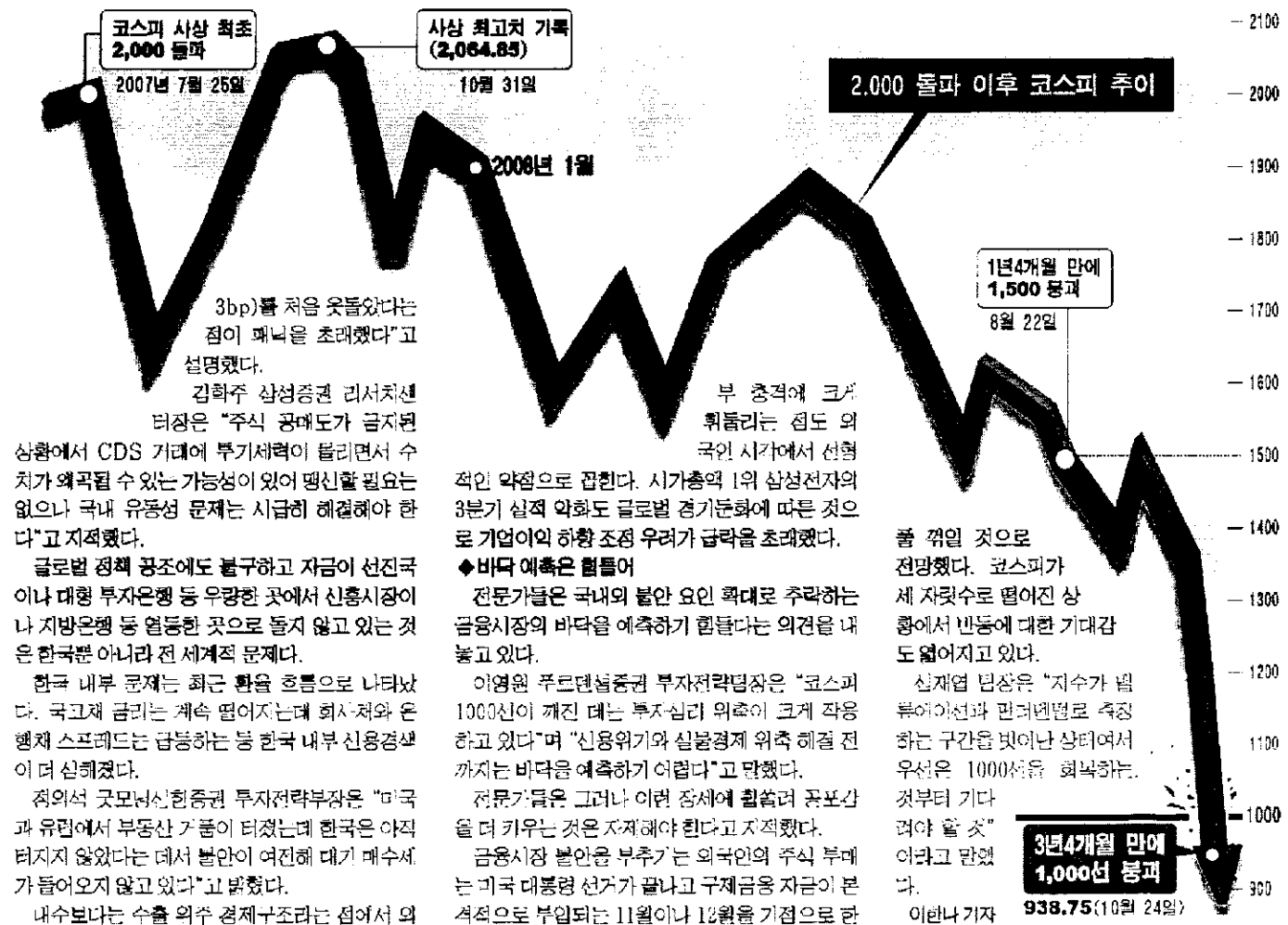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이날 코스피가 110포인트나 급락할 만한 뚜렷한 악재는 없었다고 설명한다. 매수 주체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매수 주체가 사라진 데는 국내 내부 리스크도 무시하지 못한다. 특히 낙폭을 초래한 주요 원인은 은행 자금난으로 대변되는 유동성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자본수지와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외환수급이 꼬이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 부도 리스크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왑(CDS)도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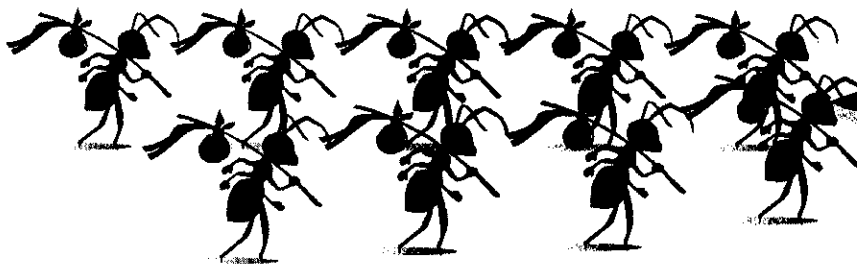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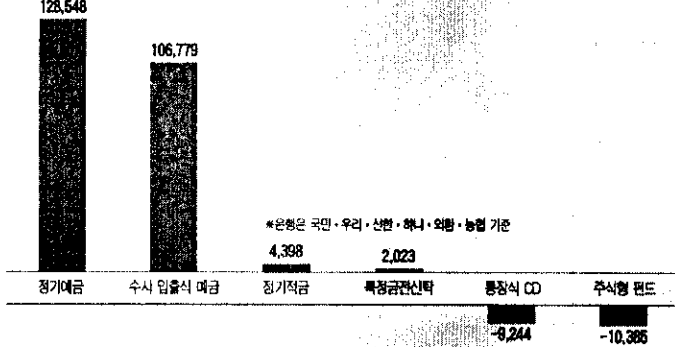
신재엽 머리증권 부자전략팀장은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23일 605.4bp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61개국 CDS 평균치(554.





리먼 파산 이후 국내 자금 유출입

(단위:억원, 9월15일 대비 10월22일 기준)



## 펀드서 돈 빼고... 안전자산으로 '피신'

1년 전 이맘 때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바보 취급을 받았다. '코스피 2000 시대'였기에 너도 나도 할 것이 없었기에 예적금을 깨고 펀드로 갈아탔다. 그러나 1년 뒤인 2008년 10월, 코스피는 반토막이 났고 환율은 50% 이상 뛰었다. 이제 "주식이나 펀드라면 이가 길린다"는 투자자가 늘어 시중자금들은 다시 은행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달 15일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신청이 이러한 '머니 리턴'의 기류를 부었다. 재테크 시장이 급가는 신호탄이 됐다는 분석이다.

◆정기예금 13조원 증가  
'9·15 리먼 쇼크' 이후 주가와 환율은 역전됐다. 1400대였던 코스피지수는 한 달 만에 900을 바라보고 있고 9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치솟았다.

주가가 내려앉자 투자자들은 안전한 정기예금 쪽으로 눈을 돌렸다. '주식 펀드도 다 싹고 예금이 최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로 조달이 어려워지 않던 은행들도 예금으로 자금을 수혈받기 위해 예금금리를 연 7% 중후반대까지 올렸다.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6개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

주가 주저앉자 정기예금 눈 돌려

이달 들어서만 10조 뭉치돈 몰려

저축계좌도 한달새 10% 급증

출대받던 정기적금도 다시 각광



난달 15일 319조4190억원에서 지난 22일 현재 332조2738억원으로 12조8548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이달 들어 10조원 이상의 뭉치돈이 정기예금으로 유입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예금 선호 심리는 뚜렷해지고 있다.

저축은행들도 연 8%가 넘는 정기예금을 쏟아내면서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평소보다 3배가 넘는 돈이 매일매일 저축은행 예금으로 들어오고 계좌 수도 한 달여 만에 10% 이상 증가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

는 "증시를 빠져 나온 돈이 은행과 저축은행 권으로 밀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MMDA에 10조원 유입

적립식펀드에 밀려 출대받았던 정기적금도 인기를 끌면서 한 달여 만에 4398억원이 늘었다. 이 기간 중 발행된 은행 후순위채와 카드채에도 수천억원의 투자자금이 밀려들었다. 실제 지난달 국민은행의 후순위채는 3일 만에 창구에서만 4271억원어치가 팔렸으며 농협 후순위채에도 이를 만에 2500억원이 몰렸다. 예금금리가 치솟기 전인 지난달 말에는 특정금전신탁에도 돈이 몰렸다. 당시 하나은행이 판매한 '빅팟 ABCP' 금전신탁은 1개월 만기에 연 6.1%, 3개월 만기에 연 6.3%의 이자를 줬으며 우리은행의 ABCP형 특정금전신탁도 3개월 만기에 연 6.5%의 수익률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현금만한 게 없다'는 심리도 확산되면서 언제든 빼낼 수 있는 수시입출식예금(MMDA) 잔액도 리먼사태 이후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안전종 하나은행 PB영업부 팀장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 투자기회를 보거나 만약의 위기에 대비해 현금성 자산을 모으고 있어 지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

명했다.

◆펀드는 1조원 이상 빠져

은행 상품이라고 모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금과 함께 꾸준히 세를 불려온 양도성예금증서(CD)는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다. 예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만기가 같은 정기예금 금리보다 0.1~0.2%포인트 높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은 탓인지 1개월여 만에 1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D금리가 연 6% 이상으로 급등해 CD발행이 쉽지 않은 데다 예금금리가 치솟아 CD만기가 돌아오면 고객들이 정기예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펀드에서도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국내의 주식형 펀드에서는 1조385억원이 순유출됐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하면 1조2323억원이 사라졌다.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전체 펀드의 순자산 총액도 한 달여 만에 33조원이 날아가버렸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증시가 떨어질 만큼 떨어진 데다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생겨나 현 추세보다 '펀드 러'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연철 기자 surisuri@hankyung.com

# 좋은 펀드 고르기 '4대 위험지표' 활용하라

**표준편차** 낮을수록 수익률 안정적

**베타지수** 1넘으면 공격적 펀드운용

**샤프지수** 클수록 위험수준 보상 커

**RRAR** 높을수록 추가수익도 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을 결심하더라도 막상 상품을 고르려면 막막하다. 관심 있는 펀드가 있어도 과거 수익률 외에는 딱히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자산운용사와 펀드 매니저가 일관된 원칙을 갖고 펀드를 운용하는지 여부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알기가 쉽지 않다.

이 때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이 펀드별로 계량화된 위험 지표다. 낮은 이름의 지표라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기본 원리만 알고 있으면 펀드를 고르고 비교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국펀드평가 제로인 등 펀드 평가사들이 홈페이지에 펀드별로 각종 위험 지표를 계산해 소개해 놓고 있어 개인들도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대증권 등 일부 판매사들은 펀드에

편입된 종목들을 분석해 펀드별로 추가수익비용(PER),주당순이익(EPS) 성장률 등 지표를 매겨 등급을 부여하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펀드의 위험도를 따지는 지표로는 표준편차 베타지수 샤프지수 RRAR(상대위험조정 후 수익률) 등이 주로 이용된다. 먼저 표준 편차는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A와 B펀드가 똑같이 수익률은 10%이지만 표준 편차가 A는 10%,B는 20%라면 B펀드의 수익률이 더 들쭉날쭉하다는 뜻이다.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수익률 변동폭이 작아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펀드다.

베타 지수는 펀드 수익률이 시장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베타 지수가 1을 넘으면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펀드,1미만이면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로 분류된다. 따라서 베타 지수가

큰 펀드는 상승장에서 초과 수익을 잘 내고,반대로 베타 값이 작은 펀드는 하락장에서 수익률 방어력이 좋다.

샤프 지수는 위험을 추가로 부담할 때마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 값이 클수록 같은 위험 수준에서 보상받는 수익이 더 많으므로 우수한 펀드라 할 수 있다. RRAR는 같은 위험에서 동일 유형의 펀드보다 얼마나 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역시 높을수록 성과가 좋다.

현대증권이 최근 도입한 '펀드 펀더멘털 지표'도 눈에 띈다. 현대증권은 펀드에 편입된 종목을 대상으로 매출액성장률 EPS성장률 배당수익률 PER 등 6개 지표를 적용해 펀드별로 지표를 계산했다. 현대증권은 이 지표를 이용해 매달 유망 펀드를 소개할 계획이다.

박혜영 기자 bono@hankyung.com

# 펀드도 '강통계좌' 우려

## 담보부족 계좌 급증..추가증거금 미납땜 강제환매

주가 폭락으로 펀드도 '강통 계좌'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투자한 펀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투자자 대부분이 증권사들로부터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지수가 938까지 떨어져 35%나 급락하면서 펀드 담보 부족 계좌가 나오고 있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펀드 자산의 50%까지 대출해주는 펀드 담보대출은 담보 유지 비율이 대출액의

140% 이하로 떨어지면 마진콜을 당하게 된다. 가령 1억원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5000만원을 대출받은 투자자는 펀드 자산이 700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증거금으로 현금을 추가로 채워넣어야 한다. 지수가 900선까지 떨어짐에 따라 코스피지수 1300~1500선에서 펀드에 가입해 대출을 받은 투자자들까지 마진콜을 요구받게 된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펀드 대출 자금을 다시 펀드에 넣어 '물타기'한 투자자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마진콜에 응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강제 환매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펀드 담보대출의 담보 부족에 따른 강제 환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펀드대출 자금은 약 3300억원(9월 말 기준),은행의 경우는 약 2조원(6월 말 기준)에 이른다.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펀드와 함께 다른 담보를 함께 잡은 대출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파악하고 있어 강

### 펀드 담보대출 개요

| 투자     | 주식형펀드 1억원 가입                           |
|--------|----------------------------------------|
| 대출     | 5000만원(펀드자산의 50%)                      |
| 담보 부족  | 펀드 자산이 7000만원(담보 유지비율 140%) 밑으로 떨어진 경우 |
| 마진콜    | 고객에게 담보부족분을 채우도록 통보                    |
| 마진콜 수용 | 부족분만큼 추가 증거금 납입                        |
| 마진콜 거부 | 강제 환매                                  |

제 환매 사례는 많지 않다"며 "증권사의 펀드 대출 규모도 크지 않고 투자자 대부분이 마진콜에 응하고 있어 강제 환매에 따른 시장 악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영 기자 u2@hankyung.com

# 金펀드도 위험?

700弗대 하락 국제금값 장기적 상승 예상

전문가 “리스크 분산차원 10~20% 투자를”

금은 금융시장과 경제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곤 한다. 요즘에도 금에 투자해 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금 투자를 고려하던 투자자들에게 고민이 생겼다. 국제 금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 3월 미국 5위 투자은행 베어스텝스가 무너진 직후 사상 처음으로 1온스(약 28.3g)당 100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 금값은 현재 70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다. 금이 좋다는 것은 옛말일 뿐일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금값이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각국이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어놓아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실물자산으로서 금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금 시세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기대수익을 낮추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들은 적금 형식의 금 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최근 금융 불안 속에서 주식이나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어 주목된다.

## 은행 금 투자 상품

| 은행 상품명       | 내용                         |
|--------------|----------------------------|
| 신한 골드리슈 금 적립 | 매달 일정액을 입금하면 금으로 적립, 만기 시  |
| 기업 원클래스 골드뱅크 | 국제 금값으로 환산한 금액이나 금 실물로 환출  |
| 신한 골드리슈 금 매매 | 100g, 500g, 1kg 단위로 골드바 구입 |

\*금 실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 10%는 고객 부담.

신한은행의 ‘골드리슈 금 적립’은 금 실물을 거래하지 않고 적금처럼 통장에 금을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부터 3년 미만이고 투자자는 매달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양의 금을 적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불입액을 10만원으로 정했다면 매달 10만원어치에 해당되는 금이 통장에 적립된다. 이와 달리 매달 10g씩의 금을 모으기로 했다면 금값 변동에 따라 금 10g에 해당하는 돈이 이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금 적립 통장에는 10g의 금이 쌓인다.

만기가 되면 적립된 금의 양에 국제 금값과 원·달러 환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이나 적립된 만큼의 금 실물을 받게 된다. 금 실물로 인출할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연 수익률이 47.3%에 달한다. 1개월과 3개월 수익률도 각각 0.6%, 12.2%로 최근의 자산 가치 하락세를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

신한은행에서는 100g, 500g, 1kg 단위로 금 실물(골드바)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기업은행이 지난 1월 선보인 ‘원클래스 골드뱅크’도 적립식 금 투자 상품이다. 최초 가입 시에는 금 1g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고 그 다음부터는 매달 1만원 이상 불입하면 통장에 금이 적립된다. 가입 기간은 6개월~3년 사이에서 월 단위로 정할 수 있고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해당 시점의 금 시세로 환산한 돈을 돌려받는다.



일정액의 수수료와 세금을 내면 금 실물로 받을 수도 있다. 1개월 수익률은 -2.3%로 저조하지만 3개월 수익률은 6.4%,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은 23.8%다.

은행 금 투자 상품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변수는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이다. 요즘 같으면 국제 금값은 하락세지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익률이 유지되고 있다.

장선호 신한은행 상품개발부 차장은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전체 투자 자산의 10~20%를 금 관련 상품에 넣어두면 큰 폭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증권·자산운용사에

## 한은, 2조 지원

한국은행이 증시 안정을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2조원의 자금을 전격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24일 주식시장 마감 후 증권금융이 보유한 국고채나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정부 보증 채권 등을 28일간 '한매조건부(RP)'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즉 한은이 28일 뒤 되파는 조건으로 증권금융이 보유한 국고채 등을 매입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A6면

한은 관계자는 "증권금융이 보유한 국고채 등을 RP 방식으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면 증권금융은 같은 방식의 RP 거래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불안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유동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한은, 증권사·운용사에 RP방식 2조 투입

# CMA 이탈·펀드런 대비 '긴급 수혈'

## 증시 유동성 위기 선제 차단 효과 기대

한국은행이 24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2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극도에 달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서둘러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자산운용사의 주식형펀드에서 뭉쳐있던 빠져나가면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한은이 일시에 2조원을 공급할 경우 최근 단기금융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증권사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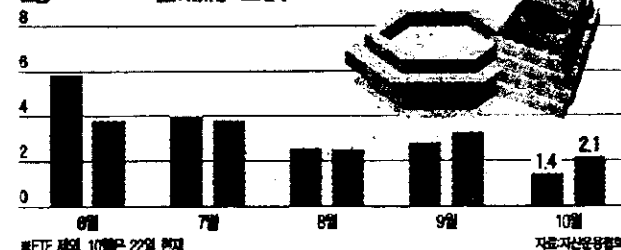
24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의 CMA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30조59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CMA는 최근 한달 사이에 1조9300억원 급감했다. 특히 개인 고객들의 자금 이

탈이 두드러진다. 이 기간 동안 법인 자금은 1700억원가량 감소한 데 반해 개인들이 팔긴 CMA는 1조7600억원 넘게 줄었다. 증권사 CMA는 하루만 맡겨도 연 5% 이상의 수익률을 준다는 점을 내세워 은행의 보통예금을 대체하는 유력한 금융상품으로 각광받았으나 최근 금융위기로 상황이 역전됐다.

CMA 잔액은 매일 꾸준히 증가해 지난 8월 32조원을 돌파했지만 9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30조원대로 내려앉았다. 고객들이 수익률보다는 안전성 중시로 돌아선 탓이다. 이 때문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최근 풀머니 차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폭락으로 대부분의 펀드가 반토막난 자산운용사들도 상황이 다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 주

주식형펀드 판매와 자금유입 추이 (조원)



식형펀드의 잔액 합계는 136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주가 폭락으로 순자산 기준으로는 82조원대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주가 하락이 깊어지면서 판매 요청도 꾸준히 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8월 2조3000억원대였던 주식형펀드 판매액은 9월에는 3조원대로 늘었고 이달 들어서도 이미 2조1000억원이 판매됐다. 그나마 채권형펀드는 이달 들어 1조원가량 잔액이 감소하는 데 그쳤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채권형펀드는 판매가 몰릴 경우 먼저 판매한 고객보다 남아 있는

가입자의 피해가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주식형펀드보다 펀드런에 더 민감하다"며 "아직까지 채권형상품에서는 큰 동요가 없지만 비상시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정원 삼성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한은이 2조원의 자금을 직접 공급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며 "풀머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증권사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재원 기자 bono@hankyung.com

# 한국증시 5번째 '죽음의 계곡'

1989년 1000 첫 돌파후 환란 등 거치며 등락 반복

1980년 이후 한국 증시는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합쳐 크게 다섯 차례 '죽음의 계곡'을 경험했다.

1980년대에는 '3저(低) 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으로 주가도 계속 상승해 1989년 3월 31일 코스피(1,003.31)는 사상 처음으로 1,000 선을 돌파했다.

그러나 3저 호황도 막을 내리면서 세계 경기가 침체됐다. 무역수지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코스피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정부가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일산과 분당 등 신도시를 만들고 주택 200만 호 건설에 나섰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1992년 8월 21일 바닥(459.07)을 찍었다. 빌린 돈보다 보유주식의 평가가치가 더 낮은 이른바 '강통계좌'라는 말이 나온 것도 1990년 무렵이었다.

코스피가 1,000 선을 회복한 것은 25개월 후인 1994년 9월 16일(1,000.80)이었다.

하지만 고점을 찍은 후 경상수지 적자와 고금리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주가는 서서히 하락했다. 더욱이 1997년 11월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코스피는 급락했고 약간 오르려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미끄러져 1998년 9월 200 선대로 주락했다.

우량 기업들의 주가마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자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였다. 굿모닝신한증권 김종현 연구원은 "외국인은 1998년 한 해 동안 코스피시장에서 5조7000여억 원어치를 순매입하는 등 헐값이 된 국내 주식을 쏴 담았다"며 "당시 주가가 저점을 찍은 후 급등한 데는 외국인의 매입세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버블이 일면서 1999년 7월 7일 코스피(1,005.98)는 세 번째로 1,000 선을 돌파한

한 투자가 확산되면서 증시로 자금이 계속 유입됐다.

2007년 7월 25일(2,004.22) 마침내 코스피는 2,000 선을 돌파했다. 한 달 뒤인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글로벌 증시가 충격을 받았지만, 주가는 곧바로 회복돼 10월 다시 2,000 선을 넘었고, 31일(2,064.85)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주식과 펀드로 각종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전국이 투자 열

## 지난달부터 주식형펀드서 자금 순유출 “대량환매 펀드런 사태 오나” 조마조마

다. 그러나 IT 버블이 붕괴되며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대우채 사태마저 부각되면서 코스피는 추락했다. 2001년 9월에는 9·11테러까지 터지면서 400 선대로 폭락했다.

주가가 빠르게 회복돼 2002년 4월 900 선을 넘으며 두 배로 뛴 무렵 '카드사태'가 터졌다. 네 번째 죽음의 계곡이었다. 주가는 급락했고 2003년 3월 500 선대로 주저앉았다.

이후 증시는 상승을 거듭했다. 2005년 2월 코스피는 네 번째로 1,000을 넘어섰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두로 적립식펀드를 통

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은 반전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코스피는 추락을 거듭해 이달 24일 1,000 선마저 붕괴되며 '펀드런(펀드의 대량 환매)'을 우려하기에 이르렀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는 국내 및 해외주식형펀드에 들어온 자금보다 빠져나간 돈이 더 많다. 순유출된 자금은 9월 3773억 원에서 이달 들어 23일까지는 6891억 원으로 급증했다.

손효림 기자 anyssong@donga.com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 주가, 달러로 환산해보니 71% 하락

고점 대비 美 38%·中 66%·日 43%...악재 따져봐도 낙폭 지나쳐

최근 주가 하락이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한국의 주가 낙폭은 두드러진다. 특히 달러로 환산한 주가 수준은 주요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떨어진 편에 속한다.

하지만 공포를 억누르고 침착히 다져보면 코스피가 이처럼 급락한 이유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미국이나 유럽, 원자재 가격 하락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러시아·브라질 등 국가보다 더 떨어진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지난 24일 코스피는 무려 10.56% 급락했다. 10월 들어 지난 24일까지 코스피 하락률은 35.17%에 달해 월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코스피 하락폭은 작지 않다. 지난해 고점 대비 코스피 하락폭은 54.5%에 이른다. 러시아(-76.3%) 중국(-69.8%) 등에 비해 덜 하락했지만 영국

(-44.2%) 미국(-38.8%) 등 금융위기 중심에 서 있는 국가들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반면 10월 들어선 더욱 빠른 속도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뿐이 아니다. 원화값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 폭은 더욱 확대된다.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코스피의 지난해 고점 대비 하락률은 71.2%로 중국(-66.8%)보다 높다.

일본은 엔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달러 환산 하락률(-43.7%)이 자국 통화로 계산한 하락률(-58.1%)보다 양호하다.

연초 이후로 범위를 좁혀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자국 통화 기준 하락폭은 중국 홍콩 대만 등에 비해 낮지만 달러화로 환산한 지수는 이들 국가보다 높아진다.

특히 지난 주 들어서만 20.5% 하

락하는 등 코스피 하락 속도는 다른 국가와 달리 점차 빨라지고 있다.

코스피가 다른 국가 증시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꼽는다.

먼저 국내 금융권의 건전성이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은행들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140%를 넘는 수준이다.

예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대출자금은 은행채를 발행해 조달했는데 최근 은행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확대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도 문제다. 4분기 경상수지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 속도를 감안할 때 경상수지 개선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9%로 애초 한국은행

이 전망한 4%대 초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실물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중국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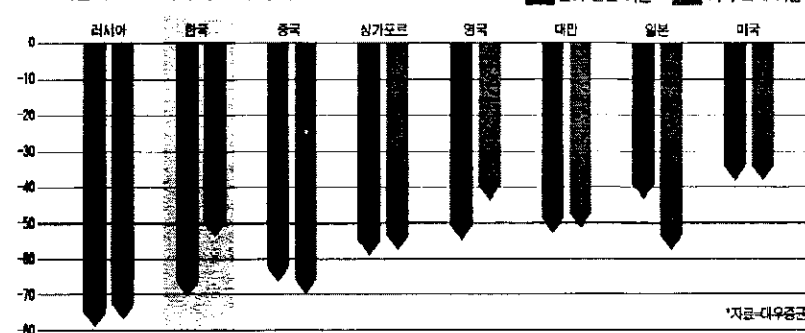
미국과 영국 증시의 지난 2주간 하락폭이 10% 내외에 그치는 등 외국인들이 선진국 증시를 금융위기의 '도피처'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자금을 서둘러 빼야 할 '위험 국가'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원화값이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환율 급변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한 외국인들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 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를 모두 인정

지난해 고점 대비 주요국 증시 하락률 (단위:%)



## 달러화 환산 코스피 어떻게 계산했나

- 코스피 전고점 2064.85(2007년 10월 31일)  
당시 원·달러 환율 900.7원  
달러 기준 지수 = 2.29(2064.85/900.7)
- 2008년 10월 24일 코스피 938.75,  
원·달러 환율 1424.0원  
달러 기준 지수 = 0.66
- 달러화로 환산한 작년 고점 대비  
이달 24일 코스피 하락률  
(2.29-0.66) × 100/2.29 = 71.2%

한다 하더라도 최근 주가 낙폭과 하락 속도는 과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승현 중앙총합금융증권 연구원은 "여건이 점차 나빠지고 있는 것 사실"이라면서 "금융위기 중

심에 있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원자재 가격 폭락에 노출된 러시아와 남미지역에 비해 국내 증시의 주가 낙폭이 더 심각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주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인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국내 증시는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다.

국내 기업들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0배 미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배 미만으로 하락하며 외환위기 당시 수준까지 되돌아간 상황이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 팀장은 "당시 한국은 상위 30대 그

룹 중 17개 그룹이 부도나고, 26개 일반 은행 중 10개만 생존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 급락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예상보다 양호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 이익 추정치나 자산 가치가 급감할 가능성이 여러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나라 삼성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이탈이 국내 투자자에게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공포감을 느끼게 해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다시 외국인도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심리가 안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금융위 “펀드 수수료 조기인하”

금융위원회가 펀드 수수료 조기 인하를 추진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은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펀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펀드 수수료 조기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11월 중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펀드 수수료 인하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가 폭락이 계속되자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권 위원은 “최근 펀드시장이 불안한 점을 감안해 조기에 펀드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판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적 보고 등 부가서비스마다 가격을 매겨 서비스를 적게 받길 원하는 투자자는 낮은 수수료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 위원은 “방안이 거의 다 마련됐다”며 “시장 회복을 위해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증시 불공정 거래와 악성 루머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원, 상장사협의회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악성 루머를 점검하는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다음주쯤 악성 루머에 대한 조희공시, 애널리스트 윤리강령 강화 등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개 주요 시중은행들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펀드 판매로만 3조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부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1조1088억원으로 이 기간에 가장 많은 펀드 판매 수입을 거뒀다. 신한은행(7621억원) 씨티은행(4584억원) 외환은행(3327억원) 우리은행(3229억원) 동도 펀드 판매 수입이 많았다.

박유연·박준형 기자

## 서울경제

10월 25일 a02면

## “증시 안정위해 매도 자제”

증권업계 자산운용담당 임원 14명 결의

“증시 저평가 고려 펀드 장기투자 바람직”

증권업계 자산운용 담당 임원들이 비이성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매도를 자제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 14명은 3년5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 1,000선이 붕괴된 24일 서울 여의도 자산운용협회에서 간담 간담회를 열고 “국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의 공포 때문에 대외적 악재가 지나치게 주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식운용본부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주가이익비율(PER)이 지난 2005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주가는 저평가됐다”며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정을 위해 자본시장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본부장들은 또 펀드투자자들에 대해 “현 증시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펀드를 환매하기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장기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투신권은 지수 폭락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비차익거래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펼치며 460억원 규모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나흘 만에 ‘사자’를 연출했다. 회의에는 미래에셋·삼성투신·한국투신·KTB자산운용 등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의 대표 펀드매니저들이 참석했다.

이성훈기자 [ist@sed.co.kr](mailto:ist@sed.co.kr)

“애들 세뱃돈까지 펀드에 몰아넣었는데…”

# 엄마들의 눈물

## 주부 3인의 '추운 안방 경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1000 원으로 꼭 끼여가는 주가와 치솟는 환율에 기업·자영업자는 물론 가계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공포와 좌절의 분위기는 10년 전 IMF환란 때를 방불케 한다. 당장 주식을 팔고 펀드를 깨야 하는 것인지, 이대로 앉아있으면 인젠가 희망의 빛줄기가 나타날지 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서울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 지연수(40)·안혜용(38)·장선애(34)씨가 26일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걱정과 고민, 그리고 각오를 주고받았다.

지연수·장선애씨는 남편이 회사 원이고, 안혜용씨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의 방담(放談) 내용을 소개한다.

### ◆엄마들의 한숨 소리

—작년만 해도 펀드 투자를 안 하면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라고 모는 분위기였다. 아이들 세뱃돈과 용돈 받은 것까지 박박 모아 펀드에 넣었다. 지금 수익률이 반 토막 났다. 고율리계 돈을 내가 이렇게 남리는구나. 빚잡이 안 온다.

—작년 말에 은행 갔더니 현금펀드로 'OO펀드, 수익률 40%' 부분을 뺐잖아. 그아주면서 권하더라. '아이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배짱도 없다'

는 펀드까지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입한 펀드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60%다.

—펀드런(fundrun·펀드판매사태)이 터져서 다들 돈 빼가고 나만 혼자 달랑 남는 악몽까지 꾸다. 애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며 남편과

속절없이 반 토막 나니까 더 속이 탄다. 펀드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다. 너무 겁 없이 투자했고, 호된 공부했다.

—투자는 망했는데 물가는 오르지 채소 하나, 과일 하나도 맘대로 못 사겠다. 계산대에 찍히는 숫자를 볼

## ● 남편이 밍다, 아니 고맙다

재테크 부추기던 남편, 왜 이렇게 미운지 이젠 믿을 건 남편 월급뿐... 바가지도 못굽어

## ● 배웠다, 하지만 아프다

빚으로 돈 벌어야 하는데, 돈으로 돈 벌려고 했으니... 펀드가 이렇게 무서운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서로 위로한다.

—작심하 적금만 붓던 나에게, 다른 주부들처럼 돈 좀 크게 돌려보라며 펀드 사라고 부추긴 남편이 지금은 너무 밍게만 느껴진다.

—위험 관리하려면 분산 투자하라는 말에 중국·한국·브릭스에 돈을 쪼개 넣었다. 그런데 세계적인 위기가 닥치니 분산투자가 뭐고 아무 의미가 없다. 배신감까지 느껴진다.

### ◆“과일 하나 맘대로 못 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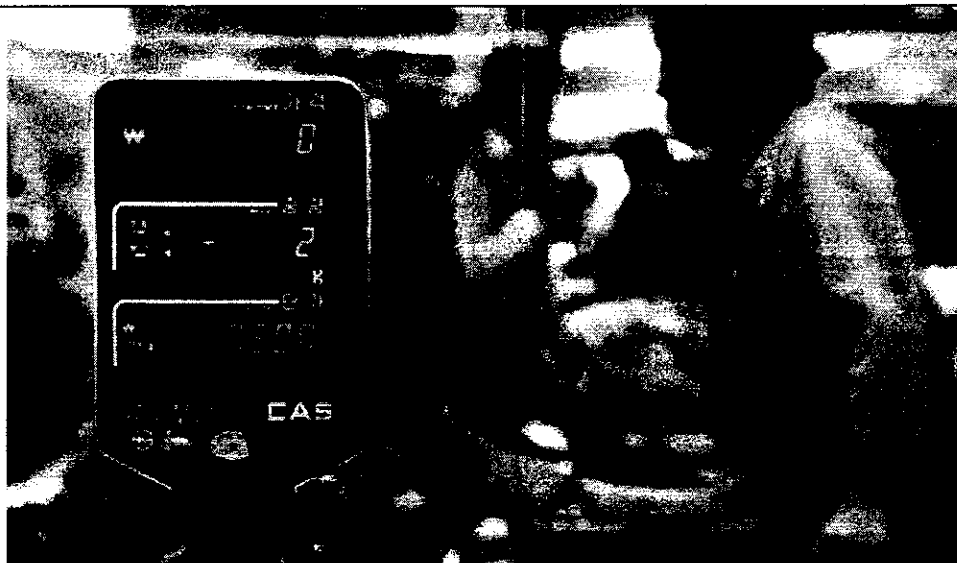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이렇게

때마다 가슴이 찢어 내려앉는다.

—먹고사는 데 써야 하는 노후 자금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다. 친구 시아버지는 아내 몰래 숨겨둔 비자금 1억원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흘러당 끼먹고 빚까지 져서 이혼하네 마네 난리가 났다.

—은행 예적금에 대한 불안감은 그리 크지 않다. (은행들은) IMF 위기에서 살아남은 곳들이네. 이런 곳들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지는 거란 생각 때문이다.

▶B2면에 계속 이경은 기자



채소 하나 살 때도 가슴 찢어 추락하는 펀드 수익률과 반대로 장바구니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겁 없이 뛰어 주부들 가슴을 찢어 내려앉게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란대.



주부 장선애(왼쪽), 지연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안혜용씨(오른쪽)가 금융 위기로 인해 반 토막 난 펀드와 생활고·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의 재테크 고민을 상담해주기 위해 이재경 삼성증권 포트폴리오장(왼쪽에서 두 번째)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재경 기자 younghen@chosun.com

##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 적립식 펀드는 계속 납입”

### ● 전문가 조언

반 토막 난 펀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부들의 방담에 함께 참석한 이재경 삼성증권 펀드리서치파트장은 “손실폭을 완화할 만한 대안이 마땅히 없다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단기간 중요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면

서 기다리는 것이 차라리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입한 중국 펀드에 대해선 “최근 중국 정부가 내놓는 각종 증시 부양책은 주로 본토 증시(A주)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많이 투자한 홍콩 증시(H주)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기로 접

어들 때까지 홍콩 증시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최근 적립식 펀드 투자자들마저 납입을 중단하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가가 쌀 때 사들이 대입 단가를 낮추는 것이 적립식 펀드의 장점인데 요즘 같은 하락기에 중단한다면 적립식 펀드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규 투자자라면 최근 정부가 내놓은 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꼭 챙기라고 귀띔했다. 이경은 기자



|            | 투자매력도 | 내용                         |
|------------|-------|----------------------------|
| 증권         | ☆☆☆   | 증시바닥을 일 수 없음<br>저점은 내년 1분기 |
| 주식형<br>펀드  | ☆☆☆   | 아직 저점매수 시기 아님              |
| 확정금리<br>상품 | ★★★★  | MMF CMA 우량회사채<br>등 안정적     |
| 부동산        | ☆☆☆   | 추가하락 가능성 높아<br>해외투자도 피해야   |

\*투자매력도는 같은 석달일수록 높다

## PB들이 전하는 '큰 손'들의 금융위기 대처법

# “내년 실물경제 가능하며 투자 밑그림 구상”

“과거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시절에도 투매에 동참해 증시를 빠져나가서 성공한 투자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련을 헤쳐나가야만 장기투자를 통한 초과수익이란 과실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금융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져들면서 은행과 증권사의 PB(프라이빗 뱅커)들의 어깨도 함께 처지고 있다. 그렇지만 주가폭락과 환율폭등으로 시장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대공황 때 그랬고, 10년 전 경험했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시차를 두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수도권 부자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라는 지방 ‘큰 손’ 고객을 상대하는 장동기 신한PB 부산센터장은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PB 중 한 명이다. 장 센터장은 “8월 이전에 이런 위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전문가들이 이제 와서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라며 “국내 인구의 평균 연령을 감안할 때 향후 예금과 같은 확정금리 상품으로 자산관리가 된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현주미 국토농신한증권 명품PB센터장은 “한국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까지

MMF 등 단기로 돈 보유하다  
채권상품 갈아타기 늘어

지나친 비관은 금물  
지금은 멀리보는 지혜 필요한 때

내려가 세계 최저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환경준 한국투자증권 PB는 “큰 손 고객들은 일반 리테일(소매영업) 점포 고객들과는 달리 당장 돈을 빼달라거나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별로 없다”며 “오히려 당장은 안전자산으로 옮겨 위험기간을 통과한 뒤 내년 이후를 모색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봉수 하나은행 PB도 “큰 손 고객들은 금융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증시의 바닥이 어디쯤 인지를 자주 묻는다”며 “내년 실물경기 예측까지 포함해 투자 밑그림(계획)을 그리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물론 ‘큰 손’들의 투자자금에 벌써부터 미래의 장기수익을 위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상당수 PB들의 얘기다. 금

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한 단기 전망도 일단은 비관적인 편이다. 그렇다보니 안전자산인 정기에금이나 MMF 및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단기로 돈을 옮겨놨다가 비과세 국민주채권, 정부채, 특수채, 채권형펀드 등 채권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증시에서 은행으로 빠져나가는 돈도 확정금리 상품이 인기다. 일부 분리과세 카드채도 인기다. 일부는 아예 고금리 상호저축은행으로 옮기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한다.

자금은 3개월~1년 이내로 짧게 굴리고 있다. 야구경기로 치면 배트를 짧게 내려잡고 ‘저스트 미트’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코스피지수가 15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미 현금비중을 30~40%까지 늘린 부자들조차 지 않다는 게 일선 PB들의 전언이다. 삼성증권 f나어스삼성타운의 한덕수 차장은 “두 달 전 한 고객이 20억원 정도를 현금화했는데 MMF(머니마켓펀드)에 넣어 놓고 금융위기가 사그라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조정폭이 큰 국내 주식형 펀드를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추가 하락에 베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김인용 우리은행 투채어스

강남센터 PB팀장은 “국내외 할 것 없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식었다고 보는 게 맞다”며 “국내 부동산 경기는 내년 상반기는 지나봐야 알 것 같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동기 신한PB 부산센터장은 “지방 아파트 미분양을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고객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미있는 건 해외의 금융자산을 국내로 송금해 원화로 바꾸는 사례는 꽤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면에서도 한국이 유리하고 환율도 많이 올라있어 ‘1석2조’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PB들은 이구동성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달러를 100만~200만달러씩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은 환율이 1350~1400원대에 달하면서 원화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증권업계의 대표적인 비관주의자로 꼽히던 김학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지나친 비관주의를 경계했다. 김 센터장은 “투자자들이 너무 극도의 공포감에 빠져 IMF 시절과 비교하는데 우리기업의 실력이 달라져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낮게 잡아도 13.3%에 달한다”고 말했다.

# 한국 슈퍼리치 ‘버핏 따라잡기’

“다른 투자자들이 탐욕을 부릴 때는 두려워하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는 탐욕을 부려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개미’들에게 보내는 ‘오마하의 현인(賢人)’의 조언이다. 실제 워런 버핏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이 같은 자신의 투자철학을 실천하느라 요즘 여념이 없다. 최근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일렉트릭(GE)에 투자했고, 미국 국채에 몰아두었던 개인재산을 동원해 미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큰손’ 투자자들 가운데 미국 금융주 등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우량 물건들이 싼 값에 쏟아지고 있는 경매시장을 기웃거리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들은 “건진한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지만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시장 지배력이 커져 투자자들에게 보상할 것”이라는 버핏의 추종자들이다.

## ◆미국 금융주 직접투자 늘어

굿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회사의 전체 미국 주식 매수주문에서 금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는 98%, 이달에는 99%로 늘어났다. 개인들은 특히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가까스로 구제된 AIG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종전까지는 비자와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등의 매수 주문이 많았지만 9월 이후에는 90% 이상

## 美 금융주에 멀리 보고 장기투자

## 알짜매물 많은 부동산 경매 기웃

## 최소3년~넉넉잡아 5년 물어두기

이 AIG에 몰렸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크(PB) 센터 관계자는 “미국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관리에 실패하면서 위기에 빠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있다”며 “미국 금융주 투자에 나서는 고객들은 대부분 앞으로 5년 정도 후를 내다보고 장기투자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 ◆부동산 경매 입찰하는 투자자들

부동산 시장에선 경매시장에서 ‘알짜’ 매물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2~3회 유찰돼 감정가보다 값이 떨어진 물건이 이들의 집중 타깃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가 감정가 6억원의 93%인 5억5700만여 원에 낙찰됐다. 2회 떨어져 감정가 64%인 3억8400만원에

매각을 시작한 물건이었는데, 응찰자가 45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낙찰가가 매각 시작금액보다 1억7300만여원 비싸졌다. 경매에 드는 제반비용을 포함하면 시세와 거의 비슷하게 낙찰받은 셈이다.

지난달 25일에는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가 2회 유찰된 후 최초 감정가(20억원)의 82%인 16억4400만 원에 주인을 찾아가기도 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은 “권리관계 등에 별로 문제가 없는 ‘깨끗한’ 물건의 경우 몇 차례 유찰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집주인을 찾아가게 마련”이라며 “경매로 내집마련을 해 5~10년 정도 실거주할 목적이라면 지금 경매시장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 ◆단기 고수익 욕심은 버려라

재테크 전문가들은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요즘 투자에 나서려는 워런 버핏형 투자자들에게 “투자기간을 5년 정도로 길게 잡는 게 필수”라고 조언한다.

최철민 미래에셋증권 서초로지점장은 “최근의 금융위기는 사상 유례가 없는 전 세계적 동반 위기이기 때문에 회복기간을 1~2년으로 잡는 것도 짧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소 3년, 넉넉잡아 5년 정도는 물어둘 생각을 하고 자기 자본으로 투자에 나서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송중현 기자 scream@hankyung.com

# “지금은 시장 떠나는 리스크가 더 크다”

##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아무리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도 현 주가는 분명 과매도 국면이다.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 갖게 될 리스크가 (남아 있을 때 리스크보다) 더 크다. 한국은 매우 강력한 제조업에 기반한 국가인 만큼 원화 약세가 결국 수출 증대로 이어지며 기업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다. 세계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 원화는 오히려 강세로 전환될 수 있다.”

추락하는 한국 증시를 지켜 본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입을 열었다. 박 회장은 2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서 열린 미래에셋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증시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지난 9월 4일 미래에셋 계열사 CEO들이 참석한 그룹대표단 회의에서 “지금이 적극적으로 펀드에 가입할 시기”라고 주장한 이후 한 달 20여 일 만이다.

박 회장은 또 이날 현 위기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좋은 기회일 수 있다”며 장기투자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한국 증시 상황을 한마디로 ‘저평가 과매도’ 국면이라고 단정했다.

코스피가 기업 청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7배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기업 가치가 아니라 유동성에 휘둘리는 시장이라는 얘기도. 실제 달러로 환산한 주가는 작년 고점 대비 무려 71%나 하락했다.

반면 기업 부채비율은 100% 이하로 양호한 수준이다. 조만간 “전회위복 기회가 온다”며 한국 경제와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하는 이유다.

그룹 차원에서든 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중국은 여전히 9%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정부도 내수 진작에 적극적이어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계열사를 통해 국내 투자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펀드연풍을 일으킨 ‘인사이트펀드’가 50% 손실을 기록 중인 현시점에서 투자자들을 향한 박 회장의 ‘변’은 무엇일까.

그는 “자식에게 대를 물려주는 투자를 하겠다던 초



## 현재 위기는 100년만의 기회

## 좋은 기업 골라 장기투자해야

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누가 얼마나 바보스러울 만큼 일관성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국에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량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최선으로 꼽으며 이를 과거 서울 강남 부동산 신화에 빗댔다.

박 회장은 “강남 부동산 성공을 되새겨볼 때 폭락을 견뎌가며 꾸준히 유지했던 사람들이 결국 큰 성공을 향유했듯이 길게 보면 우량 기업에 대한 투자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시발점이 된 선진국들이 뒤늦게나마 위기를 인식한 것은 해결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각국 정부가 유동성을 풀어 향후 저금리 체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는 금융이 발전했던 나라들이 고생하는 국면인데 한국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로 곧 기회가 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박 회장은 직원들을 향해 “주가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며 고객들과 더욱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지금은 고평가 국면이 아니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소아 기자

# 朝鮮日報

10월 27일 b02면

‘엄마들의 눈물’ ▶B1면에서 계속

##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요즘 주택 투매 없는 이유가 바로 IMF 학습 효과 때문이다. 집은 무조건 그냥 잡고만 있으면 다시 오른다는 기억 때문에 내던지지 않는다.

—IMF위기 때 집값, 주가 다 폭락했는데 2~3년 뒤에 몇 배로 튀겨지는 걸 보면서 ‘IMF야! 한번만 더 와라, 내가 몽땅 사주마’ 했었다. 지금 막상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돈이 없다.

—IMF위기 때도 큰 회사가 여러 곳 무너졌는데 또 그러지 말란 법 있나? 나라 상황을 못 믿게 되니 추운 겨울에 대비해 자주 비축하게 된다. 의류비·의식비 같은 안 써도 되는 소비부터 줄이고 있다.

—집값은 떨어지지, 주식은 폭락하지, 앞으로 돈 벌 구멍은 월급밖에 없는 것 같다. 남편이 늦게 퇴근해도 바가지도 못 긁겠다. 회사에 착실히 다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은행에서 1억원 빚내 여의도에서 전셋집 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대출 받아 갚아 나가는 게 걱정되어 대출을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 가기로 했다.



한재규의

ETF쉽게 투자하기

●상장지수펀드 투자 첫걸음

## 개별주식 처럼 1주 단위 매매 가능

연동되는 지수에 일정 승수 곱해 가격 결정... 거래세도 없어

요즘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는 자연스레 인덱스 펀드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ETF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쉽게 접근하여 신속한 매매를 통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선불·음선 동시반기일이었던 9월11일에는 ETF 하루 거래량이 6.829만주였으며 거래대금으로는 1조2,61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10월 들어서는 3주 동안 총 ETF 거래량이 1억5,500만주를 넘어섰다. 이러한 ETF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ETF의 ETF매매 방법과 더불어 가격 결정과 유동성 등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지난 화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ETF는 개별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매되며 따라서 모든 증권사의 지점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서 원하는 이목을 조회하면 종목 코드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일부 대형 증권사들 중에는 ETF를 위한 전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거래방식은 개별종목 주식과 동일하게 1주단위로 매매가 가능하다.

ETF는 펀드인데 어떻게 주단위로 거래가 되며 또한 매매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 ETF의 1주당 가격은 연동되는 지수의 10분의 1배, 1배, 10배, 즉 지수 수준에 일정 승수를 곱한 숫자가 ETF의 가격수준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KODEX200 ETF의 경우를 보면 승수가 100이므로 추척하는 지수인 코스피 200 지수가 현재 170.50이라면 여기에 100을 곱한 17,050원 부근에서 가격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이

것은 ETF의 이론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NAV)에 수렴하는 가격이기도 하다.

물론 ETF의 가격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므로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ETF와 관련해서 규정상 유동성공급자(LP)제도가 운용되고 있어서 이론가격에서 근접하게 가격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다. 주당 NAV는 거래소나 증권사에 따라 HTS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참고로 해외 ETF의 경우에는 승수 이외에도 실시간 환율을 곱해줘야 가격 산정이 가능하다.

언뜻 보기에 뭐가 이리 복잡한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만들어질 때부터 ETF는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 근접한 수준의 가격에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도록 설계가 된 혁신적인 상품이다. 매매 시장에서 NAV를 참고하여 투자를 결정한다면 공정한 가격에 때로는 NAV보다 저렴하게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점은 ETF는 펀드이므로 개별종목 주식과 달리 매도할 때 0.3%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혹 거래량이 적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LP가 ETF 시장 조성이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증권선불거래소(KRX)는 ETF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LP는 장중시간 동안 매수·매도 호기간 스프레드가 50원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유동성 공급호가를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있으므로 인해 거래량이 많지 않은 ETF종목이라 할지라도 투자자들은 ETF를 쉽게 매매할 수 있다. /삼성투신운용 인덱스운용2본부장(상무)

## 머니투데이

2008년 10월 27일 030면

### 주식형펀드 올 67조 증발

급격한 증시폭락으로 올들어 국내 외 주식형펀드가 입은 평가손실이 67조원으로 늘어났다. 10월에만 26조 5000억원이 증발했다.

26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총액은 23일 기준 8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말 135조

6000억원에서 55조3000억원 줄었다. 국내주식형펀드는 23조7000억원, 해외주식형펀드는 31조6000억원 감소했다. 올들어 환대액을 제외하고도 국내주식형 10조원, 해외주식형 1조 3000억원 등 총 11조3000억원이 주식형펀드로 순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주

식형펀드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은 국내주식형 33조7000억원, 해외주식형 32조9000억원 등 총 6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시 낙폭이 급격히 확대된 10월에만 국내주식형 16조3000억원, 해외주식형은 10조 2000억원 등 26조500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펀드평가사 모닝스타코리아에 따르면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펀드 손실률은 42.55%다.

장용조 기자 colorpen@

## 서울경제

2008년 10월 25일 a11면

### 시중자금 MMF로 '밀물'

#### 증시 폭락에 이달들어 수탁액 18兆 늘어

증시 폭락이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몰리고 있다.

24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MMF 수탁액(실정액 기준)은 지난 22일 현재 81조1,426억원으로 이달 들어 18조8,120억원이 늘어났다. 20여일 만에 19조원 가까운 시중자금이 MMF로 이동한 셈이다. 지난달

에는 13조원이 빠져나가면서 수탁액이 62조원대까지 줄었으나 이후 급증세로 돌아서 지난 7월23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84조4,712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 증시가 폭락하자 위험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자금이 단기부동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유병은기자

rocinante@sed.co.kr

# ELW·ELS 마저...

ELS 70%이상 원금손실 구간

증시가 연일 큰 폭으로 주저앉자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 손실 우려가 커졌다. ELS에 투자하는 펀드인 주가연계펀드(ELF)도 대거 손실을 내고 있으며 원금을 전액 날린 주식워런트증권(ELW)도 속출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26일 오후 들어 지난 10일까지 판매된 공모형과 사모형 ELS의 발행 규모를 18조9423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70% 이상이 '녹인(knock-in) 배리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ELS는 대개 기초자산의 가격이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70% 수준으로 떨어지면 만기 때 원금의 일부를 떼일 수 있다. 최근 증시 폭락으로 ELS 10개 중 7개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발행된 ELS 가운데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S가 절반 이상인 9조94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차 등 개별 종목이 기초자산인 ELS는 7조5761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종목형 ELS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지난 24일 40만7500원까지 밀리면서 '녹인 배리어' 진입이 본격화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재 대신증권 연구원도 "지금까지는 지수형 ELS가 대거 '녹인 배리어'에 들어가면서 이로 인한 '선물 헤지' 청산 물량이 나와 증시를 압박했는데 앞으로는 지수형보다는 삼성전자 LG전자 신한지주 현대차 등 개별 종목형 ELS가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 ELS 발행 현황 (단위: 억원)  |             |
|---------------------|-------------|
| 올해 전체 ELS 발행액       | 189,423     |
| 지수형 ELS             | 99,465      |
| 종목형 ELS             | 75,761      |
| 해외지수형 ELS           | 9462        |
| 혼합형 ELS             | 4735        |
| 원금손실 구간에 들어선 ELS 비중 | 70% 이상으로 추정 |

\*공모형과 사모형 포함 10월10일 기준 추정치  
자료: 우리투자증권

주가 오를땐 조용-떨어지자 '감나라 배나라'

## 사모펀드 간섭에 운용사 골머리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이 돈을 맡긴 기관들의 지나친 간섭과 혼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 농협 수협 금고 등 금융회사와 일반기업들이 자산운용사에 자사 돈을 사모펀드로 굴러달라고 한 뒤 증시 급락으로 손실이 나자 펀드매니저에게 '감나라 배나라' 식의 지시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주가가 올라 주식투자도 재미를 본 기관들이 사모펀드 투자를 크게 늘렸지만 증시 폭락으로 손실폭이 커지자 전전긍긍하며 펀드매니저에 대한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 금융회사 자금으로 만든 300억 원짜리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 A씨는 "지난 20일 미국 증시가 반등하자 사모펀드 담당자가 즉시

전화를 걸어와 주식 10억원어치를 더 사라고 지시하면서 주식편입비율을 낮게 유지하면 장이 오를 때 어떻게 손실을 만회하려 하느냐고 혼수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 음날부터 주가가 빠지자 다시 전화해 '사란다고 왜 그렇게 빨리 샀냐'며 짜증을 내면서 펀드운용은 천천히 여유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더라"고 하소연했다.

사모펀드 6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 B씨는 "지난해 주식이 된 다 싶으니까 원칙 없이 자산의 많은 비중을 사모펀드로 맡겨 놓고선 주가급락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연말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금을 회복하라'고 요구하는 기관도 있다"고 토로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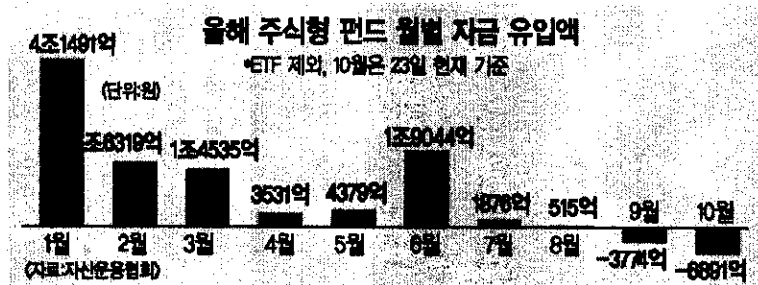
# 본격 펀드런 시작되나... 위기 고조

〈대량 환매사태〉

펀드 자금 이탈이 심상치 않다. 사상 처음 두 달 연속 자금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증시에 희망을 버린 펀드 투자자들이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 폭락 장세가 잠잠해지고 단기적으로 지수가 반등할 때가 본격적인 '펀드런(대량 환매 사태)'이 시작될 수 있어 펀드 시장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가속도 붙은 펀드 자금 유출= 자산운용협회는 24일 주식형 펀드가 두 달 연속 투자액보다 환매액이 많은 자금 순유출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주식형 펀드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실제 유출액은 3774억원이었다. 이달 들어서도 6891억원(23일 기준)이 빠져나간 상태여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순유출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형 펀드에서 두 달 연속 순유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자산운용협회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또 매월 적립식 펀드로 들어오는 자금이 3000억~4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환매 강도는 나타나는 '숫자'보다 더 세다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

펀드시장에 증시 패닉 현상이 전연되고 있는 것은 코스피지수가 5% 이상 연속 폭락한 21~23일만 봐도 알 수 있다. 9월 이전만 해도 지수가 폭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투자자들 시장 이탈 가속

9월 3774억·10월 6891억... 두 달 연속 자금 순유출

락한 날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로 저가 매수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지만 이번에는 3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며 펀드런 우려가 잠재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다. 발표 이후 20~23일 4일간 주식형 펀드 수탁고는 1019억원 감소했다.

◆지수 반등이 고비될 듯=펀드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이다. 현재 주식형 펀드 수탁고는 140조7649억원이지만 수탁고에 수익률을 정산한 순자산총액은 80조

2547억원으로 60조5102억원이 날아가 버린 상태다.

‘올머 겨자 먹기’ 식으로 펀드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도 환매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통 30~40% 손실을 입을 때 손절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이달 들어 증시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환매 시기를 놓친 투자자들이 향후 있을 단기 반등시 줄환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대투증권 서동필 연구원은 “코스피지수가 1700~1800선에서 펀드에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됐다”며 “이 자금들이 40% 수준에서 손실을 확정하고 환매에 나설 ‘경우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맞춤 재테크 | 세제 혜택 있는 안정적 펀드 뭐가 있을까

## 하락장서 '선방'하는 배당주펀드, 소득공제 혜택 '짹짹'

**Q** 앞으로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한다.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내려면 어떤 펀드가 좋을까?

### 주요 배당주펀드 수익률

| 펀드                | 수익률    |           |
|-------------------|--------|-----------|
|                   | 1년 (%) | 초과 (%포인트) |
| 프론티어 장기배당주식1      | -26.4  | 26.1      |
| 프론티어배당하아음주식C1     | -31.0  | 21.5      |
| 미래에셋LC3040연금혼합형자1 | -31.5  | 21.0      |
| 투자아배당인덱스주식M-1     | -32.4  | 20.1      |
| 세이코배당밸런스드80A      | -34.1  | 18.4      |
| 신영밸류고배당주식1 C4     | -37.4  | 15.1      |

자료: 펀드몬

지난해 말 뒤늦게 펀드에 가입해 원금이 반 토막 난 직장인 김모(32) 씨가 적립식 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기사를 보고 상담을 요청해 왔다. 5년 후 주식을 마련할 목적으로 소득공제도 받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펀드를 찾는 김 씨에게 쎈지는 '배당주펀드'를 추천했다.

직장인이 소액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려면 매 달 자동 납입하는 적립식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매마침 정부는 최근 3년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적립식)와 회사채형 펀드(거치식)에 투자하는 이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발표했다. 소득공제 혜택 등 제도 변화가 생긴 지금 같은 때 기존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좋은 시도라 할 수 있다.

주식형 펀드는 연간 최고 1200만 원까지 납입하면 그 일정 부분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다. 연봉 4000만 원인 김 씨가 매월 50만 원을 주식형펀드에 적립한다고 했

을 때 펀드에서 수익 이외에 3년간 36만 원의 '무위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또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신문에서 '배당투자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대부분 기업의 결산이 12월이어서 연내에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률이 시중금리 수준 또는 그 이상인 주식을 고(高)배당주라 한다. 대표적 고배당주인 KT는 현재 주가가 3만2000원 수준인데 주당 2000~3000원의 안정적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면 일석이조의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배당 수익률은 주가 하락기에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최근 1년여 동안 종합주가지수는 53% 하락한 반면, 배당률이 높은 종목으로 이뤄진 배당지수는 39% 하락해 하락폭이 14%포인트 정도 작았다.

직접 주식을 선정하고 매매하는 직접투자는 소

액의 개인투자자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투자자로 인한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배당주펀드를 권할 만하다.

최근 1년간 한국 주식형펀드의 투자수익률은 -52.5%였다. 그러나 배당주펀드는 1년 수익률 상위 펀드에 상당수 오름 정도로 평균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내고 있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고려할 만한 투자처라는 걸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배당만 많이 하고 투자를 줄이면 기업의 성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이 많다고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고배당주는 배당이 끝난 직후 배당 기대감의 소멸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지 배당주 또한 주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별기아빠의 펀드세터) 지자

정리=이진원 기자 chanos@donga.com



## 장석훈의 펀드클리닉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기로 원·달러 환율은 일종에도 100원을 오르내리고 코스피지수의 지지선이 수차례 하향됨에 따라 펀드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9일 정부의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 주식펀드에 적립식으로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납입 금액의 일정 비율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하였으나 그 효과의 크기를 떠나 조금이나마 투자자의 염어불은 심리를 녹여 주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식형펀드 지원 방안의 적용 대상을 '적립식' 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다시금 적립식펀드가 국내 간접투자 시장 및 개인 자산 관리의 위기 탈출을 위한 구원 투수로 등장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적립식 판매현황 자료나 고객 상담 현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지난 8월엔 주식형펀드 적립식 계좌 수가 전월 대비 감소했고 판매잔액 증가율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적립식 자동이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계좌 수만 해도 1400만개에 육박하나 이제 투자자에게 적립식이 라고 하면 식상하게 들릴 법도 하다. 게다가

지난 1년간 주식시장 하락 국면에서 30% 가까이 하락한 거치식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폭이 작다 하더라도 적립식 투자라고 해서 손실을 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망감이 들 수 있다.

### 적립식 투자 접어선 안되는 이유 신규 혹은 3년 이내 투자자들은 고수익 가능성에 세금혜택도

하지만 아직은 실망감으로 적립식 투자를 접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다. 적립식 투자의 역사가 3~4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적립식 투자의 진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적립식 투자의 원리는 장기적인 분할 매수를 통해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투자 시점을 분산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적립식 투자 효과가 배가되는 것은 주식시장이 하락한 후 상승하는 국면

에서이다.

적립식 펀드의 경우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선 거치식 투자 성과의 50~60%에 불과하며 지난 2년간의 시장 국면에서와 같이 상승 후 하락 국면에서는 평균 매입단가만 높아져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 3년 이내에 적립식 투자를 시작한 경우라면 현 시점에서 적립식 자동이체를 중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의사 결정이며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현 시점이 투자 수익을 최대화하고 세금 혜택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금융시장이 요동 치는 현 상황에서 위험 관리의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적립식 자체가 위험 관리의 한 방법인데 이러한 위험관리 방법을 해제시켜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때마침 발표된 기존 투자자를 포함한 장기 적립식투자 세제지원 방안을 단순히 미봉책이나 사탕발림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이유다. 시장의 격랑으로 지친 마음을 추스르고 초심으로 돌아가 투자 원칙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 어사  
gordon.chang@samsung.com



# 금융기관 판매 채권상품에 관심을

## 일반인·초보자 투자 요령

채권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을 갚기로 하고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 증서를 말한다. 지금까지 시중 금리가 고점 근처에 있다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은 채권 투자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채권 금리 자체가 예금 금리보다 최소 0.2~0.5% 이상 높아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의 매력이 있지만 채권 매매로 인한 이익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즉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고 금리가 고점 근처인 현 상황의 채권 가격이 저렴한 상태라는 것이다.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채권투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과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를 통해 직접 채권 투자를 하거나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다. 기관이나 거액 자산가들의 전용물처럼 여겨졌던 채권 투자가 보편화되고 대중화 되어 가고 있다.

먼저 은행 창구를 통해서 은행채, 후순위채, RP(환매조건부채권) 등과 신용등급 AA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는 CP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채권의 매매 차익은 추구하지 않고 정기 예금보다 0.2~0.5% 정도 높은 금리를 목적으로 초보자들이 손쉽게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최근 수익률이 많이 하락한 채권형 펀드에 가입해서 금리가 안정화 될 경우 펀드 매매 차익을 간접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다. 반대로 금리가 예상과 달리 상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매매차손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펀드 만기와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킨 만기 매칭형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여 채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매매에 따른 손실 없이 고금리의 이자수익을 누릴 수 있다.

채권 투자에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인 투자자라면 대형 증권사들을 통해 국



채권은 은행을 통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거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서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신한은행 제공]

공채나 회사채에 직접 투자해 볼 수 있다. 증권사별로 취급하는 채권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채권을 취급하는지 미리 살펴 볼

금리가 예상과 달리 지금보다 상승할 경우에는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으면 매매 손실은 발생하지

라 단기와 장기 채권을 잘 조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절세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년 이상 만기 채권에 투자하여 분리 과세를 선택한다면 이자 지급방식을 복리채 또는 할인채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함으로써 이자의 수입 시기를 조절하여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따른 중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 안전 자산 분류되지만 원금 보장은 안돼 직접투자도 가능... 중과세도 피할 수 있어

필요가 있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채가 좋겠지만 주식과 마찬가지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채권일수록 위험도 크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채권 투자시 주의할 점**=첫째, 채권은 주식과 달리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엄연히 발행자의 부도 위험을 안고 있는 투자 자산이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기에금과 달리 채권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물론 발행자가 국가나 은행 또는 신용도가 매우 높은 대기업 등으로 부도 위험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채권투자 경험이 적은 초보자라면 공공채나 은행채부터 투자를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회사채는 신용등급이 아무리 높은 회사라 하더라도 최근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상의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투자해야 한다.

둘째, 채권을 직접 사고 파는 경우

않고 높은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어 관계없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인 채권형 펀드는 적극적으로 채권을 매매하거나, 선물 등 파생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의 채권 투자보다 수익이나 손실의 폭이 훨씬 크다. 따라서 채권형 펀드는 가급적 금리가 고점에 있을 때, 즉 채권 가격이 하락해 있을 때 투자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본인의 투자목적과 성향에 맞도록 투자 기간을 융통성 있게 정하고 적절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상황이 채권 투자의 적기라고는 하지만 워낙 급박한 금융환경으로 인해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내가 가진 자금의 50% 내외에서 투자하되 자금의 용도에 따

이관석  
신한은행 PB고객부  
채테크 팀장



## 펀드투자 소득공제 최고 156만원 절세

국내주식형 투자신탁(일반 펀드)에 투자한 김수익씨는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펀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손실을 보더라도 중도환매해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있던 중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기사를 접했다. 펀드를 계속 유지할 경우 펀드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으로 세금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궁금하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기 주식형펀드(적립식에만 적용,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해 12개월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선 불입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13개월차부터 24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선 불입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5개월차부터 36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선 불입액의 5%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3년간 배당소득(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비과세토록 돼 있다.

| 소득표 과세표준 구간         | 2008년 귀속 | 2009년 귀속 | 2010년 귀속 | 2011년 귀속 | 절세액(원)    |         |
|---------------------|----------|----------|----------|----------|-----------|---------|
|                     |          |          |          |          | 소득세       | 주민세     |
| 1200만원 이하           | 48,000   | 147,000  | 63,000   | 27,000   | 285,000   | 28,500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02,000  | 336,000  | 157,500  | 67,500   | 663,000   | 66,300  |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156,000  | 525,000  | 252,000  | 108,000  | 1,041,000 | 104,100 |
| 8800만원 초과           | 210,000  | 714,000  | 348,500  | 148,500  | 1,419,000 | 141,900 |

또 장기회사채형 펀드(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 및 CP에 투자하는 펀드, 국고채 및 금융채 등은 제외)로 가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 이내(연도별 한도가 아니라 2009년 12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총 한도)이며, 거치식으로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3년간 배당소득(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가입기간은 장기주식형 펀드 및 장기회사채형 펀드 모두 19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기존 가입자는 계약갱신과 더불어 갱신한 날로부터 3년간 불입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갱신일 이후 불입분과 소득발생분부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개인이다. 만일 3년 이내에 중도해지 시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배당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이 추징된다.

만일 김수익씨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하여 3년간 불입하는 경우 세금 절세액은 (표)와 같다. 따라서 향후 펀드가 투자한 주식 가격이 상승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등 절세 혜택까지 주어질 경우 펀드 가입에 따른 수익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희·계법연 이용연 서무시



## 선물환계약 역외펀드 가입자들

# 눈덩이 환차손에 추가담보 '날벼락'

전세계적 주가 급락에다 환율 급등 여파로 투자원금 손실은 물론 환차손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해외펀드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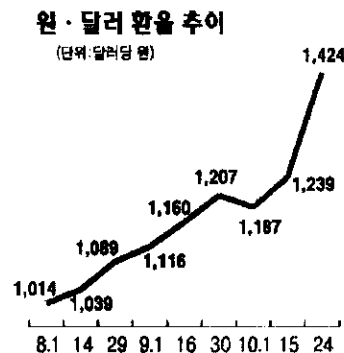
펀드에 가입하면서 환해지를 위해 은행과 선물환 계약을 체결했지만 환율 급등으로 엄청난 환차손까지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투자원금을 다 날리는 강봉계좌 수준을 넘어 고객들이 환차손 때문에 추가 담보(달러)를 제공해야 하는 사태가 확산되자 최근 해당 펀드 판매자료를 인수해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해외펀드를 판매하면서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을 방지할 수 있다"며 가입자에게 적극적으로 선물환 매도계약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고객에 추가담보 요구=국민·신한 등 시중은행들은 최근 원·달러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로 치솟으면서 자신들이 판매한 해외펀드에서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하자 고객들에게 해당 손실분만큼 추가로 달러를 부담하라고 통보하고 있다.

## 은행, 고객에 '환율상승 손실분' 부담요구 금융감독당국,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착수



일부 펀드 가입자는 원금 포기는 물론 추가 손실을 물고 펀드를 해지하고 있지만 상당수 가입자들은 "당초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은행권의 추가 지급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국 펀드 등 해외펀드 가격이 주가 급락으로 70% 인박으로 가치가 떨어진데

다 은행과 맺은 선물환 계약으로 추가로 30% 정도의 손실이 나면서 평균금액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역외펀드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피델리티 등 해외 업체들이 운용하는 이른바 역외펀드로 원화가 아닌 달러화로 설정돼 운용되는 펀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인 역내펀드는 원화로 설정되기 때문에 운용과정에서 펀드매니저들이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환해지 포지션을 가져가지만 역외펀드는 달러 베이스로 운용되기 때문에 판매사인 은행과 개인이 별도의 선물환 계약을 맺는다.

◇주가 폭락에다 환율 급등 겹쳐 이중고=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9월 말 현재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환해지를 추가한 역외펀드를 3,280억원, 1,790억원가량 보유하고 있

다.

예를 들어 고객이 지난해 10만달러를 중국펀드에 가입하면서 은행과 투자금액만큼 달러당 9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선물환계약을 맺었고 그 후 중국 주가가 80% 급락하는 동시에 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고객은 주가 급락으로 펀드 순자산 가격이 2만달러로 줄어든다.

당초 10만달러에 대해 환해지를 했는데 해지 대상 물량이 2만달러로 줄어들어 8만달러는 오비해지가 된다.

이때 8만달러에 환율 상승분 500원(1,400원-900원)을 곱한 금액인 4,000만원(2만8,571달러)의 외환평가손이 발생하는데 고객 잔고는 2만달러밖에 남지 않아 추가로 8,571달러를 집어넣어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 또 다른 문제는 은행과 맺은 선물환계약이 통상 3개월·6개월·1년 단위로 이뤄져 펀드 만기를 연장하려면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분을 지급해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정리간자 comeon@sed.co.kr

# ‘수익률 수천%’ 가면 쓴 ELW풋

## 체결가 오류로 상승률 착시효과… 투자 주의

이례적인 코스피지수 폭락 속에 수익률이 수천%까지 급등하는 황당한 ‘주식워런트증권(ELW) 풋’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체결가 오류에 따른 허수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높은 상승률만 보고 현혹돼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LG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우리8504ELW풋’은 지난 한주 동안 무려 1만600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일 10원에서 5일 만에 1610원으로 된 것.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22% 넘게 폭락한 점을 감안하면 상승을 초월하는 수익이다.

그러나 이는 비정상적인 체결가에 따른 ‘착시효과’로 나타났다. 발생사이자 유동성공급자(LP)인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ELW는 16일 장중 LP 호가 없이 일시적으로 10원에 10주가 거래되면서 당일 종가로 기록됐다.

이후 거래가 안됐다가 24일 1610원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률이 꺾음

뛰어버린 것이다.

우리투자증권 측은 “LP가 호가를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매가 체결됐다가 이후 거래가 없어서 수익률이 왜곡된 것”이라며 “이전까지 700~800원대에서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1610원으로 2배 정도 올랐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교보8121엘지디스풋’도 마찬가지다. LG디스플레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ELW는 지난 8일 100원에 10주가 된 이후 계속 매매가 없다가 24일 1655원에 30주가 거래되면서 한주간 수익률은 1555%를 기록했다.

심지어 기초자산이 하한가를 기록했에도 불구하고 ‘ELW풋’이 ‘내박’을 터뜨린 것처럼 보인 경우도 있다. ‘굿모닝8599대한항공풋’이 그 주인공. 대한항공은 24일 하한가를 기록했으나 이 ELW 종가는 전날 10원에서 145원으로 급등하면서 단 하루 만에 1355% 치솟았다.

누군가 10원에 매수호가를 내놓은

것이 ‘어이없게’ 매도되면서 50주가 체결된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대한항공이 하한가였던 점을 고려하면 LP는 160원대에 호가를 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ELW 가격은 하락한 게 맞다”며 “기초자산이 올라야 수익을 내는 콜종목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해당 ELW 가격이 오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LW 투자자들 가운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는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 왜 내 ELW풋은 마이너스냐’고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도 증가와 실제가격 간에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지은 맥쿼리증권 이사는 “LP가 없는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매매가 이뤄진 경우나 거래량이 없어 과거 체결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산출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며 “단순히 상승률이 높다고 해당 ELW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박성희 기자 stargirl@

# 키코손실 보험처리 싸고 신경전

은행권 “금융기관보험에 가입 ... 청구여부 검토”

보험업계선 “불완전판매로 피해 ... 지급 의무없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손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치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기관전문인배상책임보험·인원배상책임보험 등 금융기관종합보험에 가입한 만큼 KIKO 손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KIKO 관련 손실이 은행 임직원들의 불완전판매로 빚어진 만큼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은행권이 보험금을 요구하면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KIKO 관련 손실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다. 금융기관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은행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고객이나 제3자에게 뜻하지

## ● 은행별 키코거래 손실

(단위:억원)

| 은행   | 실현손실  | 평가손실   |
|------|-------|--------|
| 한국씨티 | 1,323 | 4,089  |
| 신한   | 919   | 3,272  |
| 외환   | 1,282 | 3,225  |
| 산업   | 549   | 1,625  |
| SC저축 | 1,121 | 1,432  |
| 국민   | 572   | 1,220  |
| 하나   | 176   | 827    |
| 기업   | 245   | 477    |
| 우리   | 152   | 393    |
| 대구   | 25    | 216    |
| 농협   | 31    | 113    |
| 부산   | 39    | 55     |
| 합계   | 6,434 | 16,943 |

※통손실에는 평가손의 포함(8월말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며, 인원배상책임보험은 은행 임원의 잘못된 경영판단이나 불법 행위 등으로 고객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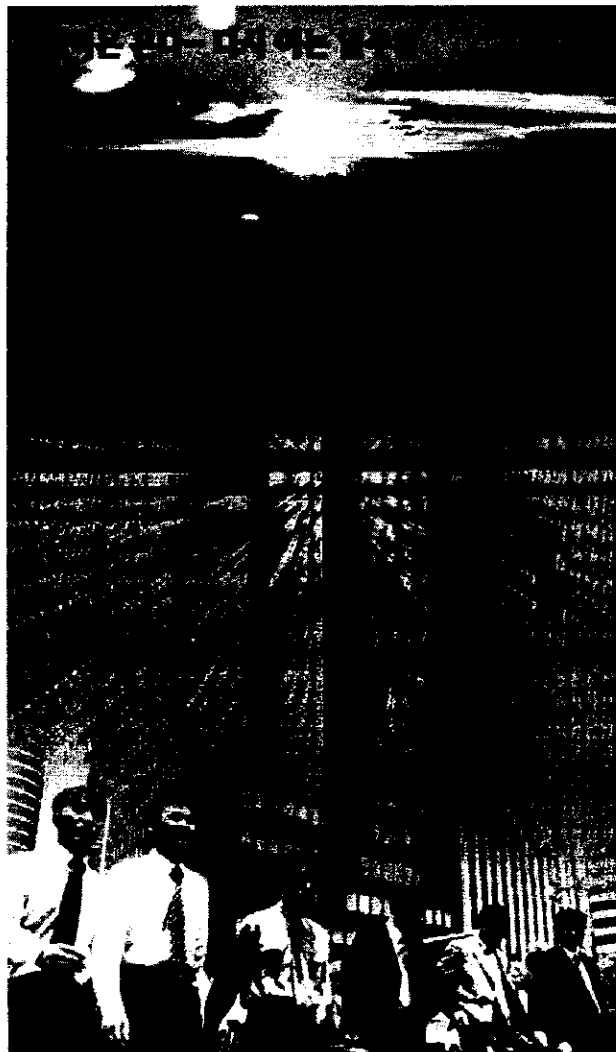
현재 은행권은 임직원들이 고의적, 악의적 목적으로 KIKO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30억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금액이 900억원인 금융기관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며 “중소기업들의 KIKO 손실이 현실화하면 법률 검토를 거쳐 보험금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KIKO 손실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위험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고 불완전판매로 해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시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개별 은행에서 10억~30억원의 보험료를 받고 400억~9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해놓고 있다.

현재는 은행과 중소기업 간 KIKO 매매계약이 종결되지 않아 평가손실 형태로 손실을 추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KIKO 손실이 현실화할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은행과 보험사 간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크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 Cover Story 잠 못 이루는 증권가

그래도

# 파이팅 합시다...

“대세상승 주장 부끄러워

숨도 평소 반박에 못합니다”

지난 24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난 A증권사 B투자전략팀장(45)은 대뜸 소주부터 주문했다. 평소엔 잘 안 하던 낮술을 왜 하느냐는 질문에 B 팀장은 말 없이 술잔만 기울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마지막 한 가닥 회광이었던 1000선마저 무너졌다. 지난 2005년 6월 1000선을 뚫고 파죽지세로 상승세를 구가하며 2년 4개월 만에 2000 고지를 밟았던 지수가 단 1년여 만에 반토막이 났다. 쥐기가 둔 B 팀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대세 상승을 외쳤던 제 자신이 한 없이 부끄럽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장이 하염없이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고 머리가 망했습니다.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죄스러워 숨도 평소의 반박에 쉬지 못했어요.” B 팀장은 최근 회사 임원들에게 보고할 증시폭락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느라 3일 밤을 꼬박 새웠다. 보고가 끝난 후 B 팀장은 달진으로 3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관련기사 3·11면

‘증시폭락 증후군’에 시달리는 증권맨과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증권사가 팔집한 여의도는 ‘불면증’이란 블랙홀에 빨려든 거대한 섬으로 변하고 있다. 증권사 직원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상황에, 투자자들은 1~2개월 만에 원금이 반토막 난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상황.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고충은 더욱 심하다. 센터를 이끌고 시장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배 이상을 감수하고 있다.

시장이 급락하게 돌아가다 보니 밤 사이 뉴욕 증시를 확인하고 흥얼거린 눈으로 출근하는 것은 기본이다. 오전 9시는 공포 그 자체다. 급락하는 지수를 쳐다보면 잠이 확 달아난다. 힘겹게 장을

## ‘급락 증후군’ 스트레스 극심

## 펀드등 영업마져 두손 놓아

마감하고 오후 4시께가 되면 어깨가 축 처지고 졸음이 밀려온다. 하루하루가 고동의 연속이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도 당장 수익률 감소로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가며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적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

모 증권사 대표는 “앞으로 그룹의 먹거리기 증권사가 될 것이라는 그룹 회장의 말에 조만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공격적 두

자를 계획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음 편히 투자할 형편도 아니다”며 밤새 뜯는으로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치열한 전투현장의 일선에 선 증권사 지점의 영업직원들은 이전 체면 상태다. 고객들도 자포자기 상태여서 객장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고 기금 오는 항의전화도 대수롭지 않게 남기고 있다는 반응이다.

C증권사 이모 대리(38)는 “손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신의 돈으로 고객 손실을 일정 부분 메워 줄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동종 업계 지원의 잇단 자살 소식까지 겹쳐 분위기는 초상집이다.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갈 수 있을까 농담할 때가 많다”고 암울한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증시폭락 증후군’ 대처 방안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기속도에 너무 놀라지 말고 여유를 갖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과 교수는 “스트레스 받는 것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양분간 주식은 있고 다른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상태가 심각해질 경우 전문의와 상의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on2@news.com | 이정현기자

# 증권맨도 투자자도 “개장이 무섭다”

(開場)

## Cover Story

## 잠 못 이루는 증권가

‘중시 추락 끝은 어디까.’ 미국 금융위기발 한파로 인해 서울 여의도 증권가는 때 이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연일 하락세로 코스피시장은 지난 2008년 8월 29일 994.74 이후 9월 4개월 만에 심리적 지지선인 1000선이 무너졌다. 또 코스닥시장은 300선이 붕괴되며 연일 장 개장 후 최저가 경신을 거듭하고 있다. 증권사는 물론 일반 직장에서도조차 ‘진정 바닥선이 어디냐’는 탄식이 끝없는 대아리처럼 퍼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증권사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발 눈보라로 몸을 전복 음치고 있다. 또 투자자들은 파란색으로 도배된 직장 전광판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상태. 투자자는 물론 국내 증권사까지도 세계 금융위기발 폭격으로 인한 ‘중시 폭락 증후군’에 신음하고 있는 셈이다.

## “우울증에 대인기피증까지… 퇴사 고민중” “전세자금 빼 투자했는데 원금 다 날릴판”

■일어붙은 증권사…칼바람 루머에 ‘신음’

문제는 ‘중시 폭락 증후군’의 증상이 어느 특정 계층에게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최근 인사한 신입사원까지 중시 급락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또 ‘중시 폭락 증후군’이 증권가 전반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점 직원들에게 더욱 심하다. 투자 손실에 대한 고객의 1차적인 압박을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 이는 A증권사 서울 영업소에서 일하는 B씨(36)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B씨는 “고객에서 대출 문제로 고객들의 항의 전화를 받으며 쌓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출근하기가 두려워질 정도”라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출근 전 전보다 잠꼬대가 심해졌다는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왜 첫 직장을 증권사로 정했을까’라는 회의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긴 한숨과 함께 토로했다.

국내 증권사 지방 영업점의 한 직원은 “지난해 들어온 후배 직원이 술을 마시며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며 “근무연수는 물론 관련 부서에 상관 없이 괴로움에 괴음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

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락으로 인한 고통은 각 증권사 CEO 및 리서치센터장에게도 마찬가지. 이는 ‘백악기 무효’라는 말로 현재의 시장 상황을 표현한 최근 신생 증권사 대표 C씨의 말에서도 마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처음 CEO를 맡을 당시는 굉장히 여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장이 급락하자 상품 출시를커녕 지점 확장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국내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센터장도 “최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추락장 속 리서치센터를 이끌며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투자금액 5000만원의 손실 사례

■ 직장투자(2000만원)

|         |         |            |
|---------|---------|------------|
| · 하이닉스  | -83.88% | -250만4000원 |
| · 한진중공업 | -75.41% | -738만원     |
| · NH    | -68.54% | -324만원     |

■ 펀드(3000만원)

|        |         |             |
|--------|---------|-------------|
| · 주식형  | -41.55% | -415만5000원  |
| · 중국펀드 | -57.79% | -1155만8000원 |

\* 원금 - 평가손익 =  
5035만원 - 2881만7000원 = 2153만3000원

스트레스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불면증마저 안겨 줬다”고 호소했다.

■배랑 끝 투자자

일반 투자자라고 중시 급락으로 인한 ‘중시 폭락 증후군’에 여의할 수 있는 법. 특히 여유자금에 아닌 대출 및 전세금 등을 빼서 투자하거나 전업을 결심했던 투자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이들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대인기피증까지 느끼는 등 전형적인 ‘중시 폭락 증후군’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사에서 일하는 D씨(31)의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

전세 자금으로 마련했던 돈 1억원을 조금이라도 불리기 위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한 것. 그는 “중시 폭락으로 최근 밤잠을 못 자는 것은 물론 지인들을 만나기조차 두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식투자도 제법 잠잠한 재미를 봤던 D씨는 올해 초 1억원의

거금을 주식에 투자한 후 급히 현금 이 필요해지자 주식을 파는 대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것이 최대의 실수. 하지만 이미 상황은 주식 폭락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D씨 주식이 매매대 사라져 버릴 정도로 걷잡을 수 없어졌다.

D씨는 “요즘 갈아서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이해가 갈 정도”라면서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손해를 약간 보고 있었지만 연발이면 그래도 반등이 있을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폭락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전업투자자인 E씨(27)도 유사한 사례.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006~2007년 학생의 신분으로 주식 투자로 제법 높은 수익을 거뒀던 그는 지난해 2월 졸업하고 취업이 아닌 전업투자자의 길을 선택했다. 또 지난해까지 직접 주식 투자를 통해 직장인 월급보다 큰 돈을 굴리면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주가가 급락하며 큰 폭의 원금 손실을 경험한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역전됐다.

E씨는 “원금 손실이 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매수했었으나 오히려 더욱 손해가 커져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렸더니 얼마 전 결혼한 친구가 나에게도 연락도 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서 “이제 와서 취직 준비를 하려니 막막하고 손실을 본 원금도 떠올라 괴롭다”고 말했다.

always@nnews.com | 안현덕기자



# CD금리 6.18%... 7년만에 최고

## 주택대출금리 치솟아 서민 한숨 예금금리 8%대 상품까지 나와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예금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특히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24일 CD(91일물) 금리는 연 6.18%로 11거래일 연속 올라 2001년 1월 18일 이후 7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적용될 국민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92~8.42%로 지난주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또 신한은행 6.96~8.26%, 우리

은행 7.06~8.36%, 하나은행 7.28~8.58%로 지난주 초보다 각각 0.08%포인트 올랐다. 기업은행도 7.11~8.41%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형이 90%가 넘는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다. 우리은행의 3년 고정형 금리는 이번 주초 8.89~9.99%로 1주일 전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은행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행들은 예금금리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SC제일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100만 원 이상 예금 고객에게 연 7.3% 금리를 주며, 기업은행의 e-골

### 27일부터 적용될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 은행 | 금리 (단위: %) | 전주 대비 (단위: %포인트) |
|----|------------|------------------|
| 국민 | 6.92~8.42  | +0.08            |
| 신한 | 6.96~8.26  | +0.08            |
| 우리 | 7.06~8.36  | +0.08            |
| 하나 | 7.28~8.58  | +0.08            |
| 기업 | 7.11~8.41  | +0.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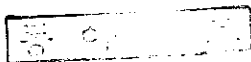
자료: 각 은행

림 통장 금리도 연 7.3%에 이른다.

하나은행의 'e-플러스 공동구매 정기예금'은 연 7.21%, 우리은행의 '우리로모아정기예금'은 연 7.05%를 준다.

예금 금리 인상으로 은행 쪽으로 자금이 쏠리자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도 앞 다퉈 연 8%대 예금상품을 내놓고 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 대출 10%, 예금 8%

CD금리 급등에 주택담보대출 최고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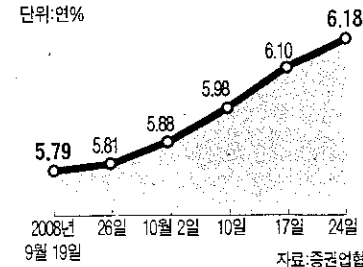
자금 목마른 저축은행, 연 8%대 예금 내놔

은행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은행들의 자금난 때문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최근엔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CD 발행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따라 움직이는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는 것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27일부터 적용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주보다 0.06~0.08%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은 연 6.92~8.42%며 ▶신한 6.96~8.26% ▶우리 7.06~8.36% ▶하나 7.28~8.58% ▶기업 7.11~8.41% 등이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CD금리(3개월)는 이달 10일 이후 11일(거래기준) 연속 상승하면서 24일 연 6.18%로 올랐다. CD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우리은행의 3년 만기 대출은 연 8.89~9.99%로 지난주 초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외환은행은 연 8.69~9.39%로 0.26%포인트 상승했다. 고정금리형의 경우 3년 만기 은행채(AAA등급) 금리에 따라 신규 대출금리가 결정되는데,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급등  
단위: 연%



자는 "정부의 시장안정대책이 효과를 발휘해 CD금리 등이 떨어지자만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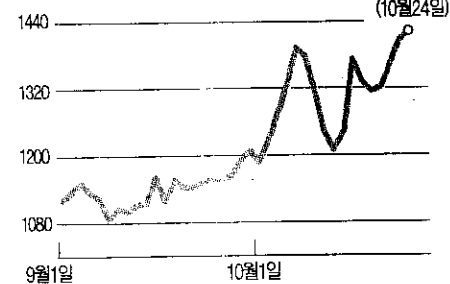
자금이 부족한 은행들은 대안으로 연 7%대 금리를 제시하며 예금을 늘리고 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개인 고객이 100만원 이상 예금하면 연 7.3% 금리를 주고 있고, 기업은행 인터넷 예금인 'e-플러스통장'도 같은 금리를 제공한다. 일부 은행의 경우 영업점장 전결 금리를 더해 연 7% 중반의 예금 상품을 팔고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기업은행이 이달 1~23일 예금으로 끌어들이는 시중 자금은 11조 1615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자 상호저축은행들은 연 8%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내놓고 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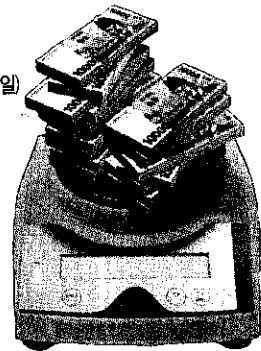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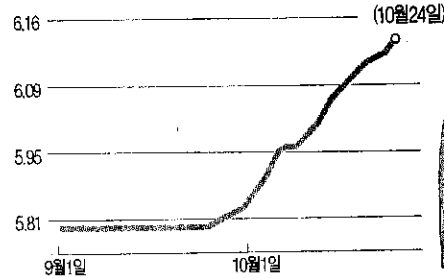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

(달러당 원)



## CD금리

(연%)



# 환율 1500원 넘을 수도 있겠지만...



환율·금리

원·달러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평소 하루 10원 이내에서 움직이던 환율이 요즘은 100원 이상 움직이는 경우가 다 반사다. 지난 10일에는 하루 변동폭이 235원에 달하기도 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조차 “환율이 어디로 될지 모르겠다”며 환율 전망 자체를 꺼리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것은 무엇보다 외환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7~9월만 해도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80억달러 이상이었지만 10월 들어서는 40억달러대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10일에는 하루 거래량이 25억달러에 그치기도 했다. ‘외환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지금처럼 외환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환율 전망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향후 국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종우 SC제일은행 상무는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면서부터 오버 슈팅(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금 상황은 외환위기 때와는 분명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는 국가 부도 사태로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았지만 지금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여건)이 그 정도로 나빠지 않았다. 잠시 1500원을 넘을 수는 있어도 10월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안정 기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 외환보유액이 충분해 정책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환율을 일정 정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도 외환시장의 변수다. 다만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리려면 대

규모 달러 매도 개입이 필요한 데다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뒤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도 선불리 이 같은 방식을 쓰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수준보다 훨씬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내놓은 ‘2009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을 1040원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주요 7개국의 교역가중치와 물가 등을 고려한 적정 원·달러 환율은 1002원 내외”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이 이달 초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지만 시중금리는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24일 채권시장에서 기업어음(CP) 금리는 연 7.21%까지 올랐다. CP 금리는 지난달 중순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전 연 6.22% 수준이었지만 이후 급등세를 타기 시작해 한 달여 만에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3년 만기 회사채(AA- 기준) 금리도 ‘리먼 사태’ 이후 연 7.09%에서 지금은 연 8.10%까지 뛰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사정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의미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도 지난 9월 하순까지만 해도 연 5.79%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연 6.18%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레디트물(비정부채)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전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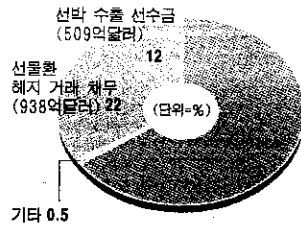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한은이 이왕 기준금리를 내리기로 했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과 내수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 1997년 vs 2008년 펀더멘털 분석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 것일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98년과는 전혀 다르다'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들은 △ 풍부한 외환보유액 △ 개선된 기업 재무구조 △ 국제 기준을 웃도는 은행 건전성 △ 강화된 통계 투명성 △ 남아 있는 재정·금융정책 수단 등을 '객관적 생존 근거'로 꼽고 있다.

### 총외채무 중 34.5%는 상환 부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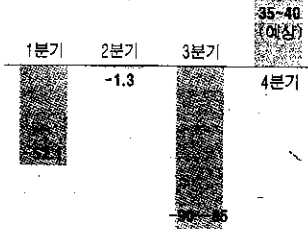
\*자료=한국은행

### 외환보유액 유동성 높아



\*자료=한국은행

### 4분기 흑자전환 예상되는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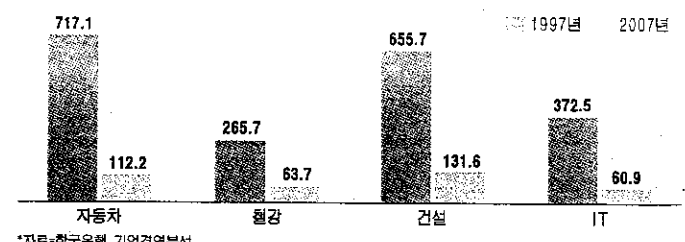
\*자료=한국은행

### 6대 수출 업종 현금성 자산 늘어



\*6대 수출 업종은 석유화학·철강·기계장비·IT·자동차·조선

### 주요 업종 부채 비율 크게 낮아져 (단위=%)



\*자료=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외환 보유액 2397억달러...언제든 사용 가능 체질 확 바뀐 6대 수출기업 순이익 크게 늘어

만 한 또 다른 주요인으로는 획기적으로 개선된 기업 부문이 꼽힌다.

기업·금융 동반 부실로 97년 말 외환위기가 초래됐지만 이번에는 기업 부문의 대규모 부실 염려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국내 주력 산업의 체질이 '확' 달라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석유화학과 조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산업은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산업의 순이익률이 5%(지난해 기준)를 웃돌고 있다.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6대 주요 수출 산업(석유화학·철강·기계·IT·자동차·조선)의 당기순이익도 크게 개선됐다.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ROA)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6대 수출 산업의 ROA는 지난해 5.3~8.1%에 달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6대 수출 산업의 ROA는 -2.3~-0.9%에 불과했다. 이 밖에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인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ROA도 각각 -1.7%, -0.4%에서 4.3%, 4.8%로 개선됐다.

### ◆위기에서도 실적 견조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다. 6대 수출 산업의 부채 비율은 산업별로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195~605%포인트 낮아졌다. 717.1%에 달했던 자동차업체들의 부채 비율은 112.2%로 하락했다.

영업 호전에 따라 내부유보율도 크게 높아졌다. 내부유보율 개선은 현금과 그만큼 많이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내실이 강화됐다는 뜻이다. 6대 수출 산업의 내부유보율은 9.5~165.9%에서 153.0~752.1%로 높아졌다.

현재 기업의 건전한 펀더멘털은 한국을 위기로부터 지켜주는 '방파제'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실적은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엄

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당초 3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던 삼성전자는 1조234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극심한 불황으로 기록적인 적자를 내고 있지만 반도체 부문에서도 2400억원 영업이익을 냈다. 포스코는 3분기 1조983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2분기에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 ◆은행 건전성 지표 여전히 '우수'

현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인자'는 이번에도 은행 부문이다. 몸집을 불리기 위한 과도한 대출 경쟁과 허술한 리스크 관리, 정금율 그만큼 많이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내실이 강화됐다는 뜻이다. 6대 수출 산업의 내부유보율은 9.5~165.9%에서 153.0~752.1%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은행들은 탄탄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권의 부실 여신(NPL) 비율은 1% 미만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11%를 상회

한다. 집값 하락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미약하다. 현재 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 수준으로 미국 유럽에 비해 안정적이다.

'건전한 펀더멘털'의 근거로 제시하는 각종 통계 신뢰성도 크게 높아졌다. 여권대 국내 은행들의 평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11.36%로 국제 기준(8%)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BIS 비율이 국제 기준을 밑돌았던 점을 차지하더라도 숫자 자체가 오라기력했다.

외환보유액 통계도 같은 맥락이다. 한 국제연구소 관계자는 "그 당시에는 강장 사용할 수 없는 외환자산까지 포함해서 외환보유액이라고 발표해 모두가 속았던 상황"이라며 "지금 외환보유액은 가용할 수 있는 보유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박용범·안정훈 기자

# 엔화 싸게 빌릴때 좋았는데 이제 '부메랑'

100엔=1500원으로 2배 급등...은행 "대출한도 초과분 갚아라" 압박

서울 강남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얼마 전 은행으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작년 8월 식당을 확장하기 위해 엔화 대출로 30억원을 빌렸는데 갑자기 1억원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원·엔 환율이 올라 원화 기준으로 보면 약정 대출 한도(5억원)를 넘어서 그 초과분만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은행은 "한 달 내에 1억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담보로 제공한 식당을 처분할 수 있다"는 으름장도 놓았다. 김씨는 "돈을 더 쓴 것도 아니라 단순히 환율이 올라 갚긴 일이니 대출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원·엔 환율이 급등하면서 엔화 대출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엔화 가치가 상승해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만기 연장도 할 안과 받을 동등 구로고 있다. 최근에는 원·엔 환율이 올라 원화로 표시되는 대출액이 최초에 맺은 약정 대출 한도를 초과해 갑자기 원금의 일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 작년 7월 100엔을 745원대에 머물렀던 원·엔 환율은 지난달 1000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24일엔 1508.97원을 기록했다. 1년3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뛴 것이다. 작년 7월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렸다면 당시 원금이 70여억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50억원이 넘



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최초에 엔화대출을 받았을 때 은행과 맺은 약정 대출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엔화대출의 평균 한도는 개인의 경우 50여만원인데 작년엔 엔화로 30억원 이상 빌린 대출자들은 천 제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원금 상환 압력을 받고 있다.

엔화 대출자들은 "은행이 대출 한도관율러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은 "대출 한도 상환조정은 신규대출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어서 한도를 쉽게 올려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 시

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외화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은행에 해외자산을 줄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은행이 엔화대출 한도를 올려주겠느냐"며 "엔화가 꼭 필요한 수입기업을 제외하고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나 신용도가 낮은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원금 일부분을 갚으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도

로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원·엔 환율 상승으로 약정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갚지 않으면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까지 압박하고 있다.

상환 독촉에 사달리는 엔화 대출자들은



\*국립·무라·신한·대우·기타은행 기준

엔화대출로 갈아타려 하고 있지만 이다지도 여의치 않다. 대출 금리가 치솟기 때문이다. 리보금리(연단은행 간 대출금리)에 연동되는 엔화대출 금리는 2006년께 연 2~3%에서 현재 4~6%로 올랐지만 여전히 원화대출로 전환할 때 적용받는 금리보다 2%포인트가량 낮다. 이 때문에 원·엔 환율이 오르고 있어도 엔화대출 잔액(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기준)은 6월 말 8963억원에서 지난달 말 9222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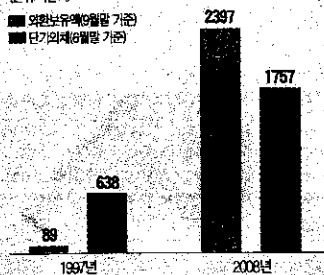
한편 엔화가치 상승으로 일본에서 엔화를 원화로 바꿔 국내에 송금하는 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시중은행 도쿄지점의 한 관계자는 "원·엔 환율이 1300원대에 진입한 이후 한국으로 송금하는 엔화 액수가 20%가량 늘어났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때와 현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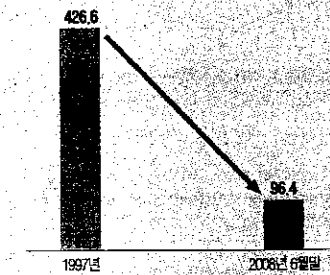
가동외환보유액과 단기외채

(단위: 억달러)  
■ 외환보유액(9월말 기준)  
■ 단기외채(8월말 기준)



기업부채비율

(단위: %)



주요국 외환보유액과 단기외채 현황

(단위: 억달러)

| 국가   | 외환보유액(9월말 기준) | 단기외채   |
|------|---------------|--------|
| 일본   | 9,967(2)      | 12,952 |
| 한국   | 2,432(6)      | 1,765  |
| 싱가포르 | 1,701(8)      | 3,207  |
| 홍콩   | 1,581(9)      | 5,139  |
| 독일   | 1,371(10)     | 21,097 |

\* 외환보유액은 2008년 9월말 기준  
단기외채는 2008년 4월말 기준(싱가포르는 2007년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최악상황 와도 국가부도 가능성 사실상 0%



국가신용도

1년내 만기외채  
2223억달러지만  
외국계銀 국내지점  
차입금 많아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이 이어지면서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또다시 국가 부도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의 주식·채권 투자자금이 일시에 빠져 나가면 견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상황을 가정해도 외화가 없어 해외 채무를 갚지 못하는 국가 부도의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리처드 머레이 상임이사도 25일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현재하가 다르고 그때보다 훨씬 튼튼하다”며 “한국은 정부의 정책과 자유화 측면에서 눈에 띄게 달라졌고, 외환보유액도 그

보다 훨씬 많다”고 평가했다.

### ◆외환보유액 충분한가

외환보유액은 한마디로 우리 기업이나 은행 등이 외국에서 벌린 돈을 못 갚을 경우 정부가 대신 지불하기 위해 쌓아둔 ‘비상금’이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397억달러에 이른다. 작년 12월에 비하면 225억달러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처럼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고 할 만한 수준이지만 외화채무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이 각종 위기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총 외채 중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외채(만기 1년 이내 단기외채+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외채)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223억달러 수준

이다. 만약 은행과 기업 등이 1년 안에 유동외채를 못 갚아 정부가 외환보유액으로 이를 대신 갚아준다고 가정하면, 174억달러의 외환보유액만 남을 것이라는 게 위기설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가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먼저 유동외채는 통계상으로는 2223억달러이지만, 이 중에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이 해외 본점에서 차입한 금액과 수출업체의 환해지용 선물환을 사주기 위해 은행들이 해외에서 벌린 자금 등 외환보유액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가 대거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외채 가운데 700억달러 이상이 외국계 은행의 본점 차입 자금이기 때문에 실질 유동외채는 1500억달러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들의 유동자산이 유동외채보다 많기 때문에 굳이 외환보유액을 투입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단적인 상황은 은행들이 유동외채 전체에 대해 ‘롤오버(만기 연장)’ 하지 못하는 것인데, 자금보다 상황이 좋지 못했던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은행들은 단기외채의 32%를 ‘롤오버’ 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 ◆외국인 주식·채권 다 팔아치우면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은 여림집아 각각 160조원과 50조원어치다. 채권의 경우 대부분 스와프 거래를 체결해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전량 매각한다면 국내 은행들에 350억달러의 외화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외국인이 주식을 다 팔아치우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경영 참여, 전략적 제휴 등의 이유로 다

털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외국인이 즐기게 때도 공세를 펼쳐 달러로 바꿔 나가는 최악의 상황에도 외환보유액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환율만 올라갈 뿐 외환보유액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 ◆외환보유액 현금화 수월한가

유동외채와 더불어 외환보유액을 둘러싼 또 다른 우려는 ‘과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환보유액을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외환보유액의 90%가량을 미국 국채 등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외국 은행 예금과 금 등으로 보유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국채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며 “현 외환보유액은 모두 일주일 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로 운용 중”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이상 외환보유액 문제는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 최근 정부가 은행들에 450억달러(150억달러는 이달 초 공급)를 직접 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급하고 은행의 외화 차입에 대해 총 1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지급 보증을 서주기로 하면서,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역시 기우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은행들에 450억달러를 공급할 경우 그만큼이 외환보유액에서 빠져 나가겠지만 이는 1~3개월 내에 다시 회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소는 아니라는 논리다. 또 지급 보증에 투입키로 한 1000억달러도 지급 당장 한꺼번에 빠져 나가는 것은 아니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튼튼해 모든 채무를 정부가 대지급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태형 기자 chihiro@hankyung.com

# 정부의 엇박자 정책 대응이 위기 더 부추긴다

국내 증시 사상 세번째 큰 낙폭(110.96포인트)을 보인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전광판에 세자릿수로 떨어진 코스피 지수(938.75)가 기록돼 있다. 코스피 지수는 서울 연속 5%대 이상 폭락을 이어가며 3년 4개월 만에 1000선이 붕괴됐다.  **동영상 chosun.com**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엇박자 대책이 증시 등 금융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경제부처 장관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공포심을 불러넣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불안에 빠진 데는 정부의 아파추어적 대응이 한몫하고 있다”고 말한다.

## ◆정부의 잇단 위기 조장 발언

그동안 “지금 한국은 IMF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갑자기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위기”로 말을 바꾸었다.

지난 13일의 라디오 연설 때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어렵긴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청와대에서 전국 경찰 지휘관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는 “현재는 IMF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지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세계 일류 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장관들이 대통령의 말을 되풀이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MF 당시에는 유동성 위지만 넘어가면 됐고 세계 시장이 호황이었다”며 “지금은 대외 여건 등도 좋지 않아 다른 원인 등을 합치면 경우 예 따라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오락가락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에 블룸버그 기자가 “대통령은 IMF 당시보다 더 상황이 나쁘다고 했는데…”라고 되물었다. 그 후 전 위원장은 24일 국감에서는 “현재의 금융

위기가 10년 전에 비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힐 수는 있지만,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식의 발언을 할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혀야 할 시국에,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불안감을 키웠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화폐 액면 단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루빨리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정부가 화폐 개혁을 밀어붙인다”는 소문이 시중에 파다하게 퍼졌다. “화폐 개혁까지 한다면 불안하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신문사로 전화를 걸어온 시민들도 있었다.

## ◆정부·한국은행의 엇박자

정부와 한국은행의 엇박자 대책도 시장의 신뢰를 잃은 채 오히려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시중 금리를 낮추기 위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25조원을 한은이 사달라고 요청했다.

강만수 장관은 22일 국감에서 “한국은행과 은행채 매입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은은 “금융위기가 더 심각해졌을 때를 대비한 비상 계획의 하나”라며 당황해 했다. 한은 실무진에서도 “중앙은행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미국 상황과는 다르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 정도로 원화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게 아니다”며 맞섰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공론화하면서 한은을 압박하자, 이성태 한은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 “IMF보다 더한 위기” 잇단 위기조장 발언 은행채 매입 놓고도 정부·韓銀 불협화음

### 정부의 미숙한 위기 대응

#### 불안심리를 키우는 발언들

|              |                                                   |
|--------------|---------------------------------------------------|
| 이명박 대통령      | “지금 어렵긴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10월 13일)  |
| 전광우 위원장      | “한국은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잘 준비돼 있다.” (10월 22일)      |
| 이명박 대통령      | “지금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 (10월 22일)                  |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경우에 따라서 IMF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10월 22일)            |
| 전광우 금융위원장    | “현재의 금융위기가 10년 전에 비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 (10월 24일) |

### 정부·한국은행의 엇박자

|             |                                                    |
|-------------|----------------------------------------------------|
| 강만수 장관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은행채 매입, 금리 인하 방안 등을 협의 중” (10월 22일)  |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 “만기 도래하는 은행채 25조원을 전부 중앙은행이 인수할 필요는 없다.” (10월 23일) |



이진한 기자 magnum91@chosun.com

“곧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3일 오후 은행들은 “한은에 은행채 적매입을 건의할 만큼 자금 사정이 나쁜 게 아니다”면서 은행채 적매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정부와 한은, 은행권이 이렇게 혼선을 빚는 사이 증시에서는 “은행 부실이 진짜 심각한 거 아니냐”는 투머가 급속히 확산됐다.

강경희 기자 knkang@chosun.com

조선일보

## 긴급처방 뭘해도 안먹혀 정부 위기대응 능력 있나

지표 하나,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가치 절하율.

2007년 말과 비교해 한국의 원화값은 34.2%나 하락했다. 유로(-11.5%), 영국(-18.3%), 호주(-23.5%)는 물론 태국(-13.2%), 대만(-2.6%)보다 폭이 크다.

지표 둘, 정부의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한국의 5년 만기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지난 23일 5.57%를 찍었다. 같은 날 말레이시아는 4.22%, 태국은 4.14%를 기록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수치가 지적될 때마다 '외환위기와 지금이 다르다'는 말만 반복한다. 물론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고, 단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10년 전의 이미지 탓에 외신들이 습관적으로 한국을 거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정부 내 경제팀의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부 자신을 때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금리 인하와 한은의 은행채 매입 건만 해도 그렇다. 위기 상황에서 재정부와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필요하다'는 방침을 냈는데 한은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며 버티고 있다.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석상에서 풀렸어야 옳다. 코앞에 국가위기가 닥쳤는데 기관 권한을 따지는 한은도 한심하지만, 조정력을 발휘해야 할 재정부가 민감한 사

안마다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정책당국 위기 선제 대응은 커녕 엇박자 지표악화돼도 "한라때와 다르다" 되풀이 큰 문제다.

청와대와 경제부처 어디를 봐도 강력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경제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부총리제 부활, 강력한 리더십 재건, 인적 청산을 거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 경제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9월 이후 외신들은 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을 국가부도 상태에 처한 아이슬란드와 비교하는가 하면, 파이낸셜타임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제통화기금(IMF) 회의 참석에 대해 '달러를 애걸하러 갔다'고 비꼬았다.

물론 두 가지 보도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가 반복되는 동안 정부는 '개별 보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게 전부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결국 IMF 자금지원 대상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보도를 내보내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히 부인하자 "한국 관리들이 정반대의 징후 속에서도 경제가 튼튼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25일(현지시간) 재반박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초 외평채 발행을 위한 로드쇼에서 한국의 현 상황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신청 사태가 터지면서 기회는 허공으로 날아갔다. 한 경제전문가는 "그런 시장 상황에선 가산 금리 2.3%를 제시받은 것도 받아들여야 했다"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김태근 기자

# “경제법안 조속처리해 실물위기 막아야”

경제 5단체, 국회에 요청·종부세·법인세 등 입장차로 난항예상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26일 경제활력 진작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재계가 국회의 입법심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에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은 최근 경제상황의 심각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금융위기 극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법안의 경우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5단체 “경제법안 조속 처리로 실물위기 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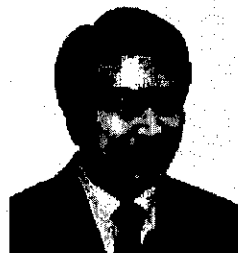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대책, 2008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시장 관련대책 등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경제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 대책들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며 “관련 대책에 대한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피해가 커지고 회복도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입법 현안으로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의

## 경제계가 국회에 협조 요청한 법안들

| 경제계 의견 법안명     | 주요내용                                             |
|----------------|--------------------------------------------------|
| 조속 통과<br>(22건) | 은행대외채무 정부보증인 3년간 지급보증, 1000억달러 한도                |
|                | 법인세법 개정안 법인세를 인하: 1억원 초과분 25%→2억원 초과분 20%        |
|                | 소득세법 개정안 양도세를 인하: 9~36%→6~33%                    |
|                | 종부세법 개정안 과세기준금액 상향(6억~8억원)                       |
|                | 공정거래법 개정안 출자총액제 폐지, 동역명령제 도입                     |
|                | 산업입지법 개정안 330㎡ 이상 일반산업단지 지정시 국토해양부 승인 폐지         |
|                | 한·미 FTA비준 동의안 양국 간 상품관세 철폐 등                     |
| 입법 유보<br>(34건) |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
|                | 공정거래법 개정안 담합의 경우 회사전체 매출액의 10% 과징금 환수            |
|                | 석유법 개정안 정유사 유류제품 판매가격 공개                         |
|                | 근로기준법 개정안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
|                |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를 65세 이상 연구의 70%에서 80%로 확대 |
| 수정 통과<br>(8)   | 상법 개정안 -회사설립시 최저자본금요건 폐지, 아사의 책임한도 설정(찬성)        |
|                | -집행임원제 도입(반대)<br>-신주여약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도입(신설)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인하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기업 상속여건 개선,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감세 법안을 꼽았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 ▲출총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등 기업 규제를 풀고 신사업 기회를 넓히는 법률안도 빨리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 ◆국회 처리 전망

내달 10일부터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예정됨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주요 경제법안들의 처리가 자칫 ‘정쟁’에 휩

쓸릴 가능성이 높다. 재계가 이날 경제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정치권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경제법안 중 가장 시급한 이슈로는 은행대외채무 정부보증안이다. 민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우선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27일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어서 일단 여야간 합의 처리가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률안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인하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감세안을 놓고는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 외에 출총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순환출자금지 등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어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준혁/송형석/노경득 기자 rainbow@hankyung.com



# “강력한 내수부양등 선제 대응을”

“미국처럼 실기하지 말고 세금인하 등 강력한 내수부양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미 뉴욕 월가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코리아 데스크’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긴급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한국 정부가 10년 전 IMF 외환위기 때의 경험을 되살려 보다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다소 취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선제적 정책대응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점점 다가오는 글로벌 리세션 쓰나미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환율 방어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들을 마련한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실체 없는 불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내수 부양 필요=데이비드 전 아틀라스캐피털 대표는 “한국을 둘러싼 세계경제 환경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고 진단한 뒤 “원화 가치 하락은 곧 한국경제 펀더멘털의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은 심각한 비상상황이라 이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정신차리지 않으면 글로벌 쓰나미에 한국도 휩쓸려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세계 32개국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그는 “1년 전에 비해 원화 가치가 50%가량 하락했다면 이는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음을 의미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감내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환율부터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리세션과 글로벌 신용경색은 한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적 변수이지만 내수시장은 대응하기 나름”이라며 “외수와 내수 모두를 잃지 않으

## IMF경험 불구 정부정책 대증요법에 그쳐 정신 바짝 차려야 ‘침체 쓰나미’ 대처 가능 “바이 코리아 동력 완전상실은 아니다” 공감

려면 세금인하를 포함한 강력한 소비부양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손성원 캘리포니아대 석좌교수도 “한국 정부가 다가오는 위기상황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대응(reaction)보다 선제적으로 대응(fore-action)해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발표하기 전까지 문제가 없다고 반복했고 그 뒤에 위기 사후적으로 대응하다 더 큰 화를 불렀다”고 진단했다.

◇ 환율상승으로 펀더멘털 추락 위험 증가=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면서 주변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데 동감했다. 마이클 하트넷 매릴린치 이머징마켓 수석 투자전략가는 “최근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마켓의 통화 가치 급락은 ‘위기’ 상황”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머징마켓 이탈이 해당국 통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는 환율급등이 주식시장의 무차별적 투대를 낳았던 지

금은 반대로 주식시장이 환율시장에 선행해 폭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머징마켓의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회복은 내년에 가서야 나타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경상수지 방어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손 교수도 “최근 한국을 방문했는데 ‘금융위기가 미국과 선진국의 문제이고 한국은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미국의 이번 경기침체는 과거 평균 기간인 11개월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라며 “환율상승 덕에 한국의 수출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전 대표도 “이머징마켓이 최근 줄줄이 국가부도를 맞고 있고 동유럽은 떨어져 나가기 직전”이라며 “한국의 경우 과거 IMF에 비싼 수업을 냈는데도 최근 정책대응은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 ‘바이 코리아’ 동력상실은 아니다=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한국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바이 코리아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데 공감했다.

헨리 서그먼 국제투자자문(IIA) 대표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위기를 방어할 만큼 충분하고 적정하다”면서 “부동산시장의 레버리지(차입투자)는 매우 낮고 은행의 단기 외화



**마이클 하트넷**  
(매릴린치 수석 투자전략가)  
“이머징마켓 통화는 위기 상황이다. 이머징마켓 주식은 살 때가 아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은 내년에 가서야 나타날 것이다”



**데이비드 전**  
(아틀라스캐피털 대표)  
“정신차리지 않으면 글로벌 쓰나미에 한국도 휩쓸려 갈 수 있다. 한국을 둘러싼 세계 경제환경은 97년 외환위기 때 보다 나쁘다”



**헨리 서그먼**  
(국제투자자문 대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위기를 방어할 만큼 충분하고 적정하다. 레버리지(차입투자) 비율이 높지만 주기하락 속도만큼 회복 속도도 빠를 것이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한국 은행들은 외채가 많지만 신용관리를 잘하고 있다. 미국은 타이밍을 놓쳐 위기를 초래했으나 한국은 좀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부채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해 일각의 위기설을 일축했다. 뉴욕에서 한국투자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그는 한국은행의 은행채 지급보증 등 일련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손 교수도 “최근 한국 증시 등 금융시장은 비이성적”이라면서 “은행들에 외채가 많기는 하나 신용관리를 잘해 미국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원 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원화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서그먼 대표는 “지난주 말 코스피의 주가 수익비율(PER)은 기록적으로 낮아졌다”면서 “내년 글로벌 리세션에 따른 기업 수익악화를 감안한다면 한국 주식이 싸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교수도 “주가는 40%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30% 빠졌다면 70%를 손해본 것인데 이 정도라면 누구나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대표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선진시장에서도 폭탄 세일로 쓴 주식이 널려 있는데 굳이 위험한 이머징마켓을 쳐다볼 이유가 없다”며 “투자지표는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리스크 회피”라고 설명했다. 하트넷 수석 투자전략가도 한국주가 회복시기에 대해 “지난 3~4분기 중 이머징마켓의 평균 주가가 28% 하락해 최악의 상황에 빠졌지만 아직도 이들 주식을 살 때가 아니다”라며 “연말을 지나 내년께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뉴욕=권규환특파원 chans@sed.co.kr

## 빅뱅 세계경제 ①

#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 대한민국 액션플랜 짜라

### 서정호 금융부장

2008년은 결국 세계 역사에 굵은 이빨을 새기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간헐적으로 발생한 경제·금융위기는 물론이고 80년 전 미중유 사건이었던 1929년 대공황보다도 더 큰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운명을 타고났다.

대공황이 입차적으로 미국을 영향권으로 했다면 2008년 세계 경제 빅뱅은 시작부터 전 세계를 입차적이고 직접적 영향권에 끌어넣고 있다.

이뿐만아. 인류와 함께 탄생한 화폐의 의미가 새삼 혼란스럽고 200년이 넘는 자본주의와 금융회사 역사도 아예 다시 써야 할 판이다. 처음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로 진행되더니 이제는 그 양상이 글로벌 경제대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별써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등 적잖은 나라들이 국가적 도산 다짐에 이빨을 올렸다. 앞으로 도 많은 국가들이 이번 쓰나미에 휩쓸려갈 것이다.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슬막하는 국가 간 서바이벌 게임이자 박쟁이다.

이번 빅뱅은 단순히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아니다. 세계 경제 전체에 오랜 기간 쌓이고 쌓여온 구조적 모순이 한순간에 터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다.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선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것이다.

이번 전쟁은 국가 간 경쟁력 경연장이다. 여기에서 승리하면 일시에 국가 서열이 바뀌고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에서 위상도 급상승할 것이다. 여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지 모른다. 앞으로 6개월이 향후 60년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11년 전 외환위기 경험을 오늘에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되살릴 우리만의 지

### 대한민국 10대 액션플랜



- 대통령 초당적 리더십 발휘하라
- '위풍' 만들어 비상체제 가동
- 장풍 속 달려 은행에 맡기자
- 할금정책 그만... 충분하고 과감한 정책 내려
- 외신창구 만들어 정확히 설명하라
- 부실 기업 워크아웃... 불확실성 없애라
- 일자리 창출로 내수 기반 지켜라
- 美·中·日과 국제공조 강화하라
- 투자자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라
- 미래 전략사업 적극 추진하라

### 빅뱅 세계경제 지면안내

- 정부 독단대책 원가 .....A3
- 제2외환위기? No! .....A4
- 대한민국 10대 액션플랜 ...A5
- CEO 6인의 위기극복 그때 ...A6
- 경제대국 일본도 흔들 ...A7
- 박철주 회장의 각오 .....A23

해다. 여기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전대미문의 위기인 만큼 국가지도부가 최고 인재와 실력을 토대로 창의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이 하나이고, 정부 기업 근로자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를 따라 하나로 통합되도록 하는 게 다른 하나다.

미국 동 서방의 상황에 한발짝 씩 늦게 대응해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지금보다 최소한 반발짝 빨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의 '액션플랜'을 설계하고 모두가 이에 동참해야 한다. 먼저 대통령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무장해야 한다.

지금은 전시상황이나 다름없다. 워 룸(War Room)을 만들고 수시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야 한다. 경제팀 교체와 관계없이 비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는 일도 시급하다. 국제공조도 결심한다. 특히 미국은 물론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간 공조가 이번 전쟁에선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비상시에는비상조치가 오히려 정상인 법. 시장의 요구를 따라가는 수준의 정책 대응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시장의 여상을 깨는 충분하고 과감한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가계도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들은 차분하게 미래 전략사업에 매진해야 하고, 가계와 개인도 과도한 공포에 휩싸여 시장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 기업이나 개인 모두 장풍 속 달려를 굽어모아 시장에 맡기는 것과 같은 사회통합적 합리성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도 모든 경제주체들은 지금 범어지고 있는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동 서방국의 끝없는 탐욕과 소비는 중국 일본 한국 동아시아의 경상수지 흑자로 대치됐다. 이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소위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파생상품을 통해 수십조 달러의 아시아 중동 자금을 빨아들이게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다.

**㉠** 빅뱅: 원래 '우주를 탄생시킨 대폭발'을 의미한다. 세계 경제 빅뱅은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 커다란 지각 변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제대전이 앞으로 불꽃 튀게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 자산운용사 '군기 잡기' 쇼만 하면 되나



최현철 기자의  
여의도 갤러리

24일 아침, 규모가 좀 되는 자산 운용사의 주식운용본부장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오전 10시30분 까지 여의도 자산운용협회에 모이라는 내용이었다. 전날 주가가 84포인트나 빠지며 1000선 근처까지 밀린 터라 불안했지만 본부장들은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찍히면 나중에 골치가 아파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물론 전화를 돌린 건 자산운용협회였다. 회의 자리에 정부 측 인사도 없었다. 하지만 회의 분위기는 안 봐도 뻔했다. 주가는 떨어지는데 기관투자자라는 자산운용사가 시장을 떠받치기는커녕 주식을 내다 파니까 정부가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다. 자율 결의로 위장한 기관 손목 비틀기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본부장은 "모아놓고 쇼 한번 하자

는 거지"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회의는 15분도 안 돼 끝났다. 시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주식의 달인'들이었는지 그 짧은 시간에 대책을 뚝딱 만들어냈다.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정부는 지난 2주일간 이런 모습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왔다. 은행장들을 불러 연봉을 깎으라고 으박지르고, 자산운용사 사장들을 불러서는 '주식 안 팔겠다'는 결의를 유도했다. 그러나 정작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이였다. 시장은 유동성에 목이 타 들어 가는데 정부는 입술에 물기만 축여주는 '립 서비스'로 일관해 온 셈이다.

이런 식의 전시행정식 대책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24일 시장이 깨우쳐줬다. 주식운용본부장들의 회의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코스피지수 1000포인트가 무너지더니 오후 들어 개미 투자자들은 투매 양상까지 보였다.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고 나서야 정부도 지금까지의 대응책에 한계를 인식한 듯하다. 부랴부랴 주말 대통령 주재로 경제 상황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은행도 갑작스레 27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인 것 같다. 미적거리던 은행채 직접 매입도 결단을 내릴 듯하다.

늦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헛간에서 시작된 불은 안방으로 옮겨붙고 있는 상태여서 마음먹은 대로 불길이 잡힐지 장담하기 어렵다. 위기가 터질 때마다 전시행정으로 일관하다 사기를 놓치고, 시장이 급락하고 나서야 법석을 떠는 행태는 언제쯤 고쳐질지 걱정이다.

chdck@joongang.co.kr

## 매일경제

2008년 10월 27일 a39면

## 선제적, 적극적 대응이 절실하다

코스피 10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 선을 위협받으며, 시중금리가 연일 급등하는 등 금융 공황 상황이 연출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위기국면을 돌파할 대책 마련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유동성 위기 차원을 넘어 신뢰 붕괴에서 비롯된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책당국자들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어제 제시된 정책방향은 신뢰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정도로 공황 상태에 빠진 시장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9일에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 등 금융·외환시장 공황을 야기한 만큼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제상황을 뒤따라 가며 사후약방문 식의 대책을 찢고찢고 내놓아봐야 시장은 오히려 냉소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정부정책은 시장의 흐름을 미리 예견하고 상황 악화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선제적인 것이 돼야 한다. 그래야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어제 발표된 내용들은 이미 예상됐거나 거론됐던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정도 내용 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케 도에 올려놓기에 역부족이다.

오늘 금리와 금융채 매입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긴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과감한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긴급대응에 실패(失機)했다면 내용이라도 충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고루한 이론에 사로잡혀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취한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기민하고 결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주는 한국 금융·외환시장이 안정국면에 접어들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습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에 빠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정책당국의 대응능력이 시험대에 올라있는 만큼 비장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

## IMF “한국경제 10년 전과 달라”

지난 주말 코스피지수가 3년여 만에 다시 1000선 아래로 추락(墜落)하고 원·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때 수준인 1424원까지 급등하자 ‘제2의 외환위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는 모양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때와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일부 외신들이 우리 경제의 위험성을 거듭 제기하면서 위기감을 부추기는 면도 있어 적잖이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다.

요즘 외신들의 한국 관련 보도태도를 보면 솔직히 다소 과장되고 악의적인 면이 없지 않다. 얼마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가라앉는 느낌’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가능성을 기사화하더니 지난 주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을 우선 자금지원 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해 주가 폭락을 부추기기도 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경상적자와 외채문제를 거론하며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외환위기 당시 자금을 지원했던 IMF는 다른 입장이다. IMF의 머레

이 상임이사는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때와는 현저히 다르게 훨씬 튼튼하다”며 “자금지원 대상으로 특정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해 일부 해외언론의 보도를 반박(反駁)했다. 외환보유액이 2400억달러로 외환위기 때의 27배에 달하는 점이나 기업과 금융회사의 체질이 몰라보게 튼튼해진 점 등도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결국 일부 외신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지는 일이 계속되면 정말로 위기가 현실화되는 소위 ‘자기실현적 예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위기 관리 대책을 마련,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일단 결정된 후에는 자신감을 갖고 밀고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진심으로 정부를 믿고 따라야만 위기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문화일보

10월 25일 019면

 안세

■YTN △경영기획실장 김백△총무국장  
김사모△보도국취재부국장겸보도국장직  
무대형 강철원△마케팅국장 홍상표△감  
사실감사팀장 엄해진△월드사이언스포럼  
추진단장 이홍렬△보도국디지털뉴스팀장  
박득송

## 엇박자 내는 경제수장들 바뀌야

코스피 1000이 무너진 우리 증시는 공포 그 자체가 시장을 지배하는 듯하다.

코스피가 지난 24일 1000 밑으로 곤두박질친 데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크게 작용했다. 투자자들은 운통 겁에 질렸고 무조건 던졌다. 우리 정부의 해외 언론 대응이 미숙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상황이 너무 왜곡 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 상황은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많이 있다.

먼저 한국에는 건전한 기업들이 충분히 많다. 연쇄 부도설에 휘말리는 건설사들은 전체 기업들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회사들 또한 아직 멀쩡하다. 최근 만난 모 시중은행장은 정부 지급보증 안 받고 갈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훨씬 넘는다.

하지만 이런 건전한 체질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외신에 휘둘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본질적으로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었다. 정부가 치솟는 원화 환율(원화값 하락)을 막겠다고 며칠 새 200억달러가량을 쏟아붓던 지난 7월 초의 '적벽대전'은 완전한 패전이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원화값을 내려 수출을 늘리고 이를 통해 성장률을 올리려던 전략을 펴다가 물가가 급등하고 '키코' 문제가 불거지자 화들짝 놀라 급선회 정책을 펴다가 가슴을 당한 셈이다. 어떤 이는 우리 경제팀이 야구경기 1사 1, 2루 찬스에서 병살타를 쳤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후에도 환율이 잡히지 않자 어느 일요일 오후 직접 대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불러 달러를 내놓을 것을 종용했다. 이들은 이후 달러를 더욱 불들어 댔다. 외환시장은 살얼음판을 걷듯 했고 원화값은 더욱 떨어졌다.

마침내 감히 거역하기 힘든 달러 매도 협조 요



서양원 경제부 차장  
syweon@mk.co.kr

청이 대리인을 통해 대기업 총수들에게 갔다. 일부 대기업들은 달러를 풀었다. 하지만 이 또한 약발이 나흘밖에 가지 않았다. 원화값이 달러당 1400원에도 못미치는 지금 이들은 내 돈 돌려달라며 입이 나와 있다.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시장

의 근본적인 수급구조를 바꾸는 데 치중하지 못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감히 단언한다.

다음으로 금융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실물 경제마저 고사시키기 시작한 현재의 위기를 수습할 부처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은 일사불란하게 위기를 수습해도 시원찮을 판에 티격태격하는 모습만 보인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후 대부자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지만 위기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에는 귀를 열어야 한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 사 시절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문제를 논의할 당시 한은 출자를 통해 회생시키자는 안에 반대했다. 금융시스템이 마비될 급한 상황이 왔지만 이를 거부해 결국 론스타에 막대한 차익을 챙겨 가게 했던 아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일 때다. 대통령이 자꾸 뒤로 빠지는 모습만 보이면 곤란하다. 경제수장들 개인적인 고집 때문에 협조가 안 된다면 차제에 바뀌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와 시장의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김 세 형  
논설실장

지난주 23, 24일 시장은 공포의 도가 넘었다. 공포(panic)란 말은 이유없이 두려움을 주는 신(神)의 이름 판(pan)에서 따온 말이다. 여기서 '이유없이'란 낱말이 핵심이다. 왜? 모르니까. 몰라서 두려워한다면 응당 정부의 해당 장관이나 청와대에서 무언가 국민을 안심시키게 사태의 진상을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말이 없었다.

그 많은 장관들은 다 어디로 갔나? 행방을 좀 알아봐라.

이명박 대통령과 박병원 경제수석은 아셈 회의 참석차 베이징에 가 있었다. 강만수-이성태-전광우 트리오도 국정감시장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은행 외채발행 정부보증 설명하느라 붙들려 가 있었다. (23일)

세 사람 중 한 사람과 통화하면서 “아

니 국민들은 공포에 떠는데 내팽개쳐 두고 왜 말씀이 없느냐”고 물은즉 “국회에서 월요일 또 오라고 한다”고 핑계를 댔다. 그러면서 하루종일 금융시장을 모른 채 한 건 아니고 점심시간 잠시 짬을 내 한승수 총리와 함께 청와대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걱정하고 뭐 그랬다는 것이다.

숨어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국민은 모른다. 아무런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거나 진배없다. 그게 팩트다.

마침내 주가 1000선이 깨져 공포감이 최고조였던 24일엔 강 장관은 아침 일찍 베이징으로 가버렸다.

유비쿼터스시대에 베이징발로 이 대통령이나 강 장관이 시장에 무슨 메시지를 낼 법도 했건만 침묵이었다.

현실적으로 환율이든 증시가든 어쨌든 대책을 펴느라 차라리 마음대로 자유낙하하게 내버려두는 게 상책이란 주장도 있는데 나도 여기에 동조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정부는 침묵해선 안 된다.

국민의 불안을 어루만져줘야 한다. “세계경제를 망친 미국은 왜 AAA를 유지하느냐”는 비난 성명을 내도 좋고 “돈 몇 푼에 영혼을 팔아 먹은 월가의 신용평가사들은 차라리 문을 닫아라”고 일갈이라도 해야 한다.

왜 국민은 정부를 못 믿고 경제팀을

불신하며 차라리 물러나라고 하는 줄 아는가? 필요할 때 곁에서 소용이 안 돼 주기 때문이다.

국민은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지, 환율의 상투는 어디인지, 금융시장 불안이 언제쯤 끝날 건지, 과연 한국이 살아날 것인지, 중남미처럼 고꾸라지고 말 건지 너무나 두렵다. 이번 위기에 내 남편은 직장을 잃지 않을지, 내 아들 딸은 취직이 가능할지 그게 너무나 두려운 것이다. 지금 깨진 편드는 언제 본전을 회복할지, 아니 이번주 월요일은 더 이상 폭락의 사이렌 소릴 듣지 않아도 될 지 무섭다.

나는 위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만들어 설명이라도 해주는 따뜻한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기령 4분기엔 국제수지 흑자가 난다. 그러니까 환율 정찰가는 1200원을 절대로 넘을 수 없다. 환율이 올라도 인플레이션은 이제 걱정하지 말라. 올해는 물가상승이 6% 선이지만 내년엔 2%로 떨어질 것이다. 선진국들은 전부 금리를 내릴 것이다. 한국도 내릴 것이다.

또 증시에 관해서는 증권업계 사장단 회의이라도 시켜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하면 설사 1000선이 깨진다고 해도 곧 회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은

행장들 월급을 공개하며 두들겨 패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국민이 아쉬워하는 것은 정부 조치가 항상 ‘땀복’이고 ‘선제대응’의 고민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은행 외채 지급보증, 건설업체 대주단 가입, 외평채 발행 실패,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 등이 미 얼어붙어 동결된 다음 용해제를 주사하는데 송장에 침놓기다.

국민들의 공포감의 뿌리에는 바로 위와 같은 못미더워하는, 그래서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원초적 의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틈을 하이에나처럼 노리고 서방 칼럼니스트와 FT 같은 언론은 한국을 물어뜯는다. 미국 월가가 저지른 파오를 ‘아시아의 복수’라고 마틴 울프 같은 이는 헛소리를 하는가 하면, “미국과 디커플링(탈동조)하여 아시아가 육일승천한다? 흥 어렵겠지”라고 비꼬는 주로 유럽인들이다. 한국은 절뚝하면 유럽을 위협하는 아시아의 우등생으로 묘사됐다. 그러다 비틀하니 기를 쓰고 씹는다. 한국을 아이슬란드에 비교하면서 넘어지기를 기원하는 용렬함조차 엿보인다. 1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 조지 소로스를 산도적(山盜賊)으로 일갈한 마하타트의 기백이 생각난다.

## 청와대 긴급회의 소집 안팎

## MB, 中 현지서 수시점검 귀국하자마자 회의 열어

일요일인 26일 오전 8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청와대 본관으로 속속 들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ASEM 회의 참석차 방문했던 중국 현지에서 국내 주식시장 패닉 상황을 보고받고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물론이고 정규 밭배가 아닌 한승수 국무총리와 대통령 경제특보인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토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2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중국 방문 성과를 설명하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국내 시장을 진정시킬 특단의 대책도 촉구했다"고 전했다.

ASEM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4일과 25일, 이 대통령은 회의장인 중국 인민대회당과 숙소인 베이징 리젠트호텔을 오가며 수시로 경제상황을 보고받았다. 호텔 로비에 서서 보고를 받기도 했다.

24일 저녁에는 재무장관 회의 참석 후 중국 현지에서 만찬 중이던 강만수 장관을 급히 숙소로 불러 시장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강 장관에게 먼저 돌아가 경제를 챙기라고 지시해 강 장관은 대통령보다 앞서 25일 오전에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중국으로 떠나기 직전에도 경제관계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시장안정대책을 주문했다.

이진명 기자

## “국제금융시스템 전면개혁을”

### ASEM 정상들 성명 채택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가국들이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통화와 금융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이들간의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베이징선언도 채택됐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참가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국제금융기구가 위기에 대응해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IMF가 금융위기를 맞아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 세계 경제를 관리하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성

명에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의 의지와 비전 천명, 정책공조 금융감독 위기관리 체계 강화,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가속화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ASEM 폐막 전 정상회담을 갖고 한·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체결을 위해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다만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놓고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불을 낸 사람이 꼭 소방수 역할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진원지가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조차 바로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있다가 막상 일이 닥치니까 상당히 당황하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홍영석 기자 yshong@hankyung.com

# 정부, 전방위 경기부양 총력

정부 대책의 무게중심이 점차 '금융위기'에서 '실물경제 위기'로 옮겨가고 있다.

이달의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환유동성(流動性·자금흐름)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금융시장 안정책을 계획대로 실행하는 한편, 경기둔화 등 실물경제 침체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금리·재정·세금 정책 등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 ◆재정지출 확대

재정지출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장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어 '반짝 경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장기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예산의 60%를 투입해 경기 하강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지출 확대 방안으로 우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내년 예산안을 수정해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가로 조달한 자금을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투입,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 ◆금리인하

한국은행은 지난 9일 기준금리를

## 정부의 금융위기 대응책

| 대책                          | 내용                                                                                           |
|-----------------------------|----------------------------------------------------------------------------------------------|
| 외환유동성 확보 방안(10월 5일)         | -한·중·일 800억달러 공동기금 설립<br>-은행 해외차입 3년간 정부가 보증<br>-외환보유액 300억달러 은행에 지원<br>-적립식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서재해택 |
| 금융시장 안정 대책(10월 19일)         | -수도권 일부 지역 '투기지역' 해제 추진<br>-신규주택 취득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간 확대<br>-건설업체에 유동성 지원<br>-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추진  |
| 가계부담 완화 및 건설업체 지원(10월 21일)  | -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감세, 경상수지 개선, 기업 투자확대 촉진, 일자리 창출                                             |
| 실물경기 침체 방지 종합대책(이번 주 발표 예정) |                                                                                              |

## 내년 상반기중 예산의 60% 투입... 양도세도 완화

연 5.25%에서 연 5.00%로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27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또다시 금리인하를 논의할 예정이다. 0.5%포인트의 대폭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만큼 실물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올 3분기에 예상보다 경기가 더 나쁜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하게 이어질 것으로 본다.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7일 또다시 금리를 인하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더 나빠질 것에 대비해 시장에 유동성을 더 풍부하게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는 것이다.

## ◆감세정책

감세정책은 새로운 감세 조치보다는 지난달 발표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해 개인의 소비여력과 기업의 투자여력을 늘리고, 부동산 양도세 등을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추가적인 감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른 참석자들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세는 재정이나 금리 정책과 달리,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장기 대책이어서 내년 경기부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김기훈 기자 khkim@chosun.com

강경희 기자 khkang@chosun.com



# 매일경제

10월 27일 a23면

## 환손실법인 상장폐지 늦춘다

환율변동으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26일 증권선물거래소는 “키코(KIKO) 등 환율로 인해 손실을 입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액을 제외하면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기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해당 법인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해 최장 2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은 해당 기업 재무개선 계획과 주채권 은행 의견 등을 참고해 상장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 서울경제

10월 27일 a10면

## 건설사지원위한 브리지론 시행

신용보증기금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브리지론 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공사 브리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이며, 공사 후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해당 대출의 상환재원이 된다.

경제 상식과 안맞는 한국경제 5대 의문점

1 외환보유액 충분한데 원화 유독 약세

# 외국인 증시 이탈로 달러 수요 급증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 경제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일종의 미스터리 경제 현상이다.

한국 경제의 '5대 청개구리 현상'을 정리해본다.

①외환보유액이 든든한데 원화만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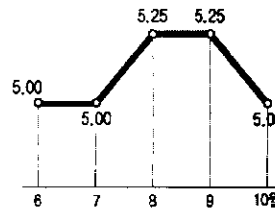
9월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396억7179만 달러로 세계 6위 규모다.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들어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팔고 이를 달러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지만 머물러 있기만 할 뿐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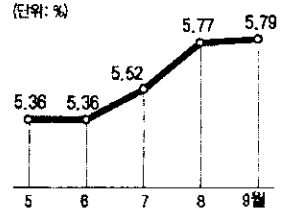
올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의 통화유동속도는 각각 0.716과 0.720으로 지난해 1분기(0.760)와 2분기(0.763)에 비해 낮아졌다. 통화유동속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M로 나눈 것.

통화유동속도가 떨어진 것은 가계와 금융회사,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금융위기 이후 서로를 못 믿어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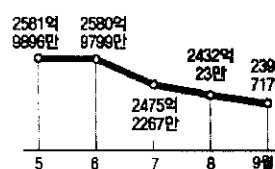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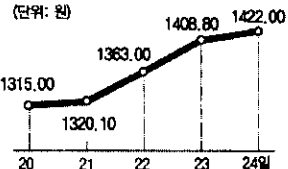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추이 (단위: %)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달러)



10월 중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원)



2 통화량은 늘었는데 '돈 가뭄'

금융사-기업들 불신 커져 투자-대출 꺼려

3 기준금리 내렸는데 CD금리는 상승

투자심리 악화되면서 채권 매수세 실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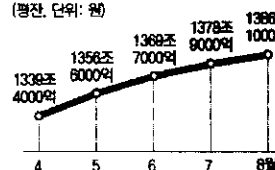
4 한국 국가부도 위험 동남아보다 높다?

외환위기 전력 때문... 경상적자도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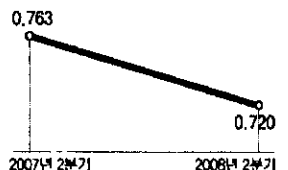
5 외국인론 부정적 보도 잇따라

정부 "서방국가와 비교할 때 이중잣대 적용"

광의통화(M2) 추이 (단위: 원)



2분기(4~6월) 통화유동속도



로 바꾸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상수지 누적 적자가 많은 것도 원화 약세 원인으로 꼽힌다.

그렇다고 환율을 내리기 위해 보유 외환을 함부로 쓸 수는 없다. 국가의 비상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율 시장에서는 미세조정만 하고, 은행에 대외 차입 지급보증을 해 주거나 스와프 시장에서 필요한 은행에 달러를 푸는 '직접 지원' 쪽에 보유 외환을 쓰고 있다.

②통화량 늘었는데 은행은 '돈 가뭄'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광의통화(M2)는 작년 같은 달보다 14.7% 늘었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원화 유동성을 더 끌어 달라고

CD)의 만기 연장에 애를 먹고 있다. ①기준금리 낮았는데 CD금리는 오른다

한은이 이달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는데도 CD금리는 24일 현재 연 6.18%로 9월보다 0.22%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채권 매수세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은행채가 안 팔리니 은행들은 자금 확보를 위해 CD금리를 올린다. CD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오른다.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한은이 은행채를 사들이겠다는 것도 CD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다.

④한국 국가부도 위험이 동남아보다 높다니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행기금채권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3일 기준 5.66%포인트로 말레이시아(4.28%포인트) 태국(4.15%포인트)보다 높았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졌다는 뜻. 한국이 외환위기 경험 있고, 경상수지 누적 적자가 커 순채무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가적 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수치를 높이고 있다

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부 세력이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호가를 부풀리면서 실제 정부 신용도와 관계없이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⑤외신에서 왜 지꾸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나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취약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외국 언론이 서방 국가에 비해 '이중 잣대'를 들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규모가 커 '기사 소재'로 삼기 적절하고, 한 신문이 쓰면 따라 쓰는 분위기도 강하다는 것.

국민영 기자 havelun@donga.com  
집재윤 기자 beyuna@donga.com

# “IMF, 1조달러 기금 마련”

WP·WSJ 보도... 일시적 외환부족국 지원용

IMF가 금융 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위해,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IMF는 경제 기반이 튼튼하면서도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들을 '사전 승인' 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IMF의 이 특별 지원을 받는 국가는 IMF 분담금의 최대 500%까지 달러 자금을 단기적으로 융통할 수 있게 돼 일시적인 외환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력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IMF가 유럽과 일본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1조 달러 정도의 신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2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갖고 있는 IMF는 외환보유액이 1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IMF가 긴급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 폭이 크지 않은 일부 국가들이라고 보도했다. 즉, IMF의 이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헝가리·아이슬란드 등 국가 부도 사태에 직

면한 국가들을 위한 장기 용자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제 하부구조(펀더멘털)는 튼튼한데 갑자기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위한 단기 용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MF의 한 고위 관리는 이 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평가 기준은 ▲지난 3년간 IMF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해당 국가가 부채 비율에 대한 규정을 맞추고 있는지 등이 될 것이라고 WSJ에 밝혔다.

WP는 IMF의 이 긴급 지원 프로그램은 대상 국가에 대한 요구 조건이 정규 구제금융 프로그램보다 덜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이르면 금주 말쯤 IMF 이사회에서 논의돼 승인될 예정이나,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이 ‘까다로운 조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최우석 특파원

wschoi@chosun.com



2008년 10월 27일 002면

## IMF “달러 스와프 창구 개설”

신흥국 대상 금융지원 확대 검토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이 신흥시장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IMF는 신흥국들을 대상으로 한 달러 통화스와프 창구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로이터 등에 따르면 IMF는 이따금 마켓의 붕괴를 막기 위해 기존 쿼터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회원국에 대출해 주는 방안을 비롯해 신속한 자금 투입을 위해 그동안 자금 지원과 함께 요구돼 온 각종 경제 개혁 조치들을 잠정 철회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긴급자금 조성안은 이르면 다음주 내로 이사회에 상정해 승

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남미국가 이사들에 의해 주도된 이번 계획에 따른 자금은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로부터 충당되며 일본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금껏 단기 유동성 부족시 자국의 통화를 달러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달러통화스와프 협정은 미국과 선진국 위주로 체결돼 신흥국들은 미국의 ‘통화우산체제’의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성사되면 신흥국들은 IMF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단기 달러 유동성 부족시 외채상환 등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yongchae@innews.com | 채지용기자

# ● 살얼음판 세계 경제 리먼 파산 후 각국 주가 20~40%씩 폭락

## 日 증시는 우리보다 더 심한 폭락세 보여 선진국 일제히 집값 하락, 마이너스 성장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 경제도 주가가 폭락하는 등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등은 이미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브라질, 중국, 러시아 등도 증시 폭락과 심각한 금융시장 불안을 겪고 있다. 지난달 중순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촉발된 이후 전 세계가 '위기의 동조화(同調化)'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주가 20~30% 폭락은 보통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가(KOSPI)는 약 32.4% 하락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가 무

너졌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세계 증시를 통틀어 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률은 중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주요 선진국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미국(다우존스산업평균)은 23.3%, 프랑스(CAC40) 23.4%, 영국(FTSE)이 25.4% 폭락을 면치 못했다. 독일(DAX)은 29.2%로 우리와 하락률이 비슷했고, 일본은 34.1%로 더 심한 폭락세를 보였다. 이들 국가들은 정부가 도산 위기에 처한 은행과 보험사들의 국유화에 나서는 등 상황이 한국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신흥시장의 경우 브라질(보베스파)과 홍콩(항성지수), 러시아(RTS) 등이 각각 35.0%, 37.18%, 57.0% 폭락했다.

### ◆'부동산 재앙' 닥친 나라들

최근 서울 강남 중심의 이른바 '버

블 세븐' 지역에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올 들어 9월까지 우리나라 전국의 집값은 4.3% 상승했다. 주택 버블이 있지만 급작스레 꺼지는 붕괴 상황은 아직 맞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선 부동산 버블이 '재앙'이 된 상황이다. 금융위기의 시발이 된 미국은 지난 1년 새 평균 9%나 집값이 빠졌다. 지난 3~4년간 새 집이 집중적으로 들어선 신규 택지개발 지구 등은 15~20%씩 집값이 떨어진 곳도 수도룩하다.

1990년대 이후 '부동산 불패' 신화를 거듭해온 영국도 지난해 대비 평균 12.4%나 집값이 폭락했다.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이 2배가 된 파리의 경우 최근 시내(7구) 고급 아파트 가격이 고점보다 7% 이상 떨어졌다. 주택경기엔 힘입어 호황을 누려온 스페인 역시 1년 새(지난 6월 기준) 전국의 주택 평균 거래 가격이 6.3% 하락했다.

### ◆일본·유럽, 마이너스 성장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

률(GDP·국내총생산 기준)은 전 분기 대비 0.6%를 기록, 지난해 3분기의 1.5%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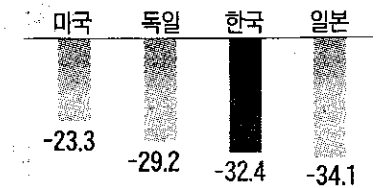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소위 G7(서방선진7개국)의 경제는 이미 뒷걸음치고 있는 상황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을 보면 일본이 마이너스 0.7%, 독일 마이너스 0.5%, 영국 마이너스 0.5%, 프랑스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미국의 경제전문 통신사 블룸버그(Bloomberg)는 "3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실물 경기의 둔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양대학교 하준경 교수(경제학)는 "세계 경제의 소비엔진인 선진국들의 경기가 뒷걸음치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나라들의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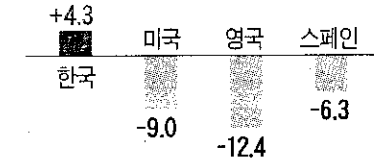
정철환 기자 plomat@chosun.com

##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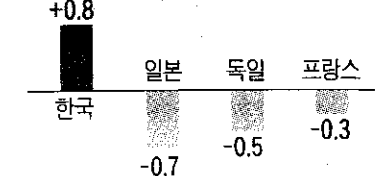
### 주가 하락률(9월 16일~10월 24일)



### 부동산 가격 등락률(지난 1년 기준)



### 2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



\*한국의 부동산 가격 등락률은 올해 1~9월 기준.  
자료: LG경제연구소, 한국은행, 블룸버그

# 美, 보험사 지분도 사들인다

## 7,000억弗 구제금융 통해... 자금시장 대출창구 확대 포석

미국 재무부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은행에 이어 보험사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7,00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안을 통해 보험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최대의 생명보험사인 메트라이프와 프르덴셜파이낸셜을 비롯해 뉴욕생명보험 등이 정부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100개 은행으로 구성된 기구인 파이낸셜서비스리스크레이블(FSR)의 스티브 바틀렛 대표는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추적 기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험사"라며 이번 정부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유동성 위기에 빠진 AIG에 850억 달러를 지원했고, 최근에는 총 2,500억 달러를 투입해 9개 대형 금융기관을 비롯한 중소형 은행의 지분을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미국 정부가 보험사 지분을 매입하려는 것은 금융시장의 커다란 불안 요소를 덜어주는 동시에 강력한 대출창구를 하나 더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 소비자 불안 덜고 유동성 공급 청신호될듯

### 他산업 형평성·정부 영향력 확대 우려 부담도

#### ●미 구제금융 관련 주요 일지

- ▲9월7일 패니메·프러디펙에 2,000억달러 공적자금 투입
- ▲9월16일 AIG에 850억달러 투입
- ▲9월20일 재무부, 7,000억달러 구제금융법안 의회 승인 요청
- ▲9월29일 하원 구제금융법안 부결
- ▲10월3일 하원 구제금융법안 수정안 의결
- ▲10월14일 재무부, 2,500억달러 투입, 은행 지분 매입 결정
- ▲10월25일 재무부, 보험사 지분 매입 검토

특히 미 정부는 보험사들이 금융시장의 대표적 장기 기관투자자란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기업 채권 보유 규모만도 총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보험 산업이 흔들릴 경우 소비자의 불안감이 극에 달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미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를 크게 반겼다.

조지타운대학의 제임스 앤젤 교수는 "지금 금융시장 분위기는 유동성

을 조달할 수 없을 만큼 패닉으로 빠져 들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자금 시장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그간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들처럼 대출을 꺼리고 현금을 쌓아둬 신용 경색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부작용도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이 문제되고 있다.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금융위기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다른 산업들은 돌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제너럴모터스(GM) 등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업체와 주정부 등은 연방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자칫 미 정부로서는 7,00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구제금융 자금으로도 금융위기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또 금융산업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도 고민이다. 은행에 이어 보험사도 국유화의 길이 열릴 경우 향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

한편 미 보험사들은 지난해 이후 모기지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손실로 총 930억달러 이상을 상각 처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리먼브러더스 등 대형 투자 은행들의 잇따른 파산으로 채권과 우선주 투자에서 크게 손실을 입었다. 또 회사채 가치 하락으로 미 실현 손실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낮은 금리로 이자 소득도 크게 줄었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 美 기준금리 1% 아래로?

29일 FOMC 회의, 0.75%p 낮출 가능성 26%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1% 아래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CNN머니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1.5%이다.

CNN머니에 따르면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는 FRB가 오는 29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낮출 가능성이 26%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최근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기 부양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금리인하 방안이 금융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금리인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문제는 금리 때문이 아니며 금융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생겨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금리인하가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FRB가 금리인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데이빗 와이스 수석 연구원은 “미국 신용시장과 금융시장의 위기가 아직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기준 금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1%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hannoveri@fnnews.com | 오미영기자

## 서울경제

2008년 10월 27일 a12면

## 美 최대 연기금 현금 부족해 주식팔아

캘퍼스, 이례적 대량 매도... 他 연기금도 유동성 압박 시달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캘퍼스)이 현금 확보를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퍼스는 사모펀드 및 부동산 파트너들과 맺은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식 매도를 통한 현금 확보에 나섰다.

소식통에 따르면 캘퍼스 투자위원회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현금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위원회는 일부 투자담당 직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후 현금 확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캘퍼스는 동상 보유 자산 중 현금 비중을 2%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

서 이 같은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WSJ는 “이는 연기금들이 최근 금융위기와 주가 폭락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시장 상황이 캘퍼스가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부동산 및 다른 투자 부문에서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신속하게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내다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른 연기금들도 고객들과 비슷한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확보를 위해 급하게 매도한 주식은 캘퍼스의 주식 평가손실을 실제 손실로 바꿀놓았다.

메릴린치에 따르면 연기금 펀드들은 지난 회계연도(2006년 7월~2007년 6월) 평균 5.1%의 손실을 기록했

다. 캘퍼스는 지난 6월 마감된 회계연도에 2.4%의 손실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캘퍼스의 문제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캘퍼스는 현재 미국의 전현직 공무원 160만명의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는 최대 연기금이다.

따라서 캘퍼스의 손실이 커지면 공무원들의 생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캘퍼스는 자산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연금 기여율을 2~4%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이종고가 될 전망이다.

한편 캘퍼스의 자산규모는 22일 현재 1,888억달러로 6월 말보다 21%가 줄어들었다. 캘퍼스는 8월 말 현재 자산의 약 63%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 대상도 전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

/김정근기자

mckids@sed.co.kr

## 美 國채시장에 투자금 몰린다

30년만기 TB 수익률 한때 30년來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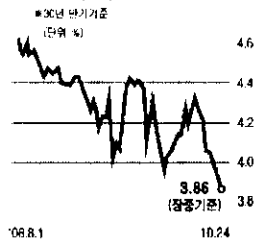
글로벌 주식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자금이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TB)로 쏠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말 30년 만기 TB 수익률은 0.27%포인트 급락(채권가격 급등)한 4.062%를 기록했다. 장 중에는 3.8676%까지 떨어져 지난 1977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2년 만기 TB 수익률도 0.24%포인트 급락해 3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10년 만기 TB 수익률도 0.10% 급락하는 등 장단기 채권 구분할 것

미 국채(TB) 수익률 추이



없이 TB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처럼 TB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은 글로벌 증시 폭락과 경

기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커졌기 때문이다.

메릴린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TB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5.61%의 수익을 올린 반면 미국 기업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에 투자했을 때는 14%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더드앤amp;포어(S&P) 500 지수에 투자했을 때는 거의 반 토막인 40%의 손실을 입었다.

모건스탠리의 케빈 플러너간 채권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증시의 폭락이 TB에 대한 매수세를 유발했다"며 "최근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 한국경제

2008년 10월 27일 a12면

## 세계최대 헤지펀드 '시타델' 무너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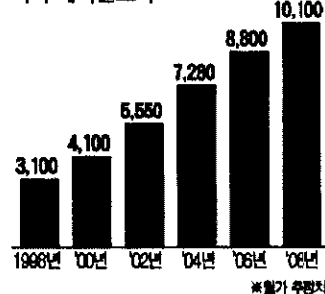
유동성 위기설 확산...월가 "FRB서 실태조사 들어가"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미국 시타델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발 금융시장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헤지펀드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시타델도 유동성 위기에 빠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조사 요원들이 월가 거래 금융사를 대상으로 거래 규모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 보도했다. 시타델은 운용자산 규모가 180억달러(약 30조원)에 달해 자칫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FRB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월가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타델 측은 터무니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제럴드 비슨 시타델 최고재무책임자는 "가용 신용한도(크레디트 라인)가 80억달러에 달하고 전체 자산의 30%를 현금으로 갖고 있다"며 "손실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평가손일 뿐 자산의 본래 가치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미국 헤지펀드 수 (단위: 개)



\*월가 추정치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선 시타델의 간판 펀드가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올 들어 35%의 손실이 발생했고, 투자자들의 환대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대형 헤지펀드 하나가 무너지면 헤지펀드 연쇄파산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공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뉴욕 증시 개장 전 지수선물이 폭락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월가 투자자들은 대형 헤지펀드가 파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헤지펀드인 하이넷웍스그룹에 근무하던 존 캐니 대

니저는 "뉴욕 증시에서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면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헤지펀드가 청산되거나 파산하면 자산을 동파 팔아야 하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급등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헤지펀드는 최근 3중고에 빠져 있다.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따른 투자자들의 환대 요구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의 대출금 회수 △약세장에 따라 낮아진 수수료와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은 원금 대비 2~5배가량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투자를 해온 터여서 공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곧바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된다. 리먼브러더스에서 헤지펀드 신용위험을 분석하는 업무를 하던 제프리 안도 "금융위기로 디레버리지(차입감소) 현상이 확산되면서 헤지펀드들이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상당수 헤지펀드들은 존립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경제

2008년 10월 27일 a12면

## “日 금융기관 공적자금 10조엔으로 증액”

요사노 경제재정담당상 밝혀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일본 경제재정담당상은 26일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예방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록 하는 금융기능 강화법 개정 방향과 관련, “(종전 법상의) 2조엔으로는 부족하다. 10조엔 정도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혀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액 상한선을 현재의 2조엔 규모에서 10조엔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조정을 진행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이는 미증유의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일본 금융 시스템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대폭 확대할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한국경제

2008년 10월 27일 a10면

## 러시아서 외국자본 ‘썰물’ ..증시 또 문닫아

RTS 13% 폭락- S&P, 국가신용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러시아 증시가 지난 24일 주가 급락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문을 닫았다. 이날 루블화로 거래되는 MICE X지수는 14.2% 내려앉았고 달러화로 거래되는 RTS지수는 13.7% 폭락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증권당국은 양 증시를 28일까지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가 하락 영향으로 간판 국영기업 스베르뱅크와 가스프롬의 주가가 급락했다. 전날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푸어스(S&P)는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

려 앞으로 러시아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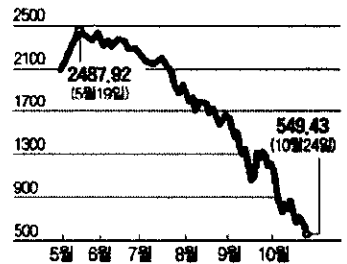
러시아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외국 자본 비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근데 최근 몇 달간 금융위기가 가속화하면서 외국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유가 하락으로 가스프롬 루코일 등 러시아 대표 기업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과 기업 등에 대한 외국인의 장기 투자도 줄어들었다. 고질적인 투자

부족과 은행의 유동성 부족도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소비심리 위축도 경기침체의 한 요인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작년의 두 배인 15%에 달했다. 작년 90%나 올랐던 집값은 올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업체 IRN에 따르면 2009년 말까지 집값은 20%가량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판매도 은행이 자동차 대출을 줄이자 12%나 감소했다. 심지어 맥주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8월 맥주 생산이 10%가량 줄었다.

금융위기는 소매업종까지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 최대 식료품 소

러시아 RTS지수 추이



매업체 'X5 소매 그룹'은 지출 30% 절감에 이어 관리자급 직원 3000명 중 1000명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상점에서는 물건을 진열하지 않고 고객들이 먼저 돈을 내고 필요한 상품과 수량을 요구하면 창고에서 꺼내주는 미봉책까지 쓰고 있을 정도다.

서기열 기자/윤영훈 인턴(한국외대 3학년)

philos@hankyung.com



# ‘强달러’ 개도국 초비상

## 인플레이등 치명타... “부도 막자” 환율 방어 나서

### 美·日도 수출 줄어 부담

“이번엔 환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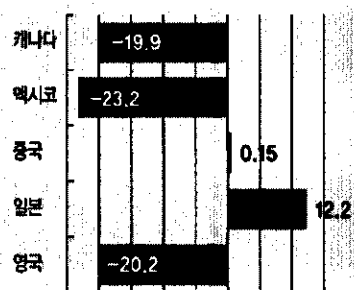
미국 달러화가 2년 6개월간의 하락 기조를 접고 상승세를 굳히고, 일본 엔화 역시 급등세를 타면서 각국 경제에 환율문제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지가 25일(현지시간) 분석했다.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 미국 달러와 일본 엔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들 국가는 수출에 곤란을 겪고 있고, 신흥시장은 일부 국가부도 사태로 연결되는 투자자들의 불신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서유럽 국가들 역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 3·4분기 들어 달러는 유로에 대해 16%, 멕시코 페소화에 대해 24%, 러시아 루블화에 대해서는 9% 올랐다. 지난 주말 인도 루피화에 대해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WSJ는 전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환율변동이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 ▲외국인 자금 환수에 따른 차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시장 혼란 등 단기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선진국이나 신흥시장 할 것 없이 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폭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3·4분기 미국 5대 교역상대국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변동폭  
(단위: %)



자료: 미 통계국·WSJ

우선 기업들은 환위험을 헤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국가경제에도 제약으로 작용한다. 궁극적으로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각국 정책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환율 미세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급격한 환율변동, 특히 평가절하로 상당수 신흥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 펴코의 세계 경제 자문위원인 리처드 클레리다 컬럼비아대 교수는 “급속한 통화가치 평가절하는 신흥시장에 매우 치명적”이라며 “이는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브

라질, 멕시코, 러시아, 인도 등이 지난 9월 말 이후 외환시장에 쏟아 부은 달러만 750억달러가 넘는다. 통화 가치 급락세를 저지하기 위해 달러를 내다팔고 자국 통화를 사들인 것이다.

서유럽 국가들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경기침체로 각국이 금리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이 작용하면서 유로, 파운드화 등 주요 통화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는 물론이고 최근 달러 약세로 수출에서 재미를 봤던 미국은 경기침체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달러 강세로 가격이 높아진 미국 상품을 해외 소비자들이 외면하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이는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미 경기침체의 골을 더 깊게 만들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런던 프린스턴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외환책임자 마크 패링턴은 “지금 다국적 기업과 미 수출업체들이 당면한 더 큰 문제는 달러 강세가 아니다”며 “미국의 수출둔화는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사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dymna@fnnews.com | 송경재기자

## 美 슈퍼리치들은 지금...

### 안전자산에 돈 묻고 '관망'

신용위기 여파로 미국 부자들도 일단 안전자산에 돈을 묻어놓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성 자산이나 만기 3~6개월 인 미국 재무성 채권(빌)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말 신용공황으로 단기 자금 시장이 쪼그라들었을 때는 금 현물을 구입하겠다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다. 돈을 맡기는 은행이나 금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도 믿지 못하겠다는 풍조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이마저 투자를 꺼릴 정도로 투자 심리가 악화됐었다. 경기가 좋을 때 유행하던 현대 미술 작품이나 비행기 혹은 요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을 최근 들어선 찾아 보기 어려워졌다. 오히려 최근 들어선 오히려 보유 중인 요트를 헐값에 처분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유력 자산 운용 담당자들은 슈퍼 리치 고객에게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검토해볼 것을 권하고 있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금 재무부채권을 쥐고 있지 않으면 손해볼 것이란 인식이 팽배하다.

일부 거액 자산가들은 이머징 마켓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등 위험 자산 비중을 낮추고 있다. 제니퍼 테이 시티프라이빗뱅크 아시아 대표는 “부자들이



현금·재무부채권 등 쥐고 원금보존 주력  
“조만간 큰 투자 기회 온다” 기대감 뚜렷

수익률을 쫓기보다는 원금 자체를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금을 지키면 조만간 큰 투자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주식시장은 물론 이머징 마켓의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아직은 투자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가 하락으로 보유 자산 가치가 줄어든 데다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보고 일단 보수적인 투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산 운용 담당자들은 이런 투자 심리를 감안해 대체 투자 대상을 찾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추세여서 대안을 찾기가 여의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일부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중국 비공개 시장에서 성장성이 탁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골라 선투자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맨해튼 34가에서 투자자문업을 하는 제임스 강 사장은 “최근 저액 자산가 3명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다녀왔다”며 “인터넷 콘텐츠 관련 업체의 지분을 사는 쪽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에서 컴퓨터 활용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벤처기업의 미래 수익성이 좋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투자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부자들은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경제

10월 27일 a10면

### 호주달러 가치 연일 급락

한때 외환시장에서 각광 받던 호주달러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매각에 나서면서 급락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호주달러는 지난 24일 연화에 대해 1호주달러당 57.75엔에 거래되면서 전날에 비해 12.7% 폭락했다. 또 호주달러의 가치는 이날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도 8.3% 떨어졌다. 이는 호주 정부가 화폐를 평가절하한 1976년 11월 이래 하루 하락폭으로는 최고치다.

##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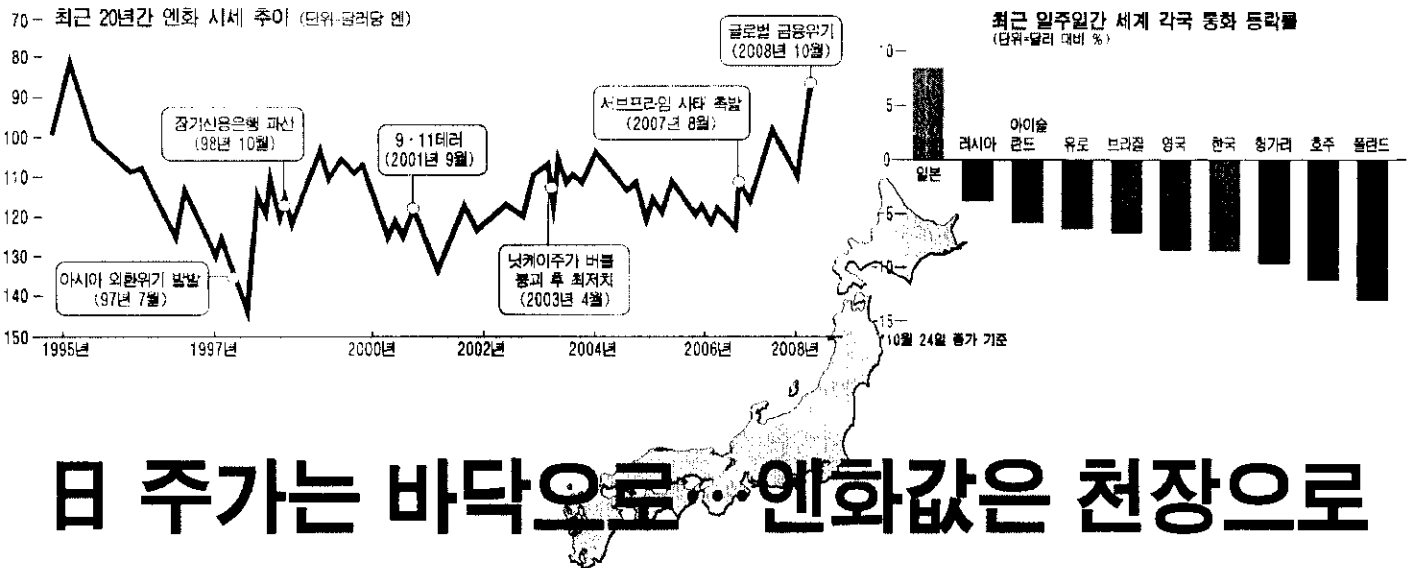
10월 27일 a10면

### 아이슬란드, IMF서 20억弗 차입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아이슬란드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4일 게이르 하르데 아이슬란드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자금 대출로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화의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아이슬란드는 장기 경제정책을 세워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계2위 경제대국 일본도 흔들



## 日 주가는 바닥으로...엔화값은 천장으로

8월 26년만에 첫 무역 적자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가능성

【도쿄 채수환 특파원】“외환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후쿠이 마사키 미즈호은행 애널리스트)

일본 엔화 시세가 1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90엔대까지 치솟으면서 일본 경제에 충비상이 겹쳤다.

도요타, 소니, 도시바 등 일본을 대표하는 수출기업들이 속속 영업실적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주 말 넷케이225 주가도 버블 붕괴 이후 역대 최저치 수준에서 불과 600포인트를 남겨둔 7649.08로 장을 마쳤다.

##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전망도

후카오 미쓰히로 일본경제연구원 소장 “글로벌 수출시장 위축과 엔고 추세가 맞물린 최악의 국면”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한 뒤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0.1%, 내년은 -0.2% 정도 각각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10월 초순만 해도 견고한 금융시장과 개인소비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본에 상륙하는 것을 차단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급격한 엔화가치 상승으로 신통경제에도 막대한 과다효과가 예상되면서 다시 장기전체적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변했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증권연구소 조사부장은 “재정 15조엔을 동원

한 부양책이 마련됐지만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내년 GDP를 0.3%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밖에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무역수지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9월 중 무역흑자 폭은 951억1000만 엔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4.1%나 줄어든 수치다. 이에 앞서 8월에는 고유가 충격이 반영되면서 2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무역수지가 적자(-324억엔)를 기록한 바 있다.

## ◆버블 붕괴 후반기와 지표 바스

넷케이 주가뿐 아니라 일본 거시경제의 각종 지표는 버블경제 말기인 2003년 4월 수준까지 대부분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보다 엔화값은 달러당 25엔, 원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포인트 정도 더 상승해 오히려 외부 충격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 이후 “나홀로” 강세를 지속해 왔던 엔화 시세는 이번주 초 달러당 80엔대 진입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다.

윤만하 한국은행 도쿄사무소장은 “글로벌 시장의 추가 리스크를 피하

기 위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른 속도로 청산되면서 10월 들어 달러나 유로를 팔고 엔화를 사려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고금리 신흥국 시장 등에 투자했던 엔캐리 트레이드는 최대 5000억~1조달러 규모로 추산돼 글로벌 자금시장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엔화는 지난주 말 유로화에 대해서도 유로당 123.10엔대 초반까지 치솟아 5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구마모 히데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엔화가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것은 글로벌 안전 자산이 그만큼 고값됐다는 의미”라며 “글로벌 루비 심리가 진정될 때까지 엔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중의원 해산·총선 일정 연기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25일 밤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귀국한 직후 “최근 엔화 강세와 주가 급락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다”며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가 더 추락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예정됐던 중의원 해산과 총선 등 정치 일정도 순차적인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변동이 급격한 가운데 재정 지출 정책만으로는 성장 기업 설비투자나 개인소비를 진작시

키는 데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무토 도시로 다이이치종합연구소 이사는 “낮은 금리로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는 데다 수출시장에도 별다른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실물경제 타격은 2010년 상반기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0.6%(연율 -2.4%)를 기록해 4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데 이어 곧 발표될 3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최근 한 달간 11조엔 규모의 1차 경제대책, 5조엔 규모의 2차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일본이 한 해에 두 차례나 재정 지출을 통한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버블 붕괴 후반기였던 2002년 이후 유례가 처음이다.

# 중국, 내수 살려 금융위기 넘는다

“2002년에 산 집을 지난해 팔았다면 10배 가까이 올랐을 거다. 지금?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텐데 누가 사나.”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30대 시민 쑨(孫)의 말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거래세 일시 면제 등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놔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주식시장도 다르지 않았다. 현지 증권사 객장에서 만난 40대 여성 주메이(九妹)는 “지난해 실적 후 주식에 손을 댔다가 10년간 모은 10만 위안(약 2100만원)을 날렸다”며 “정부가 뭐라든 중국이 세계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고 있는 걸 서민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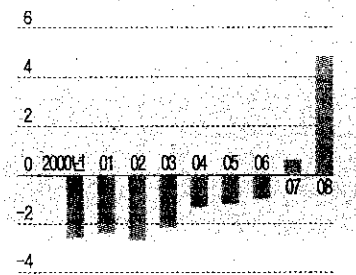
세계의 눈이 13억 중국인에게 쏠리고 있다. 중국의 성장 엔진이 멈추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환파가 글로벌 경제에 밀어닥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엄청난 외환보유액과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거란 기대도 줄고 있다.

◆흔들리는 산업=지난달 중국 철강업체의 조강 생산은 한 해 전보다 9.1%나 줄었다. 8년 만의 첫 감소다. 자동차·조선·건설 모두 철이 있어야 돌아간다. 철강 수요가 줄었다는 건 이들 산업이 흔들린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인 애널리스트는 “조선업체의 경우 계약 취소까지 생기고 있다”고 귀띔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이다. 월스트

## 막대한 재정흑자

단위:%, GDP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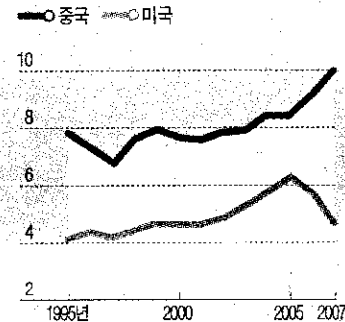


\*2008년 9월 말 현재 1조2500억 위안(GDP의 4.7%), 2008년 재정수지는 1-9월 누적

자료:CEIC, 삼성증권

## 너무 높은 부동산 의존도

단위:%, GDP대비 주택건설 투자액



자료:WSJ 아시아판

## 증시·부동산 잇단 대책 내놔도 시장선 찬바람 철강 생산 8년 만에 첫 감소... 성장엔진 이상 징후 글로벌 금융위기 '구원투수' 기대감 점점 줄어

리트 저널(WSJ) 아시아판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다.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터진 미국(4.6%)의 거의 두 배다.

맥쿼리증권 베이징사무소의 폴 카베이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시장에 중국 경제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망은 썩 밝지 않다. 지난달 중국 70개 도시 집값은 한 해 전보다 3.5% 오르는 데 그쳐 상승률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선전(深圳) 등 일부 지역은 이미 고급 아파트 값이 반토막

났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건설업 고용도 줄게 마련이다.

매년 1500만~2000만 명씩 대도시로 몰려드는 중국 농민이 주로 종사하는 게 건설업이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실업자가 쏟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내수 살아날까=세계 경제 침체로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자 중국 정부는 내수 부양에 온 힘을 쏟고 있다. 25일 철도 등 공공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농촌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쏟아낸 것도 그래서다. 하지

만 소비자의 닫힌 지갑이 쉽게 열릴 것 같지는 않다. 금융사가 많이 모여 있는 베이징 진통다제(金融大街)에서 만난 30대 회사원 장(張)은 “경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는데 누가 소비를 늘리겠느냐”며 “당분간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국 최대 증권사인 중신(中信)증권의 워저취안(葛哲權)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는 지금 발전 모델의 전환기를 맞았다”며 “내년이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을 쏟아 부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중국은 지난달 말 현재 1조2500억 위안(GDP의 4.7%)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흑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 게 뻔한데 인프라 투자와 실업자 지원에 들어갈 돈은 늘고 있는 게 문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그래도 기댈 것은 중국의 내수 부양책이다. 중국 정부는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민이 가전제품을 살 경우 판매가의 13%를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당장 효과를 낼 거라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투자증권 베이징 리서치센터 주시쿤(朱希昆) 소장은 “소비가 중국 경제를 이끌어면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선하 기자

odinelec@joongang.co.kr

# '러·브' 국가부도 가능성 낮다

## 단기외채보다 외환보유액 많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신흥시장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트남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외채 및 외환보유액 상황을 보면 디폴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시장의 우려보다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현재 단기외채보다 외환보유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외화를 갚을 돈이 없어 국가부도를 내야 할 처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월드뱅크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수치를 보면 러시아의 경우 외환보유액(8월 현재)이 5816억달러고 단기외채(6월 현재)는

| 주요 신흥국가 외환보유액·외채 현황                               |       |          |        |          |        |        |
|---------------------------------------------------|-------|----------|--------|----------|--------|--------|
| (단위: 억달러 %bp, *자료: IMF, 월드뱅크, 블룸버그,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       |          |        |          |        |        |
| 구분                                                |       | 러시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베트남    | 필리핀    |
| 외환보유액 (8월 현재)                                     |       | 5,816    | 2,051  | 471      | 128    | 367    |
| 단기외채 (6월 현재)                                      |       | 1,031    | 413    | 302      | -      | -      |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 17.7     | 20.1   | 64.1     | -      | -      |
| 총외채/외환보유액                                         |       | 92.8     | 100.9  | 282.5    | 149.9  | 149.3  |
| CDS추이                                             | 9/30  | 261.49   | 179.30 | 1,003.41 | 332.10 | 286.38 |
|                                                   | 10/24 | 1,031.14 | 568.44 | 3,833.33 | 711.07 | 740.81 |

1031억달러로 단기외채/외환보유액이 17.7%였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브라질은 외환보유액 2051억달러, 단기외채 413억달러로 역시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의 약 5배에 달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외환보유액 471억달러, 단기외채 302억달러로 단기외채/외환보유액이 3개 국가 중 가장 높은 64.1%지만 기준비율은 100%와 거리가 있어 1년 안에 IMF로 직행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백진엽 기자 jyback@

더 리포트 이

# 이머징마켓, 선진국 침체 '나비효과'

지난주 선진국지수 4~5% 하락에 투자릿수 낙폭  
투자자들 현금확보 심리에 주식·채권등 팔아치워

금융위기의 위력이 거세지면서 새로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든 신흥시장(이머징마켓)의 타격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 한주간(10월20~24일) 미국과 유럽 등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선진국 지수가 4~5% 안팎 하락하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마켓 증시는 투자릿수 낙폭을 기록하며 '패닉'에 빠졌다.

미국 다우지수는 지난주 5.35% 하락한 8378.95로 거래를 마쳤다. 낙폭이 작지 않았지만 10월 첫째주와 둘째주 각각 7.34%, 18.15% 하락한 데 비하면 진점국면으로 볼 수 있다. 유럽증시도 영국 FTSE100지수가 -4.42%, 프랑스 CAC40지수가 -4.09% 수익률을 기록하며 비교적 선방했다.

반면 한국 코스피지수가 20.49% 하락하며 20년새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이머징마켓 증시는 줄줄이 두 자릿수 폭락사태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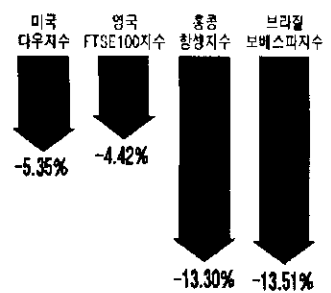
홍콩 항셍지수가 13.3%, 인도 센섹스지수가 12.77% 하락했고 브라질과 러시아증시는 각각 13.51%, 17.7% 내렸다. 소위 '브릭스'로 불리는 이머징마켓의 선두권 증시가 동반 급락했다.

이머징마켓 증시가 미국 유럽보다 낙폭이 큰 이유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탈출' (엑소더스) 현상 때문이다.

위기 진앙지인 선진국들의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의 파급효과는 금융시장이 좀더 취약한 이머징마켓에서 금융경색으로 나타나고, 그들의 주요 성장동력인 원자재가격을 떨어뜨린다. 안전자산 선호와 현금확보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 대비 현지통화 가치도 떨어진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자들이 이머

지난주 세계증시 동락을 현황



징마켓의 주식·채권·통화를 모두 팔아치우고 있다"며 "지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기침체를 압박하면서 이머징마켓을 지탱하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클라리데로이의 실비아 머렌조는 "선진국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국가에서 펀드의 급격한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창 기자 ryan@

# ‘경제의 神’ 고해성사하다



로이터

18년간 FRB 의장으로  
군림했던 앨런 그린스펀

：

이젠 금융위기 부른 주범으로  
美청문회선 온통 성토·비난

：

“백년만에 한번 있을 신용 쓰나미  
저도 충격... 잘못 있었습니다”

‘격동의 시대’는 앨런 그린스펀 (Greenspan·82) 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천당에서 지옥으로 끌어내렸다.

미 경제 호황기를 이끈 공로로 ‘마에스트로’ ‘경제대통령’ ‘경제의 신(神)’ 등 화려한 찬사를 받았던 그린스펀 전 의장은 이제 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몰려 청문회에 섰다. 23일 미 하원 감독·정부개혁 위원회 청문회는 지금까지의 ‘그린스펀 주연(主演)’ 청문회와는 완전히 달랐다. 과거 “미국 경제는 당신에게 빚을 졌다”고 칭송했던 미 의회는 그를 세기적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아 죄를 추궁했다.

그린스펀의 얼굴엔 웃음기가 가셨다. 바짝 타는 입술로 현재의 금융위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준비된 원고를 읽는 그린스펀에게 의원들은 “잘 안 들린다”며 마이크를 바짝 들이댔 것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그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살얼음 밟듯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라 부인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시인했다.

1987년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FRB 의장으로 발탁돼 18년6개월을 금융사령관으로 재직했던 그린스펀은 미국 현대금융사 그 자체였다. 1990년대 미국의 호황기를 구가하고 인플레이 없는 세계경제를 이끌며 블랙 먼데이, 9·11 테러, 닷컴 버블을 헤쳐 나왔지만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붕괴에 걸리고 말았다. 그가 2001~2004년까지 유지했던 초저금리 정책은 주택버블을 키웠고, 그의 감독 소홀은 방만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방조했으며, 월가(街)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완화 정책은 신용부도스와프(CDS)라는 괴물 파생상품을 키워내고 말았다. 그는 자서전 ‘격동의 시대’에서

지난 25년을 ‘시장자본주의 힘의 재발견’으로 정의(定義)했으나 그 정의가 이제 무너졌다.

“당신의 이데올로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 아닌가.”

헨리 왁스먼(Waxman) 청문회 위원장은 이날 그린스펀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다. 왁스먼은 그린스펀 철학의 근간인 시장경제와 극단적인 자유방임 이데올로기를 공격했다.

그린스펀은 시인했다.

“오류를 발견했다. 이 오류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속될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 사실로 매우 곤혹스럽다.”

그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를 정책결정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백년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신용 쓰나미(지진해일)’”라고 규정했다. “지난 40년 이상 경제이론이 아주 잘 들어맞고 있다는 많은 증

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사태에)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다.

청문회 4시간 동안 그린스펀이 고해성사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거부했고, 부분적인 오류만 시인했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어서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가격이 하락할 줄 몰랐다”거나 “주주의 이익을 지키려 하지 않은 월가가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겼다.

그린스펀은 자서전에서 줄리아 드 음대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하고 직업 뮤지션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겪었던 패걸이의 고통과, 뒷날 이룬 자신의 화려한 업적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책에서 그린 자신의 업적이 말년에 부대령이 돼 돌아올 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격동의 시절에 그는 너무 오랫동안 FRB 의장을 맡았는지 모른다.

뉴욕=박종세 특파원

ispark@chosun.com

## “한국 주가·통화가치 폭락등 위기속 관리들 경제 튼튼하다며 지원 거부”

### WSJ, 반박기사 게재

한국경제가 점차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전날 보도에 대해 한국정부가 이를 부인하고 나서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또다시 “한국 관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가 견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반박 기사를 내보냈다.

WSJ는 이날 ‘한국, 어려움 정후 속에서도 지원엔 저항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통화가치는 폭락세를 지속하는 등 경제침체의 징후가 늘고 있는 가운데도 한국 관리들은 경제가 여전히 튼튼한 발판 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한국보다 상황이 나쁜 나라들이 더 많이 있으며 한국은 IMF로부터 지원받을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WSJ는 “24일 주가지수가 2005년 7월 이후 최저치로 추락하고 원화가치는 올해 들어

서만 33.8% 떨어지는 등 경기둔화 조짐은 본격화되고 있다”며 “매수자가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보유선박의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울의 한 선박회사 사장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WSJ는 24일 “IMF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특별한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방안을 세웠으며,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멕시코 및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지원 대상에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뉴욕타임스(NYT)도 24일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한국경제가 취약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외차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은행들은 국제 자금시장 경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계 경제 둔화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는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 NYT의 설명이다. 다만 NYT는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10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 때 보다는 더 견실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yangchoe@fnnews.com|채지용기자



# 한국경제

2008년 10월 27일 a29면

## 9월 기준주택 판매 증가...증시에 위안 기대

### 미국증시

뉴욕은 물론 세계 주식시장의 최대 관심은 지난주의 주가 폭락세가 진정될지 여부에 쏠릴 전망이다.

이번 주 뉴욕 시장의 가장 큰 재료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 결정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를 꼽을 수 있다. 월가에서는 실업 소비 생산 주택 관련 지표에 비해 경기하강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2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1.0%로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번 버נק FRB 의장도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했다.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시장의 관심은 추가 금리인하 여부에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갈수록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정부가 광범위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 뉴욕증시 일정

|     |                                      |
|-----|--------------------------------------|
| 27일 | 9월 신규 주택 판매                          |
| 28일 | 10월 소비자 신뢰지수                         |
| 29일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결정 9월 내구재 주문     |
| 30일 | 3분기 국내총생산(GDP)                       |
| 31일 | 9월 개인소득 및 소비<br>10월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 |

도 적지 않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섰는지 여부를 보여주게 된다.

마켓워치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망 조사에 따르면 3분기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0.5%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 규모는 분기 기준으로 7년 만에 처음 감소하게 된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그만큼 경기 하강이 급속히 진행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뉴욕시장은 물론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이어 베투 글로벌위사이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극심한 경기침체,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 경색 및 자산가치하락(디플레이션)과 동시에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라며 "역사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와 관련, 챙겨봐야 할 또 다른 지표는 27일 발표되는 9월 신규주택 판매실적이다. 지난주 발표된 9월 기존 주택 판매량은 전달에 비해 5.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4% 늘어나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한 만큼 신규 주택 판매까지 살아난 것으로 나타나면 증시에는 상당한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실적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들이 잇따라 실적 전망치를 낮추는 가운데 27일 버라이즌, 29일 프록터앤갬블, 30일 엑손모빌, 31일 세브론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 한국경제

2008년 10월 27일 a2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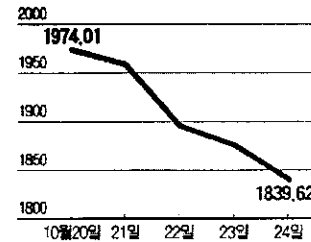
## 실적 부진속 경기부양 효과 촉각

### 중국증시

중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발표가 본격화하고 있다. 분위기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유기업(금융업체외)들의 영업이익은 2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여 1~8월 중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특히 석유와 전력 기업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업종별 영업이익은 5대 발전기업의 경우 전년 동기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고 석유화학기업들은 94%나 급감했다.

이번 어닝시즌의 또 다른 특징은

###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기업이익의 규모가 아니라 추세다. 3분기 혹은 9월 이익이 전분기나 전월에 비해 줄어든다는 점이 관심 포인트다. 최근 중국의 실물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 베이징 리서치센터 주최한 탐장은 "3분기 보다는 4분기의 실적전망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위안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지난 9월부터 개인투자자의 증권거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실시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또 중국 금융당국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5%에 달하는 개인 예금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도 면제키로 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 유가 17개월만에 최저

## OPEC 감산 결정에도 하락 지속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에도 전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 전망이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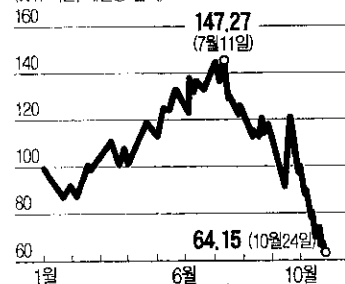
2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원유(WTI)는 3.69달러(5.4%) 떨어진 배럴당 64.15달러에 장을 마쳤다. 작년 5월31일 이후 최저치다. 이로써 WTI 가격은 지난 7월11일 배럴당 147.27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3개월여 만에 56%나 추락했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현물가격도 2.07달러 내린 배럴당 56.47달러로 마감했다.

OPEC이 감산을 결정했지만 유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OPEC 회원국들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가 급락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회담을 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리 알 누미이미 석유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150만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OPEC이 감산하는 것은 2006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경제정보 업체인 DTN의 데린 뉴섬 수석 애널리스트는 “전 세계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는 상

### 국제유가 추이

(WTI 기준, 배럴당 달러)



황에서 시장은 공급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가(WTI 기준)가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매쿼리퓨처스의 나우먼 바라캐트 부사장은 “유가가 곧 배럴당 50달러 선을 시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12월 인도분 금값은 최근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15.60달러(2.2%) 오른 온스당 730.30달러로 마감했다. 이날 금값은 장중 한때 온스당 681달러까지 떨어지며 작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mailto:yooby@hankyung.com)

한 국 경 제

신경무

朝鮮漫評

kmshin@chosun.com



이렇게 대답했으면 간단한 일을...

명심 하겠습니까  
노무현 중개님...



김용민의

그림마당

yongmin@kyunghyang.com



한겨레  
그림판



장봉균  
jang@  
hani.co.kr

서울만평

백무현 bnh@seoul.co.kr



# 금리 0.25~0.5%p 내릴듯 추가 감세-재정지출 확대

오늘 긴급 금통위... 한은, 은행채도 매입  
정부 “경제살리기” 주내 종합대책 발표

## 오늘 당장 금융시장이 걱정인데 청와대는 “달러 부족 거의 해결”

강력한 선제적 경기대책 없이 안이한 대응  
송례문 불 끌 때 우왕좌왕하던 모습과 닮아

## “IMF, 1조달러 기금 마련”

WP·WSJ 보도... 일시적 외환부족국 지원용

## “韓·EU 연내 FTA 체결 노력”

李·사르코지 대통령 합의

## “수도권-그린벨트 공장전립 규제 완화”

정부, 내수부양 위해... 車소비세율도 인하 검토